

<별표 4> 긴급조치위반 사건별 판결내용

※ 약어설명 : 징(징역) 자(자격정지) 집(집행유예) 벌(벌금) / 단(단기) 장(장기) / 비보군(비상보통군법회의) / 비고군(비상고등군법회의)

1) 대통령 긴급조치제1호(1974. 1. 8. 제정), 대통령 긴급조치제4호(1974. 4. 3. 제정) 위반사건(1심판결 선고일자순)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1	74. 1.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2. 1. 74비보군 형공제1호]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3. 2. 74비고군형항제1호] [대법 1974. 8. 20. 74도1123]	장준하(출판업), 백기완(백범사상 연구소 대표)	징자15→ 징자12 (백기완)	전 신민당 국회의원으로 잡지 '사상계'를 출판(장준하), 신민당 국회의원 낙선, 3선개헌반대투쟁활동, 백범사상연구소 소장(백기완)으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여 함석헌 계훈제 등과 개헌청원 운동에 대해 논의하면서 긴급조치를 비판함	비보군 비고군 대법	박희동, 신현수, 박천식, 김태원, 김영범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극, 박정근, 정태균, 이진우 김윤행,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대법원 결정(1974. 4. 9. 74도1123)으로 구속 집행 정지와 백병원으로 주거제한(장준하)
2	74. 1.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2. 2. 74비보군 형제2호]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2. 2. 74비고군형항제2호] [대법 1974. 7. 16. 74도1122]	고영하, 이상철, 문병수, 김석경, 황규천, 서준규, 김 함(대학생)	아래	연세대 의대생들로서, 1. 22 강의실에서 유신헌법 및 긴급조치 철회회의를 하자고 선언하고, 개헌청원서명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1.8긴급조치를 철회하고 언론집회자유를 보장하라는 요지의 글을 낭독하고 투표로 실력행사를 결정(헌법반대, 반대 선동, 긴급조치 비방)	비보군 비고군 대법	박현식, 이희성, 권종근, 김진석, 신복현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극, 박정근, 정태균, 이진우 이일규,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항소심에서 문병수는 고문과 폭행에 의해 진술서를 작성한 것임을 항변했으나 배척
<형량> 징10(고영하, 황규천), 징7(이상철, 문병수, 김석경), 징5(서준규, 김함)→징7(고영하, 황규천), 징5(이상철, 문병수, 김석경), 징3집5(서준규, 김함)								
3	74. 1.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2. 7. 74비보군 형공제3호]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3. 6. 74비고군형항제3]	김진홍, 이해학, 이규상(전도사), 인명진(목사), 박윤수(전도사), 김경락(목사)	징자15(김진홍, 이해학, 이규상), 징자10(인명진, 박윤수,	활빈교회, 성남 주민교회, 수도권 특수선교위원회 영등포 도시산업선교연합회 등의 목사, 전도사로서, 긴급조치 철회와 개헌청원서명운동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시국 기도회를 개최할 것을 결의하고 지학순, 김재준 목사 등을 고문으로 추대하고, '개헌논의 허용하라, 민주질서 회	비보군 비고군	박희동, 신현수, 박천식, 김태원, 김영범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극, 박정근, 정태균,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호 [대법 1974. 8. 20. 74도1124]			김경락)	북하라는 현수막과 선언문을 작성하여 1. 17. 종로구 기독교회관 소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선언문을 낭독하고 개헌청원서명록에 서명하고 기자들에게 선언문을 배포함	이진우 대법 김윤행,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4	74. 1.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3. 2. 74비보군형공제6호]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3. 30. 74비고군형항제5호] [대법 1974. 7. 16. 74도1244]	긴조 1호	이근후, 김영선, 김구상(대학생)	정10(이근후), 정7(김영선, 김구상)→정7(이근후), 정5(김영선, 김구상) 서울대 의대생들로, 긴급조치 철폐를 위한 쫓겨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의 격문을 읽고 도서관에 모여 개헌청원서명운동 지지를 결의하고, 결의문을 작성하고 향후 시위를 주도할 것을 모의하고 결의문을 배포(헌법개정 청원선동, 긴급조치 1호 비방)	비보군 박현식, 이회성, 권종근, 김진석, 신복현 비고군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극, 정태균, 박정근, 이진우 대법 이일규,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5	74. 1. 9.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3. 8. 74비보군형공제5호]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4. 19. 74비고군형항제7호] [대법 1974. 7. 26. 74도1407]	긴조 1호	000 (무직)	정자12 →정자7 자신의 집에서 이웃주민과 이야기도중, '신문을 보니 박정희가 일을 세번 터트렸는데 삼선개헌, 10·17조치, 이번에 긴급조치...이것은 다 새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현정권이 무너지기 위한 징조로 보인다. 개헌청원서명운동을 내버려두면 개헌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권을 뺏길테니까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동네주민들에게 확성기를 통해 '현정부가 부정부패해서 공화당이 망하게 된다. 또한 박정권도 망한다. 군대가지마라, 군대가면 중동전쟁에 나가서 죽게 됩니까'라고 말함(유언비어 날조유포)	비보군 박현식, 이회성, 권종근, 김진석, 신복현 비고군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극, 정태균, 박정근, 이진우 대법 주재황, 김영세, 이형호, 이일규	
6	73. 11.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3. 8. 74비보군형공제4호]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4. 19. 74비고군형항제6	긴조 1호	윤석규 (무직)	정자10 →정자7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평소 친분이 있는 서울대생들에게 학생데모를 선동하는 방법으로 '전국학생연합'이라는 가공단체명으로 '독재, 부패, 공산당, 왜놈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표시한 "저항표"라는 전단을 만들어 서울대, 성균관대 구내에 살포케하고, '이것이 우리	보군 박현식, 이회성, 권종근, 김진석, 신복현 비고군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극,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의 투쟁이유이다'라는 제목 하에 '현정권연장을 위해 최근의 서해안 북피도발은 김일성과 짜고 하는 행동'이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40매 작성하여 서울시내 주요일간신문사, 학생단체, 정당들을 비롯, 김수환추기경, 법정스님, 한경직 목사 등에게 우송하는 등 반정부활동을 하면서 '긴급조치는 현정권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최후발악이며 이 조치로 외국과는 고립될 것이다'라고 말함(긴급조치 비방, 유언비어 날조유포)	정태균, 박정근, 이진우		
	호] [대법 1974. 7. 16. 74도1409]					대법 홍순엽, 민문기, 임형준, 안병수		
7	74. 1.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3. 15. 74비보 균형공제7, 8호]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4. 17. 74비고 균형항제8호] [대법 1974. 11. 26. 74도 1393]	긴조 1호, 변호사법, 사기	정동훈, 유갑중, 김장희, 김성복, 권대복(민주통일당 간부)	징자15(정동훈, 김장희, 김성복), 징자12(유갑중, 권대복)→징자12(김장희, 김성복), 징자10(유갑중, 권대복)	1973. 1. 민주통일당의 창당으로 위 정당의 노동국장, 당무국장, 청년국장, 국제국장 등의 간부들로서, 73. 12. 14. 위 정당 최고위원 장준하 주동으로 개헌청원서 명운동 전개를 적극 지지하다, 74. 1. 15. 장준하가 긴조 1호위반으로 구속되자 그 석방대책수립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긴급조치 즉각철폐, 구속인사석방, 민주주의본질을 소생시킬 수 있는 대의기관 서둘러 구성할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발표문을 조선, 신아, 중앙신문 등의 편집국장 등에게 우편발송함	비고군 박현식, 이희성, 권종근, 김진석, 신복현 비고군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극, 박정근, 정태균, 이진우 대법 양병호,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8	74. 1.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3. 15. 74비보 균형공제9호]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4. 19. 74비고균항제9호] [대법 1974. 11. 12. 74도1408]	긴조 1호	000, 000(무죄)	징3→징2(000)	교회전도사 등으로 활동하다 그만둔 자들로, 000은 "박정희는 장기집권을 위하여 민주적으로 헌법을 개정하려는 것을 막고 1·8긴급조치를 발동한 것이다, 국민들은 할말도 못하고 병어리 행세를 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000는 대통령을 지칭하여 "이 농아들 머리 잘 쓴다, 개헌청원자가 날로 늘어나니까 긴급조치를 선포하였다"고 말함	비고군 류병현, 강신탁, 신정철, 송병철, 황중태 비고군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극, 정태균, 박정근, 이진우 대법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김윤행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9	74. 1. 27.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3. 15. 74비보균형공제10호]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4. 19. 74비고균형항제10호] [[대법 1974. 7. 26. 74도1410]	긴조 1호	000 (무직)	징5	강원도 속초시 모다실에서 동석한 사람들과 물가문제와 사회경제 등을 이야기하다가, "정부가 물가조정한다고 하면서 물가가 오르기만 하니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냐", "중앙정부에서 모 대학교수를 잡아 조사를 하다 때려죽이고서는 자살하였다고 거짓발표하였다. 그래서 학생들이 데모를 하니 이후라이를 영국으로 도망보냈다, 이 모든 것이 000와 000이가 시켜서 한 짓들이다"라고 말함(유언비어 날조유포)	비보군 비고군 대법	류병현, 강신타, 신정철, 송병철, 황종태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국, 정태균, 박정근, 이진우 민문기, 홍순엽, 임항준, 안병수	
10	74. 1.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3. 28. 74비보균형공제11호]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4. 29. 74비고균형항제11호] [대법 1974. 7. 26. 74도1495]	긴조1 호	김동완(전도사), 권호경(목사), 이미경, 차옥승(기독교교회협의회 사무원), 박상희, 김매자, 김용상, 박주환(대학생)	아래	수도권 특수지역 선교회 전도사, 목사, 한국신학대, 이대생들로서, 김진홍 등 소장파 교역자들이 1.17. 헌법 개정청원서명허용 시국선언기도회 개최로 긴조 위반으로 구속되자, 시국기도회 경위와 연행구속사실을 실은 '개헌청원운동 성직자 구속사건 경위서 470매를 작성하여 전국 교회에 우편으로 발송함	비보군 비고군 대법	박희동, 신현수, 박천식, 김태원, 김영범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국, 박정근, 정태균, 이진우 이병호, 주재황, 김영세, 이일규	아래
<p><형량> 징자15(김동완, 권호경), 징10(박상희), 징3(김용상, 박주환), 징3집5(차옥승, 김매자, 김용상)→징17자15(권호경), 징7(박상희) <기타> 권호경은 [서울형사지법 1973. 9. 25. 73고합518] 내란예비와 병합하여 가중처벌. 항소심에서 권호경은 군수사기관에서 모친 고문을 받았고 검사신문전에 수사기관원으로부터 '부인하면 다시 고문받을 것이다'라는 위협받았다고 하여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었으나, 판단하지 않음</p>									
11	74. 4.	(인혁당재건위)[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7. 11. 74비보균형공제35, 36호][민청학련][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7. 13. 74비보균형공제14, 17,	긴조 4호, 국보법, 내란예비음모, 반공법(인혁당재건위),	아래	아래	◎(인혁당재건위) 피고인들은 60년대 민민청, 민자통, 사회대중당 등 혁신계활동으로 인해 특수범죄처벌에 관한특별법,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들로서, 71. 4 인혁당과 같은 조직의 재건을 위해 경북지구조직, 서울지도부 결성을 모의하고 73. 10. 전국학생 데모조직결성을 위해 대구의 학생들을 파견합의하고, 74. 2 3-4월 거사를 결의하고,	비보군 (74.7.11) 비보군 (74.7.13) 비고군	박현식, 이희성, 권중근, 김진석, 신복현 박희동, 신현수, 박천식, 김태원, 김영범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국,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18, 호]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9. 7. 74 비고 균형 항제 14.15.16호] [대법 1975. 4. 8. 74도 3323] [서울고법 1989. 6. 30. 85노 608]	긴조 4호, 국보법,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반공법, 뇌물공여 (민청학련)			74. 4. 정부전복 중심체인 전국적 학생조직의 구성을 지령, 모의하고, 여정남이 민청학련 관련자임을 알고 도 불고지함 ◎(민청학련)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연세대, 성균관대, 고려대, 숭실대, 한양대 재학, 졸업생들로서, 73. 12 인혁당 재건위 지도위원 여정남이 이철과 정부전복중심체로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을 구성하기로 공모하고, 74. 3.4에 전국적 규모의 학생데모를 벌이기로 모의하고, '반독재구국선언', '민중민족민주선언' 등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74. 4. 3. 전국적 공동연합시위를 하기로 함	박정근, 정태균, 이진우 대법 민복기,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이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희, 이일규	
<p><피고인 성명 및 직업> 서도원, 도예종,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우홍선, 송상진, 전창일, 김종대, 황현승, 이창복, 김한덕, 라경일, 강창덕, 전재권, 이태환, 조만호, 정만진, 이재형, 임구호, 유진곤(이상 인혁당재건위), 이 철, 유인태, 여정남, 정문화, 김병곤, 황인성, 라병식, 서중석, 안양노, 이근성, 정운광, 강구철, 구충서, 이강철, 정화영, 임규영, 김정길, 이 강, 윤한봉, 김영준, 송무호, 김수길, 김영일, 김효순, 유근일, 이현배, 정상복, 이직형, 안재웅, 라상기, 서경석, 이광일(이상 민청학련)</p> <p><형량> ①[인혁당재건위] 사형(서도원, 도예종,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우홍선, 송상진), 무기징역(전창일, 김종대, 김한덕, 라경일, 강창덕, 전재권, 이태환, 유진곤), 징 20자15(황현승, 이창복, 조만호, 정만진, 이재형, 임구호) [민청학련] 사형(이 철, 유인태, 여정남, 김병곤, 라병식, 김영일, 이현배), 무기징역(정문화, 황인성, 서중석, 안양노, 이근성, 김효순, 유근일), 징20자15(정운광, 강구철, 이강철, 정화영, 임규영, 김영준, 송무호, 정상복, 이직형, 라상기, 서경석, 이광일), 징자15(구충서, 김정길, 이강, 윤한봉, 김수길, 안재웅)</p> <p>②항소기각(서도원, 도예종,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우홍선, 송상진, 전창일, 김한덕, 라경일, 강창덕, 이태환, 조만호, 정만진, 이재형, 유진곤, 이 철, 유인태, 여정남, 정운광, 윤한봉, 김수길, 정상복, 안재웅, 라상기, 서경석, 이광일), 무기징역(이현배), 징20자15(김종대, 정문화, 황인성, 나병식, 서중석, 이근성, 김효순, 유근일), 징자15(황현승, 이창복, 임구호, 전재권, 강구철, 이강철, 정화영, 임규영, 김영준, 송무호), 징자12(구충서, 이직형)</p> <p>③상고기각(서도원, 도예종,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우홍선, 송상진, 전창일, 김종대, 황현승, 이창복, 김한덕, 라경일, 강창덕, 전재권, 이태환, 조만호, 정만진, 이재형, 임구호, 유진곤, 이 철, 유인태, 여정남, 황인성, 서중석, 이근성, 정운광, 이강철, 정화영, 임규영, 김효순, 유근일, 이현배, 정상복, 이직형), 파기환송(김영준, 송무호)</p> <p>④면소(김영준, 송무호) ※ 대법원이 비상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하였으나, 설치근거인 긴조 2호가 실효됨으로써 위 고등군법회의에 상응하는 국방부 고등군법회의가 85. 2. 14. 새로이 관할권을 갖게 된 서울고법에 이송하였으나, 판결확정되지 않은 채 공소제기된 날로부터 15년 경과되었으므로 공소시효 완성되어 면소판결</p> <p>※(개요) 74. 4. 3. 정부는 긴조 4호를 발표하는 특별담화문에서 반국가적 불순세력의 배후조종하에 '민청학련'이라는 불법단체가 공산주의 인민혁명을 수행하기 위해 '통일전선'의 초기단계 지하조직을 구성하였다고 발표하고, 74. 4. 25. 중앙정보부는 민청학련의 배후에 과거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혁당 조직이 있다고 발표함</p>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p>※(인혁당 재건위) 민청학련의 배후조직으로서 인혁당 관계자들이 지목되었으며, 도예종, 서도원 등 8명이 75. 4. 9. 대법원 판결확정된지 20시간만에 사형집행당함. 사건 관련자들은 완전히 고립된 상태로 조사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였으며 정당한 변론기회도 갖지 못하였음. 2차 인혁당 사건은 반유신투쟁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발표되어 위기상황에서 국면전환의 계기로 작용됨</p> <p>※(민청학련) 1974. 긴조 1, 2호가 발동되는 억압적 상황에서 유신체제에 대한 조직적 저항을 위해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학생운동 지도부들의 주도하에 전국 규모의 통일적 투쟁조직인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을 결성하고자 시도. 1969.의 3선개헌 반대투쟁과 1971. 교련 반대투쟁을 이끌었던 선배그룹과 1973. 10. 서울대 문리대 시위를 주도하였던 후배그룹으로 구성되어 대학간, 지역간 연계망을 구축하고 재야 인사와 종교계 인사와도 일정한 유대관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나, 계획이 사전에 당국에 누출되면서 지도부들이 수사기관에 추적, 검거되었고 결국 4. 3.로 예정되었던 공동연합시위는 일부 대학에서의 소규모 시위로 그치고 말았음.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중정의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을 하였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함. 재판과정에서, 증인신문에서 피고인들을 전혀 참석시키지 않은 점,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억제하고 변호인 참여없이 42명의 증인신문을 마친 점, 재판을 비공개 또는 가족 1인의 방청만 허용한 점 등 수사, 재판절차가 위법하였음.</p>									
12	73. 12 74. 1.4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7. 15. 74비보군형공제13호]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9. 7. 74비고군형항제13호] [대법 1975. 5. 27. 74도3324]	긴조1, 4호, 내란선동, 반공법, 출입국관리법	하야가와 요시하루(대학강사), 다찌가와 마사키(자유기고가)	징20자15	민청학련 간부 이철, 유인태 등과 만나 대정부 활동을 적극 지지 성원하고 구체적 실행방법을 교사하여 내란선동하고 거사 비용협조조로 돈 7, 500원을 건넨	비보군 비고군 대법	유병현, 강신탕, 신정철, 송병철, 황종태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극, 박정근, 정태균, 이진우 이병호, 주재황, 김영세, 이일규	항소심에서 긴급조치 5호 2항 경과규정의 위헌성(헌법 53조 1항위반여부)을 다투었으나 배척
13	74. 4.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8. 8. 74비보군형공제25호]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9. 28. 74비고군형항제 25호] [대법 1975. 1. 28. 74도3507]	긴조 4호	이우회, 이상익, 심기화(대학생)	징10(이우회), 징7(이상익, 심기화) →징10(이우회, 이상익), 징3징5(심기화)	한양대학생들로서, 긴급조치철폐 향의로 시험거부를 하기로 하고 동조자를 규합하고 중간시험거부를 모의함	비보군 비고군 대법	류병현, 강신탕, 신정철, 송병철, 황종태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극, 박정근, 정태균, 이진우 한환진,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14	74. 4. 26.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8. 8. 비보군형	긴조 1호	000 (무직)	징5	주점에서 음주하던 중, 주점벽에 게시된 민청학련 피의자로 수배된 이철, 강구철 등의 사진을 가리키며 "	비보군	박희동, 신현수, 박천식, 김태원, 김영범	항소심에서 검찰 판 및 사법경찰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 고
		공제24호] [비상고등 군법회의 1974. 9. 23. 74비고군형항제 24호] [대법 1975. 1. 28. 74도3486]	전 국민학교 교사)		정부는 정당한 대모를 하는 선량한 학생을 처참히 죽 이고 있다, 이복의 김일성이는 적십자 회담으로 통일 을 하려고 하나 현정부가 장기집권으로 독재를 쓰면 서 차일피일 미루기 때문에 통일이나 대화가 이루어 질 수 없다, 현정부는 미쏘일등 강대국에 무조건 아부 하고 있다"고 말함	비고군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국, 박정근, 정태균, 이진우	판에 의한 고문, 폭행, 협박에 의 해 진술한 것이 라는 점,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했으나 배척
15	74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8. 8. 74비보군 형공제26호] [비상고 등군법회의 1974. 9. 25. 74고군형항제26 호] [대법 1975. 7. 8. 74도3499]	진영천, 박 진 (대학생)	징7→징5	전남대생들로, 반정부적 불온001전단사건으로 동 대학 생 12명이 진조 4호로 구속 및 제적되자 이에 대한 구제활동으로 수업거부할 것을 학생들에게 선동	비보군 박희동, 신현수, 박천식, 김태원, 김영범	
						비고군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국, 정태균, 박정근, 이진우	
						대법 홍순엽, 민문기, 임항준, 안병수	
16	74. 5.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8. 8. 74비보군 형공제35호] [비상고 등군법회의 1974. 9. 23. 74비고군형항제 35호] [대법 1975. 3. 11. 74도3505]	000 (농업)	징자15→징 자12	이웃주민에게 건조법령은 법이 아니라 국민의 모든 행동을 제약하려는 법이라고 말한 바 있고, "여순반란 사건때 000가 부두목으로 가담했는데 운이 좋아서 대 통령까지 되었지"라고 말함(국가원수 명예훼손)	비보군 박희동, 신현수, 박천식, 김태원, 김영범	6.25.당시 비상사 태범죄처벌특별 조치령 위반으로
						비고군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국, 정태균, 박정근, 이진우	1951. 1. 26. 광주 지법 목포지원에 서 징12년 언도
						대법 이병호, 주재황, 김영세, 이일규	후, 3년8월로 감 형되어 1958. 11. 출소
17	74. 3.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8. 8. 74비보군 형항제33호] [비상고 등군법회의 1974. 9.	000 (외판원)	징자10→징 자7→무죄 (반공법), 면소(진조)	외판원으로 전전하다, 삼각산 소재 동굴에서 백일기도 를 하며 은거중인 자인바, 수차에 걸쳐 북한의 방송을 청취하고, 동굴앞에서 000 등에게 민청학련관련자 수 배전단을 보이며 "학생들이 왜 나쁜 짓을 했겠느냐,	비보군 박희동, 신현수, 박천식, 김태원, 김영범	아래
						비고군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국,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23. 74비고군형향제 33호] [대법 1975. 1. 28. 74도3488] [서울고법 1988. 5. 20. 85노611]				정부가 돼먹지 않았으니까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라고 함(민청학련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	박정근, 정태균, 이진우 대법 민문기, 홍순엽, 임향준, 안병수 고법 최공응, 임승균, 손평엽		
<p><비고> 대법원에서 피고인이 우리 정부시책 등에 불만을 품고 북한사회를 동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없고, 복귀방송을 삼각산동굴에서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복귀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했다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기조 해제로 면소</p>								
18	74. 4. 9.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8. 8. 74비보군형공제28호]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9. 25. 74비고군형향제 28호] [대법 1975. 3. 11. 74도3508]	진조 4호	성찬성 (학생)	징3→징3집5	전남대생으로 동 대학 국문과생들이 진조 4호 위반으로 검거되자 동료학생들과 대화중, "동 조치는 언론자유 및 자유활동을 억압하는 것이며, 경찰은 죄없는 학생들을 잡아가고 있다"고 말함	비보군 박희동, 신현수, 김태원, 김영범 비고군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극, 정태균, 박정근, 이진우 대법 이병호, 주재황, 김영세, 이일규	
19	73. 2-74. 5.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8. 8. 74비보군형공제31호]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9. 23. 74비고군형향제 31호] [대법 1975. 3. 11. 74도3493]	진조 4호, 반공법	000 (일간스포츠 편집부 차장)	징자15→징자12	이북방송을 수회 듣고, "북한은 평화협정체결을 원하고 있고 생활수준도 남한보다 월등하고 한국전쟁발발은 미국이 중국본토를 수복할 목적으로 일으킨 것"이라고 말하고(유언비어 날조유포, 복귀 찬양고무), "국내에서 보도되지 않는 뉴스는 이북방송을 보면 신속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고 말함	비보군 박희동, 신현수, 김태원, 김영범 비고군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극, 정태균, 박정근, 이진우 대법 이병호, 주재황, 김영세, 이일규	1964. 경향신문 기자로 재직시, 필화사건으로 반공법 위반으로 서울지법에서 징1집2 선고 받음
20	74. 3.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8. 8. 74비보군형공제22호]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9. 23. 74비고군형향제	진조 1호	박석률, 임성균, 권오성, 박호용, 김 윤, 박준엽, 박세진, 안상용, 이중수,		서강대학생들로, 민청학련 총책 이철을 만나고, 서강대에서 3월말경 유신헌법, 긴급조치 철폐 주장하는 학생데모를 결의하고, 결의문, 선언문 600매를 제작하여 3. 28. 교내 라운지에서 학생 150여명과 함께 결의문을 낭독하고 만세삼창을 하는 등 성토대회를 개최함	비보군 류병현, 강신탁, 신정철, 송병철, 황종태 비고군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극, 박정근, 정태균,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22호] [대법 1975. 7. 8. 74도3487]		임상우(대학생)			이진우 대법: 홍순엽, 민문기, 임항준, 안병수	
<p><형량> 정10(박석률), 정8(임성균, 권오성), 정7(박호용, 김 윤, 박준엽, 안상용, 임상우), 장7단5(박세진, 이종수)→정7(박석률), 정5(임성균, 권오성, 박호용, 김 윤), 정3(박준엽), 정3집5(박세진, 안상용, 이종수)</p>							
21	74. 5. 17.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8. 8. 74비보군형공제34호]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9. 23. 74비고군형항제 34호] [대법 1975. 2. 10. 74도3506]	긴조 1호, 반공법	000 (양도업)	징자7→징자 3	비보군: 박희동, 신현수, 박천식, 김태원, 김영범 비고군: 이세호, 윤성민, 치규현, 문영극, 정태균, 박정근, 이진우 대법: 이일규,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22	74. 1-5.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8. 8. 74비보군형공제32호]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9. 23. 74비고군형항제 32호] [대법 1975. 2. 10. 74도3489]	긴조 4호, 반공법	000 (조류사육업)	징자10	비보군: 박희동, 신현수, 박천식, 김태원, 김영범 비고군: 이세호, 윤성민, 치규현, 문영극, 정태균, 박정근, 이진우 대법: 양병호,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1972. 11. 17. 춘천지법에서 반공법 위반으로 징자10월집2 선고
23	73. 11. -74. 7.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8. 12. 형공제 21, 50호]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10. 11. 74비고군형항제 21호] [대법 1975. 8.	긴조14호, 내란선동, 특수공무방해	지학순 (천주교 원주교구장)	7징자15	비보군: 류병현, 강신탁, 신정철, 송병철, 황종태 비고군: 이세호, 윤성민, 치규현, 문영극, 박정근, 정태균, 이진우	아래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19. 74도3494]				에 대해 작성하여 배포하고, 군법회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며 감호공무원을 뿌리치고 병원밖으로 나와 신도 200여명과 함께 성모마리아상에 기도를 함	대법 이일규,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p>항소심에서 헌법 53조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권력분립원칙 등 헌법 근본규범에 반하여 무효, 긴조 1, 4호 헌법 17, 18, 19조1항, 23조, 124조 규정위반, 긴조 1호의 5, 제4호의 8은 대통령긴급조치권의 내재적 한계이탈하여 무효, 긴조 4호 4, 8항은 소급적 처벌규정 11조 1항위배. 긴조 5의 2항 헌법 9, 11조1항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p>								
24	74. 1.4.	[비상보통군법회의의 1974. 8. 12 74비보군형공제20호] [비상고등군법회의의 1974. 10. 11. 74비고군형항제20호] [대법 1975. 4. 8. 74도 3495]	긴조 1, 4호 내란선동	김동길 (연대교수), 김찬국 (연대 신과대학장)	징자15 (김동길), 징자10 (김찬국) →징자5 (김찬국)	김동길은 자택에 찾아온 김영준, 김학민 등 연대학생들과 대화중 1.8긴급조치는 독재집권 영구히 하기 위한 수단이고, 새학기 데모계획을 듣고 격려하고(내란 선동), 김찬국은 위 학생들과 대화중 유신헌법의 불법성과 전국 각 대학의 데모계획을 듣고 격려하고 김영준이 민청학련 구성원이란 사실 알고도 고지하지 아니함	비보군 류병현, 강신탁, 신정철, 송병철, 황종태 비고군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극, 박정근, 정태균, 이진우 대법 김윤행,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김동길, 김찬국, 개헌청원서명운동본부 발기인
25	74. 1.4.	[비상보통군법회의의 1974. 8. 12 74비보군형공제46, 47, 49호] [비상고등군법회의의 1974. 9. 25. 74비고군형항제49호] [대법 1975. 4. 8. 74도 3504]	긴조 1호 내란음모	서창석, 최민화, 구창완, 윤관덕, 이원희, 정명기, 장영달, 이재웅, 신대균, 김경남, 권진관(대학생), 김형기(중학교사)	아래	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 회원들로서 회합을 통해 반정부 투쟁활동방향을 논의하여 3, 4월의 대학생의 유신헌법 반대하는 봉기에 동조하기로 하고, 동연맹의 강연행사인 '신문고 12성', 간행물 뉴스지에 내용과 연설을 하기로 하고,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각 대학기독교학생회 조직을 통해 활동하기로 하고, 민청학련 활동 동조사실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음	비보군 류병현, 강신탁, 신정철, 송병철, 황종태 비고군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극, 박정근, 정태균, 이진우 대법 류병현, 강신탁, 신정철, 송병철, 황종태	
<p><형량> 서창석, 징자15(김형기), 징15(최민화, 윤관덕, 김경남), 징12(구창완), 징10(이원희, 정명기, 장영달, 이재웅, 신대균, 권진관) →징자12(김형기), 징12(최민화, 김경남, 윤관덕), 징10(구창완), 징7(이원희, 정명기, 장영달, 이재웅, 신대균)</p>								
26	73. 11. -74. 4.	[비상보통군법회의의 1974. 8. 13. 74비보군형공제40호] [비상	긴조 1, 4호 내란음모	이해찬, 권 일, 서중수, 최권행, 박용훈, 정진태,	서울대학생들로서 이철, 황인성 등과 만나 긴급조치철폐, 유신헌법, 박정희 독재정권반대를 위한 대규모 학생데모를 계획하고 전국적으로 각 대학을 연합하여	비보군 박현식, 이희성, 권중근, 김진석, 신복현 비고군 이세호, 윤성민	민청학련'사건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고등군법회의 1974. 9. 23. 74비고군형항 제40호 [대법 1975. 4. 8. 74도3490]	공무집행방해, 상해	백영서, 이동진, 유홍준(대학생)		시위를 조직하기로 하고 민청학련 명의로 유인물을 제작하여 내란을 음모하고 민청학련 관여사실을 수사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함.	차규현, 문영국, 박정근, 이진우 대법 김영세,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형량> 장15(이해찬), 장12(권 일, 서중수, 최권행, 박용훈, 정진태), 장10(백영서, 이동진, 유홍준)→장10(이해찬, 권 일, 서중수, 최권행, 박용훈, 정진태), 장7(백영서, 이동진, 유홍준)								
27	73. 10. -74. 4.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8. 13. 74비보군형공제30호]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10. 11. 74비고군형항제30호] [대법 1976. 4. 13. 74도 3500]	긴조 1.4호, 국보법, 내란음모, 반공법	이성재 (지압사, 전직 사회대중당 중앙집행위원)	무기징역	1967. 7.경부터 이수병과 연락하며 사상교양을 받고 1973. 10. 경 전창일, 이수병, 우홍선과 회합하여 혁신계 인사들을 규합하여 인혁당같은 조직을 구성해 대정부투쟁 전개해야 한다고 결의하고 동 조직 지도위원으로 도예중, 서도원을 추대하고, 학생대모지도해 전국학생연합체 구성, 일제히 봉기시키기 위해 학원조직계획을 세우고(반국가단체 찬양고무동조, 헌법 부정 반대, 긴조 1호비방), 이수병이 민청학련에 관여한 사실을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않음	비보군 박현식, 이희성, 권중근, 김진석, 신복현 비고군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국, 박정근, 정태균, 이진우 대법 주재황, 이병호, 임향준, 라길조	인혁당 재건위 사건. 5.16이후 반국가행위자로 구속, 혁명재판소에서 5년선고 받고 복역함
28	74. 3. 16.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8. 13. 74비보군형공제44호]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9. 28. 74 비고군형항제44호] [대법 1975. 2. 25. 74도 3509]	긴조 1호, 4호	백운학 (대학생)	장12→장3집 5	홍익대생으로 종로구 소재 다방에서 반국가단체인 민청학련을 조직, 활동하고 있던 이철과 회합하여 "유신헌법은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1인이 영구 집권하려다 국민들이 개헌운동을 하게 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해 18 긴급조치를 선포한 것이니 이는 반인권적, 반민주적인 악법이므로 유신헌법을 폐지하고 긴급조치를 철회하라는 명분으로 서울의 각대학에서 일제히 데모를 선동하고 홍익대를 담당하고, 고려대학생을 소개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동조(유신헌법 폐지선동, 긴급조치비방)	비보군 박현식, 이희성, 권중근, 김진석, 신복현 비고군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국, 박정근, 정태균, 이진우 대법 이일규,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29	73. 11. -74. 4.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8. 13. 74비보군형공제54호] [비상	긴조 1, 4호, 국보법,	제정구(대학생), 황인범(중학교사), 강창일(대학생)	장15(제정구), 장자15(황인범), 장10(강창일)	서울대 재졸업생으로, 공소의 유인태, 서중석, 김효순 등과 회합, 반정부데모를 계속하고 신학기에는 전국적 규모로 전개하기 위한 전국적 학생조직을 형성하기로	비보군 박현식, 이희성, 권중근, 김진석, 신복현	'민청학련' 사건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고등군법회의 1974. 9. 28. 74비고군형항제53호 [대법 1975. 7. 30. 74도3491]	내란예비음모		하고, 이철과 만나 조직구성에 대해 논의하고 활빈교회 전도사 김진홍, 새문안교회 전도사 서경석 등과 전국적인 개헌운동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민청학련을 조직함	비고군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국, 박정근, 정태균, 이진우 대법 임항준,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	
30	74. 1.-4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8. 14. 74비보군형공제61호]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9. 23. 74비고군형항제29호] [대법 1975. 1. 28. 74도3497]	긴조 4호, 반공법	000 (명지화학공업사 회장)	장자10→장자5 페인트기공업사인 명지화학공업사를 설립하고 기독교, 유교, 불교 등의 교리를 혼합한 천부교를 창립해 교주로 취임해 이복출신 효도회원 300여명을 포섭한 자로, 이복대남방송을 청취하고 본인의 사무실 직원들에게 "서해이션 격침 남북사건은 남한보도와는 달리 간첩선으로 박정권이 유신헌법을 공포한 후 국민여론을 잡기위해 중앙정보부를 시켜 날조한 정치극이다"고 말하고(북괴 선전활동 동조), "요즘 학생들이 데모한다고 긴조4호를 공포하였는데 마치 미친놈이 칼을 빼서 휘두르는 것 같다" 고 말함(긴조 4호 비방)	비보군 박현식, 이희성, 권종근, 김진석, 신복현 비고군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국, 정태균, 박정근, 이진우 대법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	항소심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인정하여 형 감경
31	74. 3. 25.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8. 14. 74비보군형공제38호]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9. 28. 74비고군형항제38호] [대법 1975. 1. 28. 74도3498]	긴조 1호	박영석, 이기승, 신형철 (대학생)	장12→장10(박영석, 이기승), 장7(신형철) 성균관대생들로 학교근처 술집에서 회합하여, 공소의 김수길로부터 유신체제와 긴급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전국적인 학생데모에 동조할 것을 권유받고 임무를 분담하여 데모할 것을 모의하고, 김수길로부터 받은 '유신이란 해괴한 쿠데타와 18긴급조치 등 폭압정치로 언론을 탄압하고 학원과 교회의 억압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민청학련 명의의 유인물과 성균관대학교 반독재투쟁위원회 명의의 선언문 500매를 작성하여 교내 강의실 등지와 학생들에게 유포하고 데모강행	비보군 박희동, 신현수, 박천식, 김태원, 김영범 비고군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국, 정태균, 박정근, 이진우 대법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김윤행	
32	74. 5.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8. 14. 74비보군형공제57호] [비상	긴조 1, 4호	000 (가발공)	장7단5→장5단3 특수절도미수죄로 검찰조사 받기 위해 서울지방검찰청 구치감 대기실에 대기하던 중, 동 장소에서 반공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있던 000이 이복은 실업자가 없고 의	비고군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국, 박정근, 정태균,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 고	
	고등군법회의 1974. 9. 23. 74비고균형항제17호] [대법 1975. 1. 28. 74도3511]				무교육을 한다는 말을 듣고, '정부는 필요없는 긴급조치를 만들어 애매한 대학생 15명을 죽였다고 발언함	이진우 대법 김윤행,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33	74. 7. 9.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9. 4. 74비보균형공제59호]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10. 11. 74비고균형항제54호] [대법 1985. 1. 29. 74도3501] [서울고법 1988. 3. 4. 85노503]	긴조 1, 4호, 법정모욕	강신옥 (변호사)	징자10 →무죄	민청학련 관련자 나병식, 김영일, 황인성, 나상기, 서경석, 이광일, 여정남 등의 변호를 수임하여 군법회의 법정에서 변론중 "이번 사건 변호를 하면서 법은 정치의 시녀, 권력의 시녀라고 단정하게 되었다, 애국학생들을 국보법, 반공법, 긴조로 걸어 빨갱이로 몰아 사형을 구형하고 있으니 이는 사법살인행위이다, 악법은 지키지 않아도 좋으며, 저항할 수도 있고 투쟁할 수도 있다"는 등의 변론을 하다 수차례 경고, 제지받음	비보균 류병현, 강신탁, 신정철, 송병철, 황종태 비고균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극, 박정근, 정태균, 이진우 대법 유태홍, 이일규, 강우영, 전상석, 이정우, 윤일영, 김덕주, 이화창, 유성환, 김형기 고법 최공용, 임승균, 손평업	아래
<p><비고> 상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다수의견 긴조2호 군법회의설치, 긴조5호2항에 의해 긴조해제가 유보된 자에 대해 1, 4호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5공화국헌법 공포와 함께 구헌법 실효되었고, 5공헌법 51조, 구헌법 53조는 차이가 있어 그 계속효력 부인되므로 법령개폐로 그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여 면소판결해야 함)</p>								
34	74. 6.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9. 4. 74비보균형공제63호]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10. 11. 74비고균형항제55호] [대법 1975. 7. 22. 74도3503]	긴조 4호, 반공법	장석구 (남북공에서 대표)	징자5	친구 이성제가 이수병, 우홍선, 전창일과 함께 인혁당 재건위한 공산비밀지조조직을 결성해 수사기관에 의해 수배중인 것을 알고도 은신을 부탁하자 6. 14부터 6. 15.까지 은신을 도와줌(반국가단체구성원에게 편의 제공, 민청학련 활동에 간접 관여)	비보균 류병현, 강신탁, 신정철, 송병철, 황종태 비고균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극, 정태균, 박정근, 이진우	아래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대법 임항준,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		
<p><비고> 인혁당 재건위'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긴급조치 14호 해제에 관한 긴조 2호에 의해 해제 당시 규정범죄를 범하여 재판계속중에 있거나 처벌받은 자에게는 해 효력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p>								
35	74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9. 7. 74비보군 형공제641호] [비상 고등군법회의 1974. 10. 11. 74비보군형 항제56호] [대법 1975. 1. 28. 74도 3492]	긴조 1호	000(수사기관 정보원), 000(태평양산업 감사), 000(무직), 000(건축 매매업), 000(삼원공업 회장)	징자15(000, 000, 000), 징자12(000), 징자10(000)	전직 경찰로 중앙일보 사장 000의 개인정보원, 중정, 보안사, 경찰 등의 대공정보 제공원(000), 전직 국회의 원(000), 중정 3국 3과장(000), 전 민주당 국회의원(000) 등으로 피고인들은 백운학역학연구소 등지에서 대화 중, "긴조로서 학원사태 수습되지 않는다, 1인독재하에 장기집권 위한 지나친 강경책이다, 현 정권 무너지며 함경도 출신 000이가 집권한다, 미국 대한정책은 변질 되어 한국에서의 수입을 제한하고 달러 환율을 인상 시킨다"는 등의 발언함	비고군 박희동, 신현수, 박천식, 김태원, 김영범 비고군 이세호, 윤성민, 차규현, 문영극, 박정근, 정태균, 이진우 대법 양병호,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36	[대법 1977. 3. 22 74도3510]	긴조 1, 4호, 내란선동	윤보선 (前 대통령)	징3집5	박형규 목사를 통해 민청학련에 55만원을 제공(폭력으 로 정부전복하려는 단체에 자금지원한 내란선동)	대법 민복기,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강안희, 라길조, 김용철, 유태홍, 정태원	원심인 비상군 법회의 첫 공판 은 1974. 7. 16. 용산국방부 뒤 에 있는 법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됨	
<p>※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통령긴급조치 제5호(1974. 8. 23. 제정, 대통령긴급조치 1호, 4호의 해제에 관한 긴급조치) 제2항 "해제당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또는 제4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그 사건이 재판 계속 중에 있거나 처벌받은 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또 하나의 새로운 긴급조치로서, 원심이 긴급조치 제 5호의 시행당시 군법회의에 재판계속 중이던 본건을 긴급조치 제1, 4호로 다루어 심리하고 판결한 것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p>								

2)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제정 1974. 1. 14.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 위반사건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1	73. 10. 1 -74. 1. 31.	[서울형사지법 1974. 5. 10. 74고단2355] [서울형사지법 1974. 9. 3. 74노3854] [대법 1975. 3. 25. 74도2917]	긴조 3호,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	000 (회사대표이사), 000(공장장)	벌금 500만원 (000), 벌금 30만원 (000)	<p>㈜00물산대표이사와 공장장으로, 회사근로자 150명에게 지급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부당해고 시에도 임금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사회부의 인가없이 여자근로자들을 철야근무와 휴가근무를 시키고, 000은 대표이사로서 공장장 000에게 당좌수표발행을 제시기일내에 지급하지 않음.</p>	<p>지법 한정국</p> <p>지법 채명목, 김 훈, 김연태</p> <p>대법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김윤행</p>	
2	74. 2	[전주지법 1974. 5. 23. 74고단205] [전주지법 1974. 9. 26. 74노528]	긴조 3호, 근로기준법	000(제조업)	벌금 7만원	<p>근로자 40명을 사용하는 목각인형제조업자로서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고 37명에 대한 74. 1.분 임금 177, 500원을 지불치 않음</p>	<p>지법 김길준</p> <p>지법 김용은, 최종태, 최훈장</p>	
3	74. 5.	[대구지법 상주지원 1974. 10. 15. 74고단429]	긴조 3호	000(광업)	선고유예	<p>삼청광업소 소장으로서 근로자 000를 징계해고하면서 30일전에 해고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 26, 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p>	지법 김효종	
4	74. 2	[대구지법 안동지원 1974. 11. 1. 74고단205]	긴조 3호	000 (성냥제조업)	벌금 20만원	<p>근로자 240명을 고용하여 성냥제조업을 하는 자로서, 13세이상 16세미만 근로자 48명에게 매일 10시간씩 작업을 하게 하고, 여자근로자 159명에 대해 매일 10시간씩 작업하게 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작업을 시킴</p>	지법 김종수	
5	74. 7. 10.	[서울민형사지법 인천지원 1975. 2. 6. 74고단2041] [서울형사지법 1975. 5. 7. 75노1589]	긴조 3호	000(중소제조업체 대표)	벌금15만원 →선고유예	<p>근로자 임금을 지정된 날짜에 지급치 않음</p>	<p>지원 한광세</p> <p>지법 서용은, 김평우, 윤여현</p>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6	72. 11. -74. 1.	[전주지법 1975. 3. 4. 74고단1095]	긴조 3호	000 (건설업)	벌금 1만원	근로자 30명을 사용하는 제방공사 하도급업자로서 72년부터 74.경까지 작업하던 박성만 외 2명에게 임금 315, 000원을 지급하지 않음	지법 박영식	
7	74. 1.	[부산지법 1975. 7. 10. 75고단 3536]	긴조 3호	000 (현대조선중공업 대표이사)	벌금 100만원	울산시 현대조선중공업 대표이사로서 74. 1. 1.-9. 30.사 이에 선체생산2부소속 근로자 57명을 해고함에 있어 30일전 해고예고 해야함을 위반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도합 1, 784, 140원을 지급치 아니하고, 배관과에 근무하는 15, 000명의 근로자들에게 일주일에 36시간 이상 근무케하고, 월간 2일의 유급휴일을 실시치 아니하고, 회사대표로 취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소정의 취업규칙 및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여 보건사회부에 신고치 아니함	지법 하양명	
8	74. 8. 14.	[서울민형사지법 성북지원1975. 7. 24. 75고단1923] [서울형사지방법원 1976. 9. 27. 75노5858]	긴조 3호	000(회사대표), 000(상무이사)	벌금 10만원	30일전에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함.	지원 남용희 지법 이재후, 홍일표, 강기원	
9	74. 10.	[부산지법 마산지원 1976. 6. 24. 75고단383]	긴조 3호	0000 00 (상업)	벌금 10만원	마산수출자유지역 내 한국삼성전기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근로자 임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해고예고절차없이 근로자를 전원해고시키고 해고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음	지법 김종철	

3)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다통령긴급조치(제정 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사건(1975. 발생)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75. 6.-9.	[대전지법 1975. 7. 16. 75고합75]	긴조 9호	000 (대학생)	징1자2집2	충남대학생으로서, '홍의대에서 전국 정밀기계과 체육대회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문교부 검열에 걸려 무산당했고, 지금 서울, 대전 등 대학가에서는 데모가 일고 있으며 학생에 대한 감시가 시작되었고, 대통령 긴급조치 때문에 말도 못하고 산다'는 내용의 서신을 애인에게 발송하였으나 당국 검열로 적발되어 미수에 그침	지법 최병규, 정덕장, 박찬주	
75. 6.	[광주지법 1975. 7. 31. 75고합142] [광주고법 1975. 12. 10. 75노354] [대법 1976. 3. 9. 75도 3755]	긴조 9호	000 (학원강사)	징8자5	학원 국어강사로, 강의중, "박정희는 군인출신이기 때문에 정치를 잘 할 수 없다, 100억불 수출이라 하면서도 수입에 대해서는 은폐하고 있다, 정부에서 장려하는 것에 반대로 하면 잘 살 수 있다, 국어책은 정부 선전하는 매개체에 불과하다, 언론의 자유는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함	지법 고법 대법 심의섭, 장세두, 유정주 노병인, 정태규, 양영태 라길조, 주재황, 이병호, 임항준	
75. 5.	[서울형사지법 1975. 8. 27. 75고합 370] [서울형사지법 1980. 3. 14. 80초 73]	긴조 9호	000 (무직)	징2.6자2집4 →징1집2	5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해외로 이주하려고 하던 중, 광주경찰서 정보과 순경에게 소유재산이 700만원에 불과하다고 허위진술해 신원조사서를 작성케하여 이주허가, 여권을 받고 도피하려다 김포공항에서 출국수속중 대검찰청 특수부 수사관에게 적발됨	지법 지법 박충순, 황상현, 강기원 이재화, 김 훈, 이정구	긴조 9호 4항 위반 긴조해제로 인한 검사의 형경감청구에 의해 감형
75. 5.	[서울형사지법 1975. 8. 28. 75고합 401] [서울고법 1975. 12. 9. 75노 1397]	긴조 9호	김홍복 (농업)	징자1	4.19.부정선거규탄 데모에 참가하였다가 다리부상입은 경험있는 사람으로서, '긴조 9호는 독재로 가는 길이고 구속학생을 석방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 동아일보사 정문에서 수위에게 기자들에게 전해달라고 교부함	지법 고법 권종근, 송기홍, 양상훈 한정진, 정현식, 김종배	
75. 1.	[서울형사지법 1975. 8. 28. 75고합448]	긴조 9호, 사문조위조	000(무직), 000	징1집2(000), 징8월집2(000)	캐나다에 거주하는 친척으로부터 초청장 및 고용계약서를 받고 이주에 필요한 서류로 용접공 경력증명서가 필	지법 권종근, 송기홍, 양상훈	긴조 9호 4항 위반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서울고법 1977. 3. 30. 75노1407]	동행사	(문화공업사 사무원)		요하자 문화공업사에 재직한다는 허위 증명서를 발급하여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고법 조 언, 고중석, 이철환	
6	75. [서울민형사지법 영등포지원 1975. 9. 5. 75고합192] [서울고법 1976. 3. 4. 75노1336]	긴조 9호, 민항단속법, 외국환관리법	000 외 7인 (선원)	징1.6자1~별20만원	일본왕래 화물선 선원들로서, 영리목적으로 밀항희망자 3명을 태워 일본에 도착해 상륙시켜 국외도피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함	지법 강현태, 노경래, 구도일 고법 전병연, 최휴섭, 김종화	긴조 9호 4호 위반
7	75. 6. [청주지법 충주지원 1975. 9. 10. 75고합35] [서울고법 1977. 9. 15. 75노1251]	긴조 9호	000 (농업)	징자2집3	정부에서 시행하는 화전정리사업으로 경작하던 화전 1, 400평을 경작하지 못하게 되자,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박정희란 놈은 우리 화전민만 죽이려고 화전정리를 한다"고 말함(사실왜곡전파)	지법 박규석, 박준석, 이치호 고법 오석락, 이익우, 정귀호	
8	75. 5. [서울형사지법 1975. 9. 11. 75고합377] [서울고법 1975. 12. 4. 75노1386]	긴조 9호, 외국환관리법	000 (무직)	징자1→징자1집2	미국이민을 위해 자금을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미공군 헌병대 소속 공군하사에게 미화12, 000달러를 휴대케하여 동경행 비행기를 탑승하려고 대기하다가 적발검거됨(외국통화 집중의무위반, 국내재산 외국반출 미수)	지법 권중근, 송기홍, 양상훈 고법 전병연, 최휴섭, 김종화	
9	75. 7. 8. [전주지법 군산지원 1975. 9. 18. 75고합47] [광주고법 1976. 2. 17. 75노408] [대법 1976. 5. 11. 76도876] [광주고법 1976. 9. 29. 76노295]	긴조 9호, 폭처법	000 (중화요리사)	징자10→징자2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자 "너희들이 무엇인데 나를 가자고 하느냐, 대통령한테 가서도 할 말이 있다. 누가 공화당표를 찍어 대통령을 시켰는지 모르겠다"고 말함(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언동으로 사실왜곡 전파)	지법 공아도, 유효봉, 조건오 고법 김재주, 박종택, 김용열 대법 김용철, 이영섭, 민문기, 김윤행 고법 노병인, 양영태, 김선석	상고심에서 '전파'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으므로 고법으로 파기환송
10	75. 5. [부산지법 1975. 9. 25. 75고합451]	긴조 9호, 밀항단속법	000(상업), 000(농업), 000,	징2집3(000 외 2인),	000, 000, 000 3인은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없이 부정 한 방법으로 일본으로 도피할 것을 기도하고 미리 정해진	지법 이원배, 손홍익, 김영기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000(무직)	징1집2(000)	충무항 근처의 여관에 투숙하며 도피를 예비, 000은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이들에게 일본밀항 선편을 알선		
11	75. 6.	[서울민형사지법 인 천지원 1975. 9. 26. 75고합101] [서울고 법 1976. 3. 16. 75노1441]	긴조 9호	000 (노동)	징8자5 →징자3 술자리에서, "000는 일본놈에게 7억불을 받고 독도를 팔아 먹었다, 판권을 이용해 학원을 사찰하고 언론기관을 탄압한다, 경찰은 000이한테 돈을 받아 먹었다"고 큰소리로 말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김진우, 한광세, 박영무 고법 한정진, 정현식, 김종배	항소심에서, 범행당시 정신분열증(잠재성)에 걸려 사물변별 능력, 의사결정 능력 미약함 인정하여 형감경
12	75. 5. 31.	[대구지법 1975. 10. 1. 75고합194]	긴조 9호, 외환관리법 위반	000(농업), 000(암달러상)	징1.6자2집3(000), 징1집2(000) 이민간 자형으로부터 한화를 달러로 바꿔 미국으로 우송해 줄것을 부탁받아 금 150만원을 수령하여 환전하여 보관 중, 도피시킬 목적으로 대구소재 우체국에서 잡지사에 봉합하여 국제우편물로 발송하려다 서울국제우체국의 검열에서 적발, 재무부장관의 인가없이 미화 약 1,200불을 매각하여 환전상 업무를 행함.	지법 박봉규, 김길중, 이석우	긴조 9호 3항 위반
13	75. 6.	[부산지법 마산지원 1975. 10. 21. 75고합95] [대구고법 1976. 1. 29. 76노788]	긴조 9호, 폭처법	000 (노동)	징자2 대화중, "박정희가 없는 사람을 더 못살게 한다, 이승만 정권을 이어받아 군사혁명을 일으켜 이북사람들을 비참하게 죽였다" 등의 발언을 함(사실왜곡전파)	지법 조무제, 김종철, 손홍익 고법 고정권, 김철기, 김현무	
14	75. 5. 23.	[서울형사지법 1975. 10. 31. 75고합438] [서울고법 1976. 2. 3. 75노1625]	긴조 9호	나현규 (대학생)	징자1→징자1집2 서울대생으로 5. 22 학도호국단 창단반대시위를 한 동교생 20명의 체적사실을 알고 체적처분의 철회를 주장하는 시위를 할 것을 결의하였으나 예비에 그침	지법 허정훈, 이공현, 김의열 고법 한정진, 정현식, 김종배	
15	75. 7.	[대구지법 상주지원 1975. 11. 6. 75고합	긴조 9호	000 (행상)	징자1→징자1집2 주점에서 술에 취해 "박정희 정치는 X도 아니다"라고 반박하여 말함	지법 성병현, 여춘동, 오윤덕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41] [대구고법 1976. 4. 1. 75노888]					고법	고정권, 김철기, 김현무	
16	75. 5. [대구지법 경주지원 1975. 11. 11. 75고합59] [대구고법 1976. 3. 26. 75노861]	긴조 9호, 반공법	000 (행상)	징자1	술을 마시면서, "박정희 XXX이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사람을 골탕먹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적화통일이 되면 그 후부터 정치도 잘하고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우리 백성이 잘살려면 정부가 뒤엎어져야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고 김일성이 정치를 잘하고 박정희 XXX는 죽일 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함	지법 고법	김완석, 황규정, 정성욱 고정권, 김철기, 김현무	
17	75. 6. [춘천지법 원주지원 1975. 11. 13. 75고합35] [서울고법 1976. 3. 25. 75노1561]	긴조 9호	000 (무직)	징자3→ 징자1집2	주점에서 술마시던 중, "박정희가 10월달이면 왕창할텐데 뭘 그래"라고 말함(대한민국 정부가 붕괴될 것이라는 취지의 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고법	윤상목, 민수명 전병연, 최휴섭, 김중화	항소심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 과오에 기인한 것으로 정상참작
18	75. 7. [춘천지법 1975. 11. 14. 75고합54] [서울고법 1976. 4. 15. 76노37]	긴조 9호	000 (무직)	징자1.6 →징자1	사기죄로 춘천교도소 미결사방에 수감되어 있던 중, 대화중에 "이북은 빛을 많이 지고 망해가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나라도 이북실정과 비슷하다, 000이도 옛날에 공산당이였다, 우리나라민 3천만은 2백만을 위해 살고 있다"고 말함	지법 고법	최공용, 윤정보, 정태세 전병연, 최휴섭, 김중화	
19	75. 5. 20. [서울민형사지법성북지원 1975. 11. 18. 75고합187] [서울고법 1976. 3. 4. 75노1564]	긴조 9호	김진수 (대학생)	징자1→ 징자1집2	한국신학대생으로, 교내에서 반정부시위 참가학생의 징계논의 위한 이사회에 압력하고자 50여명의 학생들과 학생회를 개척함(학교장 사전허가 없는 학생집회)	지법 고법	이병후, 윤규한, 노원욱 전병연, 최휴섭, 김중화	
20	75. 7. [대전지법 홍성지원 1975. 11. 18. 75고합62] [서울고법 1976. 3. 23. 75노1628]	긴조 9호	000 (농업)	징자5→ 징자3집5	한국전쟁당시 충남 홍성군 은하면 인민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자로서, 버스안에서 "000는 고령박가인데 쌍놈이 대통령을 해먹는다, 000이도 김해김가로 쌍놈이다, 옛날 역적놈의 자손이 국무총리나 해먹는다"고 말함(사실왜곡전파)	지법 고법	김억규, 김종식, 동상홍 한정진, 정현식, 김중배	항소심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판단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21	75. 7.	[대전지법 홍성지원 1975. 11. 18. 75고합63] [서울고법 1976. 4. 15. 75노1627] [대법1976. 7. 13. 76도1460]	긴조 9호	000 (농지개발조합 임시직원)	징자3→ 징자2	택시를 타고가면서, "박정희 도당이 하는 정치가 잘하는 것이 뭐냐, 박정희도당과 청와대를 때려부셔야 한다, 경제파탄은 박정희에게 책임있다"고 발언	지법 김억규, 김종식, 동상홍 고법 전병연, 최휴섭, 김종화 대법 양병호, 홍순엽, 이일규, 강안희	
22	75. 6.	[대구지법 안동지원 1975. 11. 20. 75고합49] [대구고법 1976. 2. 27. 75노889] [대법 1976. 5. 25. 76도768]	긴조 9호	000 (무직)	징자1	잡담중, "대통령이 나쁘다, 도둑놈이다, 새마을 사업을 서서히 해도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억압적으로 한다"고 말함	지법 한재영, 박준수, 임수태 고법 고정권, 김철기, 김현무 대법 라길조, 주재황, 이병호, 임항준	
23	75. 7.	[서울형사지법 1975. 11. 20. 75고합582] [서울고법 1976. 3. 16. 75노1684]	긴조 9호	000 (고물행상)	징1.6자2	양평군청 정문에서 하천부지 하자 절차를 문의하려고 군수 면회를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75년도에는 잘살게 해 준다고 하더니 이것이 잘살게 한 것이냐, 박정희가 백성들을 굶어죽게 했는데 너희들은 아무만 하느냐, 종합개발계획이 잘 될 줄 알았느냐, 다 거짓말이다"라고 소리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심훈중, 조용무, 이영호 고법 한정진, 정현식, 김종배	
24	75. 5.-6.	[서울민형사지법 의정부지원 1975. 11. 20. 75고합119] [서울고법 1976. 4. 15. 75노1659] [대법 1976. 7. 13. 76도1477]	긴조9호, 폭처법	000 (축산업)	징자3→ 징자1.6	피고인 형이 열차에 치여 사망하자 동네사람들 앞에서 "박정희 XXX, 세금 다 착취해먹고도 철도 건설목에 간수 하나 두지 않아 사람죽게 했다"고 발언(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홍성운, 이강국, 서재현 고법 전병연, 최휴섭, 김종화 대법 주재황, 한환진, 임항준, 라길조	
25	75. 6.	[대구지법 경주지원 1975. 11. 24. 75고합54] [대구고법 1978. 5. 27. 75노	긴조 9호	000 (무직)	징자1집2	대화중,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니 안심해라, 부과의 남침위협은 없다, 방위세금 2,000억을 국민에게 풀면 경제도탄에 빠지니 방위세를 낼 필요없다, 박정희가 똑똑한 학생을 데려다 죽을 고생을 시키고 정치를 혼란하	지법 김완석, 황규정, 정성욱 고법 고정권, 김철기,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948]				계 만드니 나쁘다"고 말함		
26	75. 6.	[대구지법 경주지원 1975. 11. 24. 75고합53] [대구고법 1976. 3. 25. 75노945]	긴조 9호, 반공법	000 (노동)	징자1집2 울릉도에서 포항으로 가는 여객선 갑판위에서 큰 소리로 "박정희가 왜 월남전에 파병했다가 포기하는가, 월남전은 박정희가 망하게 했다, 박정희가 정치를 잘하나, 김일성이 잘하나"라고 말함	지법 김원석, 황규정, 정성욱 고법 고정권, 김철기, 김현무	
27	75. 7. 5.	[창주지법 1975. 11. 26. 75고합77] [서울고법 1978. 2. 10. 76노26] [대법 1980. 1. 15. 78도661]	긴조 9호, 공무집행 방해	000 (농업)	징자2집3 →면소 보리수납공판장에서 3등 판정을 받고 동네사람들과 술을 먹으면서 "정부가 농민을 위해 해 준 것이 무엇이나"고 발언(사실왜곡전파)	지법 변재승, 조병직, 임승균 고법 박우동, 안종혁, 김규복 대법 유태홍,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싸움말리는 순경에게 큰소리침으로써 공무 집행방해
28	75. 9.	[대전지법 1975. 11. 26. 75고합134] [서울고법 1976. 3. 30. 76노5]	긴조 9호	000 (노동)	징자1 "자유당도 무너졌는데 공화당은 얼마나 갈 것이냐, 돈보따리를 싸다가 박정희를 주어서 살게 되었다, 국회의원도 다 내가 당선시켰다"고 고성으로 말함(유언비어 날조 유포)	지법 안우만, 김권택, 유재선 고법 한정진, 정현식, 김종배	
29	75. 5.	[대전지법 강경지원 1975. 11. 27. 75고합28] [대전지법 1976. 9. 29. 76고합74] [서울고법 1977. 2. 2. 75노1588, 76노2028]	긴조 9호, 공원법, 산림법, 사문서위조 동행사	000(목사), 000(인쇄업)	징자1, 징자1집2→징자1 자신이 창설한 세계공회 본부 회당에서 "1975은 회년의 해이고, 한국에 통일정부가 수립되고 김일성, 박정희가 물러나게 되고 새 시대 지도자가 출현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이를 내용으로 하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 보내는 공개서한을 인쇄의뢰하여 배포함	지법 서철모, 차광웅, 채태범 지법 안우만, 성문용, 김성만 고법 조 언, 고중석, 이철환	
30	75. 9.	[서울민형사지법 인천지원 1975. 11. 28. 75고합135] [서울고법 1976. 4. 20. 75노1645]	긴조 9호	000 (노동)	징자8→징자3 취중행패끝에 피출소로 연행되어 "윤보선 구속사건이 있을 수 있으나, 조금있으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실업자들이 많고 이것은 박정희 XX의 XX때문이다, 내 손에 기관총이 있으면 전부 쏘 죽이겠다"고 큰소리로 떠듬	지법 김달식, 권 성, 박영무 고법 한정진, 정현식, 김종배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31	75. 8.	[서울형사지법 1975. 11. 29. 75고합712] [서울고법 1976. 6. 3. 76노276]	긴조 9호	000 (노동)	징자1.6	열차플랫폼에서 술기운에 큰소리로 "박대통령이 군인을 했으면 얼마나 했느냐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 안 있으면 인민군이 따발총을 가지고 와서 썩 죽인다" 등의 말을 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심훈중, 조용무, 양승태	음주만취해 심신상실 상태주장하였으나 배척
						고법 전병연, 최휴섭, 김종화		
32	75. 8.	[대전지법 홍성지원 1975. 12. 2. 75고합77] [서울고법 1976. 3. 4. 75노1701]	긴조 9호	000 (전기청부업)	징자7→ 징자1.6	술자리에서 대화중, "박정희 그 자식 육군소장이지 별거냐, 그 자식 생김새를 봐라, 족제비 낫짝같이 생기지 않았느냐, 000도 000가 먹었다" 등의 말을 함(사실왜곡전파)	지법 김억규, 김종식, 동상홍	항소심에서 술에 취해 사물변별, 의사결정능력 미약을 인정해 형감경
						고법 전병연, 최휴섭, 김종화		
33	75. 5.	[서울형사지법 1975. 12. 2. 75고합654] [서울고법 1976. 4. 2. 76노3] [대법 1976. 7. 13. 76도1371]	긴조 9호	아래	아래	심지연, 조성우, 이명준 등은 명동성당 사제관 신부 이기정 방에서 '7인 기획위원회'를 조직, 유신헌법철폐, 정권퇴진을 위해 활동하고자 유인물제작, 각 대학 데모상황 정보를 공유함	지법 심훈중, 조용무, 양승태	
							고법 한정진, 정현식, 김종배	
							대법 이일규, 홍순엽, 양병호, 강안희	
<p><피고인 성명 및 직업> 심지연(대학원생), 박홍석, 김용석, 한경남, 조성우, 강현웅, 박계동, 이정국, 이명복, 우영제, 송영길, 박진선(대학생), 이명준, 신경식, 강기중, 최열, 정민수, 여석동(이상 무직), 서상섭, 장성효(이상 연구소직원)</p> <p><형량> ① 징자10(심지연), 징자8(이명준, 김용석, 한경남), 징자7(박홍석, 신경식, 조성우), 징자6(최열), 단4장6자6(이명복), 징자4(강기중, 김현웅, 정민수), 징자3.6(여석동), 징자3(박계동, 박진선, 서상섭, 장성효), 징자2(우영제), 징자1.6(이정국, 송영길)</p> <p>② 징자2.6(정민수), 징자2집4(서상섭, 김현웅, 이명복), 징자1.6집3(여석동, 장성효)</p>								
34	75. 7.	[대전지법 1975. 12. 3. 75고합95] [서울고법 1976. 4. 22. 76노12]	긴조 9호	000 (상업)	징자1.6 →징자1	용산발 목포행 열차에서 술을 마시고 "박정희 도당, 때려 죽인다, 내가 김성주 동생이다, 내가 간첩인데, 찢러 죽이겠다" 고 하고 철도공안원에게 연행되자 다시 위 발언을 함	지법 안우만, 김권택, 유재선	
						고법 전병연, 최휴섭, 김종화		
35	75. 7. 30.	[대구지법 경주지원 1975.12. 8. 75고합공무집행방해]	긴조 9호, 공무집행방해	000 (노동)	징자2집3	6. 25당시 아버지가 인민위원회 서기장으로 부역행위를 하다 서울수복과 함께 행방불명, 중학교 중퇴 후 일정직업없	지법 김완석, 황규정, 정성욱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74] [대구고법 1976. 4. 15. 76노13]				이 노동품팔이로 생활하는 자로서, 주민등록 퇴거 신고시 직권말소로 그 절차가 복잡해짐에 화가 나 강원도 소재 영덕군청에 들어가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새끼들 우리 아버지 사상이 나빴으며 나빴지, 왜 나를 괴롭히느냐, 박정희 이 000"라고 고성을 지름	고법 고정권, 김철기, 김현무	
36	75. 9. [서울형사지법 1975. 12. 12. 75고합725] [서울고법 1976. 4. 29. 76노118]	긴조 9호, 외국환관리법	000 (해외이주산업), 000 (영문대서업), 000(상업), 000(종업원)	징자2→ 징자2집3	미국으로의 이민을 위해 미군과 위장 결혼허가서, 입국사증 신청서 등으로 결혼증명을 받아 이주 허가를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지법 허정훈, 이공현, 김의열 고법 전병연, 최휴섭, 김종화	긴조 9호 4항 위반
37	75. 6. 20. [서울민형사지법 1975. 12. 18. 75고합138] [서울고법 1976. 4. 1. 76노88]	긴조 9호	000 (교회집사)	징자2→ 징자1집2	교회신도와 잠담 중, 6·25성회의 참석권유하면서 "6·25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교인들이 복음을 가지고 박대통령에게 찾아가면 교인들을 가둘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함 (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홍성운, 이강국, 서재현 고법 전병연, 최휴섭, 김종화	
38	75. 6. 16. [서울형사지법 1975. 12. 23. 75고합698] [서울고법 1976. 5. 27. 76노295] [대법 1976. 8. 24. 76도1967]	긴조 9호	이일규 (무직, 전 민주당 충남도당 감찰위원장)	징자10→ 징자26	5.16군부세력 저격위한 계획 도의, 무기입수추진 중 검거되어 국보법 위반으로 5년형 선고받고 형집행정지로 출소 후, '국민의 각', '애국청년의 각' 등 격문형식으로 현정부에 대한 투쟁, 유신은 일본놈 독재도방하여 정치한다, 헌법개정하고 마음대로 혼자서 해먹으려고 한다는 등의 유인물 제작(유언비어 날조, 사실에곡내용의 유인물 제작)하여 대전시내 일대, 정부종합청사, 덕수궁 등지에 배포함	지법 허정훈, 이공현, 김의열 고법 전병연, 최휴섭, 김종화 대법 홍승엽, 양병호, 김윤행, 이일규	
39	75. 7. [광주지법 순천지원 1975. 12. 24. 75고합101] [광주고법 1976. 4. 14. 76노47] [대법 1976. 6.	긴조 9호	000 (농업)	징자7	술에 취해 거리에서 "전쟁이 나면 북한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000이는 김일성의 스파이다, 000는 나쁜 놈이며 총살시켜야 한다"고 외침	지법 강명호, 백수일 고법 노병인, 양영태, 김선석 대법 양병호, 홍순엽, 이일규, 강안희	반공법 위반으로 징8월집1 확정(73. 5. 9.) 복역종료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22. 76도34]							
40	75. 8. 25. [춘천지법 1975. 12. 26. 75고합67]	긴조9호, 반공법	000 (노동)	징자2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에게 "군인의 대우만 잘해주고, 노동자는 잘 살수 없으니 현정치가 나쁘다. 어떻게 된 세상이나? 세상이 뒤집어져야 한다, 나는 빨갱이다. 몇 개월만 있으면 세상이 뒤집어진다. 그러면 너희들 예비군소대장, 이장, 반장들은 다 때려죽인다, 대한민국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등의 발언을 함(북괴찬양, 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최공응, 윤정보, 정태세	
41	75. 8. [서울민형사지법 1975. 12. 27. 75고합302] [서울고법 1976. 4. 15. 76노309]	긴조 9호	000 (노동)	징자10월	대화중,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차관받은 부채를 전체국민에게 나누어도 상당한 액수가 될 것이다, 000 묘소참배객은 공무원, 가족들을 동원시킨 것이다, 박대통령이 야당당수를 입건시키고 장기간 독재정치 한다고 말함(사실왜곡전파, 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고법	채명목, 김기천, 조홍은 전병연, 최휴섭, 김종화	
42	75. 6.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1975. 12. 27. 75고합282] [서울고법 1978. 12. 7. 76노311]	긴조 9호	김기선, 백상태, 이석표, 안정배 (대학생)	징자10월(김기선), 징자1집2(백상태, 이석표, 안정배)→징8월자1집1(백상태, 안정배)	중앙대생들로, 정권비판적 내용의 글을 각자 써 전파할 목적으로 '왕정복고'등 제하의 표현물을 제작함	지법 고법	채명목, 김기천, 조홍은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43	75.5. 22. [서울민형사지법 영등포지원 1975. 12. 27. 75고합279] [서울고법 1976. 6. 17. 76노334] [대법 1976. 12. 14. 76도3656]	긴조 9호	유태선, 라일주, 최명규, 홍순복, 정기택, 장원관, 구은우, 김경규, 정병문, 남광우(대학생)	아래	서울대학생들로서 학내에서 동료학생 500여명과 함께 서울농대생 김상진의 추도식을 진행하여 조시, 조사, 유신 헌법철폐를 주장하는 '반독재선언문' 등 낭독하며 집회하고 교외진출	지법 고법 대법	채명목, 김기천, 조홍은 전병연, 최휴섭, 김종화 안병수, 김영세, 한환진, 김용철	오들들사건' 남광우, 라일주, 김경규 무죄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형량> 징자10월(유태선, 정기택, 구은우), 징자1집2(라일주, 최명규, 홍순복, 장원관, 정병문), 징자8월집2(김경규), →무죄(라일주, 김경규)								
44	75. 6. 3.	[서울민사형사지법 영등포지원 1975. 12. 27. 75고합292]	긴조 9호	이부영 (전 동아일보 기자), 이신범(무직)	징자1(이부영), 징자8월 (이신범)	이부영은 1974. 3. 8. 동아일보 제직 중 노조지부결성에 관여한 바 있어 해임된 후, 해직기자등 120여명과 함께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동 투위 설외의 원으로 피선, 이신범은 이부영과 용산 중, 고교, 서울대 선후배 사이로 재학시절부터 반정부시위에 앞장 선 자 인바, 이부영은 동아일보사 앞 노상에서 미국인 목사로부터 1975. 5. 19.자 미국연합장로교회 187차 총회의 대한 국결의안이란 제하로 한국정부의 언론탄압, 종교자유박탈, 긴조해제요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인물을 교부받아 이신범에게 전달 소지	지법 채명목, 김기천, 조홍은	아래
<기타>1975. 8. 14.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위반, 국가모독, 긴조 9호 위반으로 공소되어 공판계류중(이부영), 1972. 9. 11. 대법에서 내란예비음모죄로 징2선고, 1973. 11. 21. 만기출소(이신범)								
45	75. 5. 22.	[서울민형사지법 영등포지원 1975. 12. 27. 75고합271, 363] [서울고법 1976. 4. 26. 76노304] [대법 1977. 5. 10. 76도1714]	긴조 9호	아래	아래	상호공모하여 고 김상진의 추도식을 개최하기로 하고, 선언문, 조사, 조시를 준비하여 5. 22 서울대 교내 식당, 강의실 등지에 배포하고, 도서관 계단에서 장례선언문 등을 낭독하여 집회를 하고 독재타도, 유신헌법철폐 등 구호를 부르면서 정문까지 진출하여 시위를 함	지법 채명목, 김기천, 조홍은	'오들들사건', 항소심에서 범 정구속기간의 도과로 인한 공소제기절차(2개월간 구속된 채 기소) 및 재판비공개 위법성 다투었으나 배척
							고법 한정진, 정현식, 김종배	
							대법 이일규,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피고인 성명 및 직업> 채광석, 이호웅, 박연호, 김도연, 천희상, 송병춘, 정은교, 박성규, 정성현, 김정환, 정해일, 연성수, 정광서, 이지현(대학생) <형량> ①징자4(김도연, 천희상, 송병춘), 징자3(김정환), 징자2.6(채광석, 이호웅, 박연호, 정해일), 징자2(박성규), 징자1.6(정성현), 징자1(정은교, 연성수, 이지현) ②징자2.6(김도연, 천희상), 징자2(채광석, 이호웅, 송병춘, 박성규, 김정환), 징자1.6(정해일), 징자1.6집3(정광서), 징자1집2(정은교, 연성수, 이지현)								
46	75. 5.	[부산지법 진주지원	긴조 9호	000	징자1→	야당활동하고 민주회복국민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으	지법 김두석, 이국주,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 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 고	
	1975. 12. 27. 75고합76 [대구고법 1976. 5. 4. 76노154]		(여관업)	징자1집2	로, 대화중 "민중회복운동에 사재 50만원을 들였으나 서장, 군수, 증정조정관이 민주회복국민회의 해체조건으로 돈1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지금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요인들이 부정축재한 재산을 헌납중용하고 있다"고 말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정극수		
47	75. 4. [광주지법 1975. 12. 29. 75고합192]	긴조 9호	000 (상업)	징자2집3	한국사진기자단 보도사진연감부 전남분실장으로, 천주교 사제, 신자들의 집회사진(제목:민주인권회복을 위한 기구), 한국신학대생들의 데모사진, 신민당 개헌추진본부현판식 장면 등 헌법 부정, 반대, 비방 등의 내용의 사진이 인쇄되어 긴조에 위반된 내용의 표현물을 판매, 소지함	고법 지법	고정권, 김철기, 김현무 심의섭, 김은집, 오세빈	
48	75. 6. [서울민형사지법 수원지원 1975. 12. 29. 75고합103] [서울고법 1978. 12. 14. 76노990]	긴조 9호, 반공법	000 (노동)	징자1집3→징8월자1집2→징6월자1집1 (형정청구)	대화중, "000이 여배우와 XX을 한다"고 말하고(사실왜곡 전파), "이복은 따발총같이 나가는 대포가 있어 엠원으로는 못당한다"등의 말을 함(북한찬양)	지법 고법	조용완, 강현중, 김중권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긴조 해제로 형경정
49	75. 2. [서울형사지법 1975. 12. 29. 75고합743] [서울고법 1977. 4. 8. 76노284]	긴조 9호, 공문서 위조동행사, 공인위조	000(요식업), 000 외 2인(회사원)	징자6월집1 (000), 징자10월집2 (000 외 2인)	해외이주를 위해 신원진술서란에 허위로 기재하고, 타인의 인장으로 위조된 소양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아 이를 행사함.	지법	심훈중, 조용무, 양승태	긴조 9호 4항 위반
50	75. 8. 10. [대구지법 1975. 12. 30. 75고합 283]	긴조 9호	000 (노동)	징자3집5	식당에서 "10월 유신 X같다, X같은 유신헌법때문에 죽을 지경이다. 지엠코리아 박과장도 유신헌법을 욕하다 정보부에 끌려갔다"고 말함(사실 왜곡 전파)	지법	조수봉, 이기현, 배종수	
51	75. 7. 19. [대구지법 경주지원 1975. 12. 30. 75고합63] [대구고법 1976. 4. 1. 76노130]	긴조 9호	000 (어업)	징자1집2	울릉도에서 오징어잡이로 일하는 자로 동지역 하숙집에서 주변인들에게 "헌정권은 독재다, 현공화당 정치체제의 고위층은 모두 부정축재자들이다" 등의 말을 함	지법 고법	김완석, 황규정, 정성욱 고정권, 김철기, 김현무	
52	75. 4. [대전지법 1975. 12	긴조 9호	000	징자1	대전교도소 복역중 재소자들과 대화하면서, "정부에서 착	지법	안우만, 김권택,	국보법 위반으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30. 75고합136 [서울고법 1977. 2. 16. 76노382] [대법 1977. 7. 26. 77도 859]		(무직)		취해 국민들은 하루벌어 먹고 살기도 힘들다, 물가가 오르고 국민생활이 곤란한데 박대통령이 그만두고 새 영도자가 나와야 살기가 나올 것이다" 등의 말을 함(사실왜곡 전파)	유재선 고법 조인, 고중석, 이철환 대법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로 10년 선고 (71. 12.)받고 복역중
53	75. 7. [대구지법 1975. 12. 30. 75고합266] [대구고법 1976. 5. 13. 76노110]	긴조 9호	000 (무직)	징자5→징자2	일정한 직업 없는 자로 동거녀 000과 TV시청 중, "현재 박정희와 김종필이 사회부조리를 제거한다고 하지만 자신들이 부조리한테 부하직원들에게 백날 부르짖어본들 말짱이 설리있는가, 다 똑같다"고 말하고(사실왜곡), "전쟁이 나면 복괴는 해상을 통하여 부산으로 침투하고 땅굴을 통하여 대구로 쳐 들어와 인민군 정규군과 공군이 서울의 큰 건물을 파괴할 것이다"라고 말함(복괴의 남침양상에 관한 유언비어를 날조유포)	지법 조수봉, 이기현, 배중수 고법 고정권, 김철기, 김현무	
54	75. 10. [서울형사지법 1975. 12. 30. 75고합889] [서울고법 1976. 4. 27. 76노 235]	긴조 9호	000 (무직)	징자2	동대문경찰서 경범죄의자 보호실에서 피의자들에게 "박정희가 정권을 잡아 독재를 하고 죄없는 사람을 마구 잡아가뒤 못살게 한다, 김일성이나 박정희나 똑같은 놈이다"고 소리침	지법 허정훈, 이공현, 김의열 고법 한정진, 정현식, 김종배	
55	74. 9. 75. 5. [서울형사지법 1975. 12. 31. 75고합606] [서울고법 1976. 5. 3. 76노 220, 305] [대법 1976. 8. 24. 76도 1695]	긴조 9호, 국보법, 국가모독, 반공법	이부영, 성유보(전 동아일보 기자), 정정봉 (학원장사)	징자8(이부영), 징자4(성유보, 정정봉)→징자26(이부영), 징자1.6 (정정봉), 징자1(성유보)	사회주의체제 건설위해 정부전복할 목적으로 '청우회' 구성하기로 공모하고(반국가단체구성), 이기정 신부방에서 서울대 김상진 열사조사위원회 명의의 '반독재투쟁선언문' 제하 유인물을 입수소지하여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소속원에게 배포하고, 대화중, 모택동활동과 사회주의 혁명의 필요성을 주장함(국의공산계열활동찬양, 북한찬양하여 이적행위함)	지법 심훈중, 조용무, 양승태 고법 전병연, 최휴섭, 김중화 대법 주재황,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p><기타> 항소심에서 이부영은 청우회는 친목단체에 불과하다며 단체구성혐의를 부인하자, 구치소에서 기관원이 협박하였다고 주장, 사법경찰관 조사과정시 고문으로 자백하였다고 주장했으나 배척</p>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56	75. 7.	[대구지법 1976. 1. 7. 75고합277] [대구고법 1976. 5. 21. 76노158] [대법 1976. 8. 24. 76도1814]	긴조 9호, 반공법	000 (무직)	징자4	폭처법위반으로 복역중 감방에서, "북한땅굴을 발견한 탐지기는 일본에서 만든 기계이고 북한이 총, 무기를 만들고 있는데 썩어빠진 우리나라는 도둑질만하고 총도 하나 못 만든다, 북한은 돈안들어도 철저하게 의무교육을 시킨다"고 말하고(북괴찬양), "000 그 독한 늪이 특사를 시켜줄 줄 아는가"라고 말함(사실왜곡)	지법	조수봉, 이기현, 배종수
							고법	고정권, 김철기, 김현무
							대법	주재황,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57	75. 6. 25.	[춘천지법 1976. 1. 9. 75고합75]	긴조 9호	000 (농업)	징자1집2	술을 마시다 일행이 군대는 어디서 복무했느냐,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고 묻자, "나는 자진해서 인민군에 입대한 것이 아님에도 미군에서 강제로 끌고가 반공포로로 석방되었는데, 석방 당시 나라에서 군경대우를 해주더니 지금은 전과 같은 대우가 없고 감시도 심하고 반공포로 중에는 생활고로 자살한 사람도 있고 월북한 사람도 있다"고 말함(유언비어 날조 유포)	지법	최공웅, 윤정보, 정태세
58	75. 8.	[춘천지법 1976. 1. 9. 75고합65] [서울고법 1976. 4. 27. 76노306]	긴조 9호, 반공법, 사기	000 (농업)	징자2	주점에서 술마시던 중, "한국은 조금만 있으면 난리가 나니 있을 곳이 못된다, 김일성이 머리가 비상해 힘들다, 일본에 가면 북한에도 왕래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 등의 말을 함	지법	최공웅, 윤정보, 정태세
59	75. 8. 26.	[전주지법 1976. 1. 15. 75고합146] [광주고법 1976. 5. 21. 76노151판결] [대법 1976. 7. 27. 76도1768]	긴조 9호	000 (상업)	징자2	전직 국민학교 교사로서 인혁당 사건 공개재판, 정부의 부정부패만연, 관권주의 등의 내용을 담은 '복지불가능성에 관한 답변장 요구서'를 교육청에 우송해 배포함(현 정부 위정자에 대한 허위사실 날조유포)	지법	김용은, 조건호, 최형기
60	75. 10.	[전주지법 정읍지원 1976. 1. 16. 75고합71] [광주고법 1976.	긴조 9호, 반공법	000 (농업)	징자3집5	마을 반공좌담회 개최장소에서 "박정희도 과거 공산당이었다"고 말하고 같은 부락 000 집 부근 노상에서 "인공이 들어오면 너의 식구들을 다 죽이겠다"고 말함(북괴의 한	지법	이병호, 조중한, 최종태
						고법	김재주, 박종택,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 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 고	
	5. 18. 76노126]				반도 적화통일 야욕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함)	김용열		
61	75. 8.	[청주지법 충주지원 1976. 1. 28. 75고합 60] [서울고법 1976. 5. 27. 76노377] [대법 1976. 8. 24. 76도1939]	긴조 9호, 반공법	000 (농업)	징자7 →징자1	대화중, "김신조가 내려와 작전을 나갈때 따라나서는 소대원들이 없었다, 6.25때 군인이 이북 쳐올라갈때 사람을 많이 죽이고 많은 피해를 입혔다"고 말하고(북한찬양), "유신헌법은 박정희 장기집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함(사실왜곡전파)	지법 박규석, 신정치, 이치호 고법 전병연, 최휴섭, 김종화 대법 양병호, 홍순엽, 김윤행, 이일규	
62	75. 7. 5.	[전주지법 정읍지원 1976. 1. 29. 75고합 60] [광주고법 1976. 5. 28. 76노113] [대법 1976. 7. 27. 76도1980]	긴조 9호, 반공법	000 (농업)	징자3집5 →무죄	마을사람들과 대화 중, "공산주의 정치도 사람이 하나까 무조건 죽이는 건 아니라"고 하고(북한 찬양고무), 박대통령이 무력으로 집권했다는 등의 발언(유언비어 날조유포)한 점에 대해 피고인 일관해서 부인하고, 마을 사람들의 법정 증언이 일관되지 못한 점을 이유로 항소, 상고심에서 무죄선고	지법 이병호, 조중한, 최중태 고법 노병인, 양영태, 김선석 대법 김영세, 한환진, 안병수, 라길조, 김영세	
63	75. 6.	[서울형사지법 1976. 2. 2. 75고합 857]	긴조 9호	000 (대학생)	징자2집3	동국대생으로, 대화중 "현재체가 가 봐야 얼마까지 가겠느냐, 떠도는 말에는 000가 간담인지 간경화로 얼마남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 국제정세로 봐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 정부에서 위기의식조장하고 있으나, 정권연장수단으로 국민무마하기 위한 것이다, 땅굴만하더라도 그렇다"고 말함(사실왜곡전파)	지법 심훈중, 조용무, 양승태	
64	75. 10.	[서울형사지법 1976. 2. 2. 75고합 890] [서울고법 1979. 7. 16. 76노 677]	긴조 9호	000 (학원강사)	징자3집5	부기학원 강사로서, 수업중 "국회의원 김옥선이 유신체제 비판발언한 것이 신문에 보도되지 않는 것은 언론의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국민들을 속이고 대통령을 더 해먹으려고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것을 만들었다, 민방위, 향토예비군, 학도호국단 조직 등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시켜서 한 것이다"라고 말함(사실왜곡전파)	지법 심훈중, 조용무, 양승태 고법 박영서, 유근완, 박학송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65	75. 11.	[서울민형사지법 인천지원 1976. 2. 13. 75고합173] [서울고법 1976. 7. 6. 76노620] [대법 1076. 10. 12. 76도2803]	긴조 9호	000 (대학생)	징자3→ 징자3집5	인하대생으로, 술먹고 싸움이 나 파출소로 연행되자 "박정희 정권은 10년 못가 쓰러진다, 앞으로는 호남인민이 정권을 잡을 것이다, 호남을 팔세한다" 등의 발언함(사실 왜곡전파)	지법 윤영철, 김중곤, 강완구	
						고법 한정진, 정현식, 김종배		
						대법 안병수, 김영세, 한환진, 라길조		
66	75. 6.	[서울형사지법 1976. 2. 16. 75고합946] [서울고법 1976. 7. 29. 76노662]	긴조 9호	000 (무직)	징자1.6 →징자1	잡당중, "000이 대통령 명령받고 000 전 고대총장을 거국 내각 총리로 교섭타가 거절당했는데 000가 사후에 알고 어떤 기관원을 시켜 술을 먹여 사망케 했다, 서울대 전 총장 000은 미움을 받아 모기관에서 주는 드링크를 마시고 병신이 되었다"는 등의 발언을 함(유언비어 날조유פו)	지법 심훈종, 조용무, 양승태	
						고법 한정진, 정현식, 김종배		
67	75. 8.	[춘천지법 강릉지원 1976. 2. 17. 75고합65] [서울고법 1977. 7. 1. 76노589]	긴조 9호	000 (노동)	징자1집2	신민당 국회의원 김인기 귀향보고에 참석했다 음주하여 귀가하던 중, "박정희는 XXX다, 쇠고기 반찬만 해쳐먹고 농민은 죽든말든 세금만 비싸게 올려놓고 못살겠다, 소값은 떨어지게 하고 비료값은 올려 받는다" 등의 발언을 함	지법 김종수, 강윤희, 민세홍	
						고법 김상원, 홍기배, 김규복		
68	75. 11.	[부산지법 1976. 2. 19. 75고합1016] [대구고법 1977. 3. 3. 76노323]	긴조 9호	000 (한국감정원 감정역)	징자2집3→ 징자1집2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가면서, "박정희는 도둑놈이다, 김종필도 도둑놈이다, 000가 정치를 하면서 지금까지 어느 지역에 몇 억원을 가지고 있다, 이대로 있으면 안된다,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는 발언을 함	지법 김석수, 임원규, 김주성	항소심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인정하여 형감경
						고법 최재호, 박준용, 송진훈		
69	75. 9. 10.	[전주지법 군산지원 1976. 2. 20. 75고합74] [광주고법 1976. 6. 16. 76노180]	긴조 9호	000 (농업)	징자3→ 징자3집5	14, 000평의 논소유자로 75.수도작벼멸구방제에 대한 정부 지시에 따라 벼멸구 방제작업을 하던 중 만취상태에서 "논에 나락이 다 죽어도 박정희나 농림부장관이 한개 무엇이나, 박정희 XXX 잘한게 무엇이나, 박정권은 무너져야 한다"고 말함(사실 왜곡전파)	지법 유지원, 김대현, 최훈장	
						고법 노병인, 양영태, 김선석		
70	75. 10.	[대구지법 1976. 2.	긴조 9호	000	징10월자1	통행금지시간에 거리에서 고성방가한다는 이유로 왜관파	지법 조수봉, 이기현,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25. 75고합339 [대구고법 1976. 6. 24. 76노327]	반공법	(노동)		출소에 연행되어 있던 중, 근무중인 경찰관들에게 "대한민국에서는 살기 싫다, 땅덩어리는 토끼새끼만한데, 대가리는 이북에 있고 꼬리만 이남에 있다, 박정희 00 조그만한 00, 세금만 거둬먹고 이놈의 00 죽인다, 국민을 속여 대통령을 해먹으면서 남북통일도 못하고 지랄한다, 김일성이 정치도 잘한다"고 발언	배종수 고법: 고정권, 김철기, 김현무	
71	75. 9. [전주지법 1976. 2. 26. 75고합163] [광주고법 1976. 6. 15. 76노229] [대법1976. 10. 12. 76도2067]	긴조 9호, 반공법	000 (어업)	징자2	1975. 3-10.경 본인의 집에서 북한방송을 청취하고 이에 동조하는 문서를 제작하게 된 바, 동년 9. 발신인을 허위 주소와 가명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농민들은 노예와 다름없다. 현정부는 반공정책이 아니라 중공정책을 하고 있다. 13년간의 장기집권은 썩은 정치이다'라는 요지의 내용으로 수신인을 청와대 박대통령각하라고 기재(정부시책과 국내사정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미남으로 청와대에 송달 배포하고, 동년 10. 위와 비슷한 내용을 작성하여 수신인 전주교구 김주교각하에게 발송(유언비어 날조)	지법: 김용은, 조건오, 최형기 고법: 김재주, 박종택, 김용열 대법: 이영섭,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	
72	75. 9. [부산지법 1976. 2. 26. 75고합895] [대구고법 1976. 6. 17. 76노344]	긴조 9호, 반공법	000 (노동)	징자1	술을 먹고 대화중, "이북에는 쌀 한되 35원하고 술한되 12, 000원 하는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쌀한되 1, 000원까지 안할 줄 누가 알겠는가, 이것만 보더라도 이북이 정치를 잘한다, 박정희가 살아있는 한 정권은 바뀌지 않을 것이며 독재가 계속 될 것이다, 박정희가 죽어야 세상이 바뀔 것이다"라고 말함	지법: 김석수, 임완규, 김주성 고법: 고정권, 김철기, 김현무	
73	75. 8. [서울형사지법 1976. 2. 27. 75고합808] 서울고법 1976. 6. 10. 76노695]	긴조 9호, 반공법	김철, 이영실, 김정길, 강광석(통일사회당 교문, 대변인 등	징자3(김철), 징자1.6집2(김정길, 강광석), 징자1.6(이영실)→징자2(김	통일사회당 간부로서, 반공법위반으로 기소, 공판계류중 이던 통일사회당 중앙상임위원회 의장 000의 공소장내용(8.15때 000이가 그년만 죽이지 말고 두년놈을 다 죽여야 될 것인데, 박정희가 죽었다면 춤을 출 것이다, 000 개새끼, 김일성이보다 못한 놈이다, 북한은 남한보다 살기 좋	지법: 허정훈, 이공현, 김의열 고법: 전병연, 최휴섭, 김종화	반공법 위반은 무죄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간부	철), 징자1.6집3(김정길, 강광석), 징자1.6(이영실)	다 등을 3회 공판기일 직전 각 신문사, 방송에 발표하여 배포함			
74	75. 11.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1976. 2. 28. 75고합444, 76고합16] [서울고법 1976. 9. 2. 76노591, 1593, 1613]	김조9호, 집시법, 병역법	박인배, 원혜영, 유진권, 조창환, 신현대, 노주현, 최인창, 김지환, 변용의, 김봉우 (대학생)	징자1.6, 징자1집3, 형면제 (김지환), 무죄(변용의) →징자1, 선고유예 (김지환)	상호공모하여 반정부시위를 하기로 하고, '민주, 민족통일의 깃발을 높이 들자'제하 경희대 비상총학생회 유인물을 기초로 선언문 '경희학우여'제하의 유인물을 작성하고, 11.17.시위를 하기로 하였으나 예비에 그침	지법 이영구, 장석화, 김목민 고법 전병연, 최휴섭, 김종화	
75	75. 5.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1976. 2. 28. 75고합371, 76고합9] [서울고법 1976. 8. 19. 76노649]	김조 9호	유상덕, 유영표, 장만철, 황선진(대학생)	징자1.6(유상덕, 유영표), 징자1집3 (장만철, 황선진)	서울대생들로서, 5.22 도서관 앞에서 고 김상진의 장례선언문, 조사, 조시, 시국선언문을 낭독하여 집회를 하고 독재타도, 유신헌법철폐 등 구호를 외치며 정문까지 시위함	지법 이영구, 장석화, 김목민 고법 전병연, 최휴섭, 김종화	'오돌들사건'
76	75. 10.	[대구지법 경주지원 1976. 3. 2. 75고합103] [대구고법 1976. 9. 2. 76노379] [대법 1976. 11. 23. 76도3110]	김조 9호, 반공법	000 (무직)	무죄	김영삼 총재 입건철회, 박정희의 장기집권, 정권의 부정 부패 등의 내용의 서신을 작성해 청와대로 부치려다 우편검열에 의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으나, 15세 때부터 외부세계와 단절하고 방안에만 누워 지내는 등 정신분열에 의한 불면증, 대인공포증, 피해망상증 상태에 있으므로 사물변별능력 또는 자신행위의 통제능력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무죄 선고	지법 김완석, 황규정, 정성욱 고법 고정권, 김철기, 김현무 대법 한환진, 김영세, 안병수, 김용철	
77	75. 11.	[대전지법 홍성지원 1976. 3. 9. 75고합115]	김조 9호	000 (농업)	징자3	동네를 걸어가면서 인근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박정희 정치는 독재정치다, 박정희는 나쁜 놈이다, 죽일 놈	지법 김억규, 김종식, 박찬주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서울고법 1976. 6. 22 76노640] [대법 1976. 9. 14 76도2272]				이다, 저 혼자 해 먹으려고 한다'고 큰 소리로 말함(유언비어 날조유포)	고법 대법	정현식, 김중배 김영세, 이일규
78	75. 10. 188] [서울고법 1977. 11. 10. 76노686]	긴조 9호	000 (고교 교사)	징자2집4	수업중, "11월달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벽보에 휴가장병은 즉시 원대복귀하라는 내용이 있더라"고 말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고법	김중곤, 강원구 이익우, 정귀호
79	75.6. [서울형사지법 1976. 3. 22 76고합116]	긴조 9호	000 (부동산매매업)	징자2집3	공화당 성동지구당 홍보분과 부위원장으로 공화당 입당 권유하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총통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야당도 없어지고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제도도 없어진다, 새마을 금고에 돈을 넣으면 3년이내에는 찾지 못하고 결국 한 사람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다"라고 발언함	지법	이상경, 라정옥
80	75. 10. [서울형사지법 1976. 3. 22 76고합92] [서울고법 1976. 8. 19. 76노699]	긴조 9호	이형량, 정경입 (대학생)	징1.6자2→ 징자1집2	이대생들로서, 김지하의 '양심선언문'을 읽고 이 내용을 담은 유인물 200부를 제작하여 10.11.사이에 수회에 걸쳐 이대, 서울대 도서관, 화장실 등지에 배포함	지법 고법	이상경, 라정옥 최휴섭, 김종화
81	75. 11. 25. 7] [광주고법 1976.7. 14. 76노241]	긴조 9호	000 (상업)	징자1집2	전북도장군 무장시장내 모 음식점에서 곡가관계로 사람들과 이야기하던 중, "정부에서 농민의 나라이 다 떨어지면 곡가금을 올려 농촌사람은 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다, 몇 년 안가 농촌에는 독재정치가 될 것ियो"라고 말함(사실왜곡 전파)	지법 고법	조중한, 최종태 양영태, 김선석
82	75. 6. [전주지법 정읍지원 1976. 3. 26. 75고합79] [광주고법 1976. 7. 14. 76노241]	긴조 9호, 반공법	000 (노동)	징자1	부락앞 노상에서 예비군 훈련에 대해 "늪은 늪들 데려다가 무엇하게, 텔레비에 나오는 걸 보니 짚으로 덮어놓았는데 땅굴인지 알 수 없더라, 그것이 땅굴이나, 이북에서	지법 고법	조중한, 최종태 양영태,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7. 21. 76노219] [대법 1976. 9. 28. 76도2610]				조사하자고 하는데 왜 이남에서 조사를 못해"라고 말함 (사실왜곡전파, 북괴의 한반도 적화통일야욕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함)	대법 김선석		
83	75. 10.	긴조 9호	김윤식(무직, 전직 민주당 국회의원), 계훈제(씨알의 소리사 편집위원)	징자3, 징자2 → 징자1.6, 징자1	김윤식은 유신헌법철폐, 긴급조치반대 위해 '한국의 민주회복을 위한 근본문제' 제하 유인물을 제작하여 계훈제에게 전달하고 기독교회관 목요기도회에 참석해 유신헌법 철폐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입수소지함.	지법 고법 대법	김윤경, 이상경, 라정옥 전병연, 최후섭, 김종화 김영세, 한환진, 안병수, 김용철	
84	75. 7.-11.	긴조9호, 외국환관리법, 횡령	000(공무원), 000(종업원), 000(양화제조업)	징자2집3(000), 징자1집2(000), 징자2(000)	보건소계장, 미8군종업원들로 미화불법반출에 공모하여 4, 600불을 넣을 구두뒀감을 제작해주어 재산도피목적으로 국내재산을 국외로 이동함	지법 고법	이병후, 윤규한, 노원옥 한정진, 정현식, 김종배	긴조 9호 제3항 위반
85	75. 8.	긴조 9호, 반공법	000 (무직)	징자3	취기에 이복 김일성은 "우리의 김일성 선생이다"라고 하고, "북한외교가 우월하여 김동조외무는 북한외교에 졌다, 야당당수를 가둬 넣는 것은 독재자다, 긴급조치가 뭐 말라 비틀어진 것이냐" 등의 발언함(긴조 비방, 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고법 대법	전상석, 제차룡, 강기원 전병연, 정현식, 김종화 강안희, 홍순엽, 양병호, 이일규	
86	75. 5.	긴조 9호	000 (전 미8군사령부 토목기사)	징자2	주한 미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박정희는 공산주의자이니 이 나라에서 제거해야한다"고 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고법 대법	허정훈, 이공현, 김의열 전병연, 최후섭, 김종화 민문기,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1974. 반공법 위반으로 징8월자1집3 선고 받고 상고심계류중, 고문, 비공개재판 주장 하였으나 배척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87	75. 10. 30.	[대구지법 1976. 4. 7. 75고합389] [대구고법 1976. 7. 29. 76노511] [대법1976. 10. 26. 76도2770]	긴조 9호, 반공법	00 (침술 및 한약행상)	징자4→징자2	침술 및 생약 등 민간요법을 시행하면서 전국각지를 전전하는 자로, 환자들에게 치료시술하면서 "남북회담에서 상호비방을 하지 않기로 하고 이남에서 먼저 이북을 비방하여 남북회담이 중단되었다"고 말한 것을 비롯, "적십자회담도 이북에서는 계속하자고 하는데 이남에서 응하지 않는다. 또한 이남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북아이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것은 거짓이다. 김일성은 편문점에 시설을 갖추어 놓고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한 서신왕래도 제안했으나 이남에서 거절한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함(북한 찬양, 현정부가 남북한회담의 합의사항을 먼저 위반하고 오히려 회담의 진전을 방해하는 양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	지법 조수봉, 이기현, 배중수 고법 고정권, 김철기, 김현무 대법 주재황, 한환진, 임항준, 라길조	
88	75. 9.	[서울형사지법 1976. 4. 9. 75고합 921] [서울고법 1976. 8. 19. 76노 1020]	긴조 9호	조성두, 김태일, 김영인, 이정숙, 송영인(대학생)	아래	서울대, 고대, 이대생들로 각 대학 서클 '아카데미' 활동을 하면서, 김지하의 '양심선언문'을 입수하여 유인물로 제작하여 강의실 등지에 배포함	지법 허정훈, 이공현, 김의열 고법 전병연, 정현식, 김종화	
<형량> 징자2(조성두, 김태일, 송영인), 단8월장2자2(김영인, 이정숙)→징자1(김태일, 송영인), 징8월자1집2(김영인, 이정숙)								
89	75. 12	[서울형사지법 1976. 4. 19. 76고합 228] [서울고법 1976. 9. 6. 76노 1076]	긴조 9호, 외국환관리법, 도주	000 (상업)	징자1.6→징자1.6집3	미국을 왕래하며 사업을 하면서 미화 만불을 미국까지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은닉소지하고 출국절차 밟던 중 발각됨	지법 심훈중, 조용무, 양승태 고법 전병연, 최휴섭, 김종화	긴조 9호 3항 위반
90	75. 9.-10.	[서울형사지법 1976. 4. 21. 76고합 20] [서울고법 1976. 8. 26. 76노1055] [대법 1977. 5. 24.]	긴조 9호	김덕룡(신민당 총재비서), 전용주(당원), 송취림(상업)	아래	김덕룡은 김영삼 총재 집으로 우송되어온 한국민주회복 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의 기관지 '민족시보'에 게재된 김지하 오행시의 사본을 소지하다 배포하고, 기타 피고인들은 이를 받아 소지함.	지법 전상석, 제차룡, 강기원 고법 한정진, 정현식, 김종배 대법 이영섭, 김윤희,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76도3051]					김용철, 유태홍		
<피고인 성명 및 직업> 징자1(전용주), 징10월자1(김덕룡), 징6월자1(송휘림)→징10월자1집2(김덕룡), 징자1집2(전용주)								
91	75. 12.	[대구지법 1976. 4. 28. 75고합414] [대구고법 1976. 12. 29. 76노585]	긴조 9호	000 (공무원)	징자3집5	술을 마시며 TV를 보다, 박대통령의 유사광경이 방영되자 "박정희 XXX야, 이 XXX 그만해, 박정희 XXX 독재는 끝 꺼진다, 저 XX는 김일성과 같다, 새마을 사업은 누가 했는데 박정희 제가 잘난척하느냐, 전부 꼭두각시 장난이다"고 발언	지법 배중수 고법 고정권, 김철기, 김현무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형감경
92	75. 9. 29.	[서울지법 성동지원 1976. 4. 30. 75고합 258] [서울고법 1979. 10. 31. 76노1151]	긴조 9호	000 (중국음식점 종업원)	징2자1집3	대통령사임, 유신헌법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서신을 대통령 수석보좌관 앞으로 우송(헌법부정·비방·폐지주장)	지법 변정수, 김경철, 김 훈 고법 박천식, 정상학, 이창구	
93	75. 11.	[춘천지법 1976. 5. 14. 75고합99, 76고합24] [서울고법 1976. 10. 14. 76노 1124] [대법 1977. 1. 11. 76도3958]	긴조 9호, 반공법	000 (광업)	징자5 →징자2	이복출신으로 석회광산경영하는 사람으로, 술집에서 대화중, "전체학생과 우리회사에서는 유신헌법 철폐를 꼭 해야 된다고 부르짖고 있다, 박정희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자유를 망친 독재자다, 김옥선을 왜 국회에서 몰아냈는가, 나도 이복에서 넘어왔지만 이복보다 살기가 나쁘다, 이복에서 쳐내려오면 세금도 안내고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함	지법 최공용, 윤정보, 정태세 고법 전병연, 최휴섭, 김종화 대법 김용철, 이영섭, 민문기, 김윤행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인정
94	75. 10.	[서울형사지법 1976. 5. 14. 75고합 63] [서울고법 1976. 11. 4. 76노1235]	긴조 9호	장영달 (무직)	징자1.6 →징자1	국민대생 유길상 등을 만나 "10월중으로 국민대에서 학생대모를 하기로 하고 김지하 양심선언문을 유인물로 살포토록 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등으로 교사하였으나 정보 사전누설로 미수에 그침	지법 허정훈, 이공현, 김의열 고법 전병연, 최휴섭, 김종화	민청학련사건으로 징7선고 복역중 75. 2. 15. 형집행정지출소
95	75. 10. 18.	[서울형사지법 1976. 5. 14. 75고합 1047] [서울고법 1976. 9. 14. 76노	긴조 9호, 국보법, 반공법, 간첩,	000 외 1인 (대학생), 000 외 1인 (전도사)	아래	한신대학생 또는 졸업생으로서, 000은 일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 교양을 받고 입북하여 노동당에 가입하고, 국내기밀을 수집하여 보고하여 간첩으로 활동하면서 기타 피고인들을 포섭해 미군기지 훈련사항, 구로공업단지	지법 전상석, 제차룡, 강기원 고법 한정진, 정현식, 김종배	한신대 간첩단 사건으로 서울대, 부산대, 카톨릭의대 등의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1395 [대법 1976. 12. 28. 76도3283]	간첩방조			노동조건 등을 보고	대법 강안희, 이영섭, 양병호, 이일규	간첩단 사건 연이어 발생(1980. 1. 5. 형경정으로 000, 000 징자3.6)
<피고인 성명 및 직업> 사형(000), 무기(000), 징자10(000), 징자5(000)→징자10(000), 징자5(000), 징자2(000)→징자3.6(000, 000)							
96	75. 3.	[서울형사지법 1976. 5. 28. 76고합 355] [서울고법 1976. 10. 29. 76노 1399]	긴조 9호, 반공법	000 (모델)	징자1.6→징자1.6집3 대화중, "밤 12시 넘어 이복방송을 가끔 듣는데 거기에서 000과 000와의 관계를 연속극으로 방송하더라"고 발설함 (유언비어 날조유포, 복괴 선전활동에 동조)	지법 허정훈, 이공현, 김의열 고법 김상원, 정태웅, 홍기배	
97	75. 8.	[서울형사지법 1976. 5. 28. 76고합 171] [서울고법 1976. 9. 30. 76노 1398]	긴조 9호, 공문서위조 동행사	남기원 (무직)	징자1→징자1집2 육군 3사관학교 자퇴자로서, 유신헌법 비판하는 '고 김상진군의 유서(양심선언)'를 소지, 내용중 일부를 복사하여 방 책상벽에 붙여둠(헌법 반대비방하는 표현물제작소지)	지법 허정훈, 이공현, 김의열 고법 전병연, 최휴섭, 김종화	
98	75. 6.	[서울지법 수원지원 1976. 5. 31. 75고합 67] [서울고법 1977. 7. 23. 76노1604]	긴조 9호, 폭처법	000 (농업)	징10월집2, 무죄(긴조)→벌금5만원 싸움과정에서 "이 개같은 인간들이 세상이 쑥대밭 될 날 이 멀지 않았다"고 큰소리를 참(유언비어를 날조유포했다는 점은 무죄)	지법 송기방, 김중권, 진봉진 고법 조인, 고중석, 이철환	
99	75. 10. 22	[서울형사지법 1976. 6. 4. 76고합 240] [서울고법 1976. 10. 8. 76노 1397]	긴조 9호	권오성, 김 윤 (농민학교 교사)	징자3, 징자1.6→징자2, 징자1 서강대 가을 축제행사에서 유신헌법 철폐, 긴급조치를 비판하고 학생들의 길기를 촉구하는 '제3호 자유서강'제하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동교 내 건물 등에 192부를 배포함	지법 허정훈, 이공현, 김의열 고법 김상원, 정태웅, 홍기배	서강대 재학중 유신반대시위로 긴조1호 위반, 징역 5년 선고(1975. 7. 8.) 받고 형집행정지출소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100	75. 12.	[광주지법 장흥지원 1976. 6. 15. 76고합 22] [광주고법 1976. 12. 1. 76노357]	긴조 9호, 폭처법	000 (상업)	정1.6자2→정1.6자2집3	지법 최규봉, 박상선, 오세빈 고법 노병인, 양영태, 김선석	
101	75. 7. -76. 1.	[대구지법 1976. 6. 16. 76고합67] [대구고법 1976. 11. 18. 76노795]	긴조 9호, 반공법	000 (운전자)	정1.6자2→정1.6자2집4→정자1집3(형경정)	지법 조수봉, 이기현, 배종수 고법 고정권, 김철기, 김현무	긴조 해제로 형경정(1980. 5. 27.)
102	75. 12.	[서울형사지법 1976. 7. 5. 76고합 454] [서울고법 1976. 10. 26. 76노 1447]	긴조 9호	000 (연대 경영대학원생)	정자1	지법 김윤경, 이상원, 이상경 고법 한정진, 정현식, 김종배	긴조 9호 4항 위반
103	75. 10.	[서울형사지법 1976. 7. 6. 76고합 334] [서울고법 1976. 10. 19. 76노 1659]	긴조 9호	정선자 (대학생)	정자26 →정자1	지법 허정훈, 이공현, 김의열 고법 한정진, 정현식, 김종배	
104	75. 8.-9.	[서울형사지법 1976. 7. 7. 76고합 216] [서울고법 1976. 12. 10. 76노 1815] [대법 1977.	긴조 9호	000 (회사 대표이사)	정자5 →정자3	지법 전상석, 채차룡, 황우여 고법 김상원, 정태웅, 홍기배 대법 김영세, 한환진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3. 8. 77도51]					안병수, 김용철						
105	75. 11.	[서울형사지법 1976. 7. 7. 76고합 156] [서울고법 1976. 11. 1. 76노 1767] [대법 1977. 3. 15. 77도241]	긴조 9호, 국보법, 반공법, 간첩, 간첩방조, 범인은닉	000 외 13인 (대학생)	아래	000은 재일교포로 서울의대 재학중인자, 나머지도 서울의대 재학, 제적자들로써, 동인은 일본에서 고교선배이며 조선유학생동맹 맹원인 000에게 북한발전상, 김일성의 위대성에 대한 학습, 교양을 받고, 1970. 모국유학생선발시험에 합격한 후 대남간첩으로 포섭되어 남한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기밀을 수집보고하라는 지령을 받고 1972. 서울의대에 입학하여 동료학생인 000, 000 등에게 접근하고 수시로 일본에 국내학원동향등에 대해 보고문을 보내고, 입북하여 평양에서 북한노동당에 입당하고, 공작금 등을 지급받고 서울로 돌아와, 같은 과 000, 000 등에게 접근하고 김대중사건진상규명, 유신헌법 철폐를 위한 동맹휴업을 선동하고, 서울의대 학생씨클린 '사회의학연구회'의 지부설립 논의에 참여하고, 서울대 4학년 000이 주도하는 데모에 참가하고 대정부투쟁지침을 주는 등으로 반국가단체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해 간첩하는 등으로 1974. 12까지 활동하고, 000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사회의학연구회에 회원으로 000과 접촉하여 반국가단체 지령을 받은 자와 수회 회합하여 대모계획 등을 알려줘 간첩하고, 유신헌법철폐를 위한 시위를 함.	지법 고법 대법 고법	진상석, 채차룡, 황우여 한정진, 정현식, 김종배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김상원, 홍기배, 김규복	아래 1. 아래 2.			
						대법	이일규,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대법 1977. 8. 77도54](000 재심청구기각에 대한 즉시항고)기각				
						<p><형량> ①사형(000), 징자15(000), 징자10(000), 징자3집5(000 외 2인), 징자2집4(000 외 1인), 징자1집3(000 외 3인), 징자1(000), 징8월(000) ②징자8(000), 징자5(000), 징자2집4(000), 선고유예(000 외 3인) ③징자3.6(000, 형경정), 징자1.6집3(000, 형경정)</p>						
						<p><비고> 1. 000는 긴조 1호위반으로 징7확정복역중 75. 2. 15. 형집행정지로 석방, 000은 긴조 4호위반으로 징20선고복역중 75. 2. 15. 형집행정지결정으로 가석방. 항소심에서 000은 수사기관의 고문, 협박하에서 진술하였음을 항변하고, 간첩활동 등을 부인하였으나 배척당함. 000의 불고지죄 무죄 2. [서울고법 1977. 8. 12. 77소3](000 재심청구)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였다는 기간 중 일본 북해도지방을 여행하였다는 증인이 있어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 민청학련 사건이후 학생운동탄압과정에서 서울대 의예과에 재학중인 재일동포 유학생 강종현을 간첩으로, 의예과 동료인 서광태, 황혜현 등 사회의학연구회 회원들을</p>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p>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국보법, 긴조 9호 위반으로 구속기소한 사건</p> <p>※ 사회과학연구회는 1970. 9. 서울대 문리대 의예과내 씨클로 71. 9. 서울대 문리대 교련반대 시위주도, 72. 9. 본과의 의예과 지부를 두고 회원을 확대하여 73. 10. 구속 학생석방을 위한 본과생 동맹휴학을 주도하고, 74. 4. 3. 250여명의 학생들과 민청학련 명의의 선언문을 낭독하여 교내시위를 하고, 75. 3. 동대문구 독방교회 주변 빈민촌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하는 등 유신반대와 빈민의료활동 사회과학연구를 목적으로 조직되었음</p> <p>※ 강종현은 각종 저술서가 고문, 협박에 의해 강요되었고 북한 노동당 가입사실, 서광태, 박종열 포섭하여 간첩활동한 사실, 반정부학생대모 지시사실 등을 부인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p> <p>※ 공동피고인 중 서광태가 강종현과 그 모임의 불은성을 학교에 신고함으로써 학생들의 반유신활동이 파악되고 민청학련 사건이후 긴조 및 유신에 반대하는 학생운동 탄압의 일환으로 사건이 확대</p> <p>※ 같은 시기(75. 10.-11.) 부산대, 한신대 등에 '학원침투간첩단'사건이 연이어 발표됨</p>								
106	75. 8.	[서울형사지법 1976. 7. 9. 76고합 437] [서울고법 1976. 11. 4. 76노 1658] [대법 1977. 2. 8. 76도4157]	긴조 9호, 혼인방자간 음, 사기, 반공법	000 (무직)	징7자5→징5자2→징4자1(형경정청구)	대화중, "000가 군복무시 간첩혐의로 구속된 사실 있는데 대통령이 된 후 서류를 소각했다, 000의 개인재산이 330억원이다, 북한에 비해 육해공군이 모두 약하다, 유신체제와 긴급조치는 장기집권위한 수단이다" 등의 발언을 함	지법 허정훈, 이공현, 김의열 고법 전병연, 최휴섭, 김종화 대법 강안희,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107	75. 8.	[서울형사지법성동지원 1976. 7. 20. 76고합407] [서울고법 1976. 12. 31. 76노1743] [대법 1977. 4. 26. 77도338]	긴조 9호	000 (농장경영)	징자2→징자1.6	대화 중 "현 정권은 독재정권이다, 정권이 바뀌어야 한다"는 발언함(사실왜곡전파)	지법 김윤경, 이상원, 이상경 고법 김상원, 정태응, 홍기배 대법 정태원,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108	75. 8.	[춘천지법 1976. 7. 23. 76고합32] [서울고법 1976. 11. 18. 76노1744]	긴조 9호	000 (숙박업)	징자1→징6월자1집1	대화중, "난리가 나면 피난을 가야 하는데 정감록에는 충청도가 피난곳이라고 되어 있으니 미리가서 땅을 사두는 게 좋다"는 등의 발언을 함(허위사실날조유포)	지법 최공용, 윤정보, 정태세 고법 전병연, 최휴섭, 김종화	
109	75. 10.	[서울지법 수원지원	긴조 9호	000	징26자2집4	대화중, "000 장군이 1군사령관 거치지 않고 육군 참모총	지법 송기방, 김중권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1976. 7. 26. 76고합49] [서울고법 1978. 3. 10. 76노1825] [대법 1978. 6. 27. 78도904]		(전도사)		장이 된 것은 월남사령관으로 있을 때 국군을 베트남으로 가장하여 미군부대를 습격, 핵무기를 탈취해 국내로 들여온 공로로 된 것이다, 정부에서는 서울고층아파트를 철거하고 대공포를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다, 지하도를 건설해 남침에 대비하고 있다"는 말을 함(유언비어 날조 유포)	전봉진 고법 박우동, 안종혁, 김규복 대법 이일규,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110	75	긴조 9호, 반공법	000 외 2인 (회사원)	징자3(000), 징자2집3(000), 징자1.6집3(000)→징자2집3(000), 징자1집3(000, 000)→징자1.6집3(000)	서울대 재학중, 한국대학생선교회내 경제복지회 회원으로 활동한 바, 사회주의 이론을 배우려고 하던 서울의대생 000에게 레닌의 제국주의론, 레닌과 러시아혁명을 교재로 교양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000에게 철학교정 1권을 교부(이적표현물 소지반포)	지법 허정훈, 이공현, 김의열 고법 전병연, 최휴섭, 김종화 대법 양병호,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111	75. 4-6.	긴조9호, 반공법	000, 000, 000(군인)	징자10→징자2	계명대 학생모임인 '유포피아'의 선후배들로, 회합하여 '우리는 국가보다 민족이 먼저 통일되어야 한다. 통일문제는 남북한이 극좌우로 대립해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통일을 추구하기 위한 중도역할을 할 '홍정청년회'를 조직하여 유인물을 제작, 복사하여 배포(북괴의 적화통일 선전활동에 동조)	보군 권찬식, 허홍중, 정수조 고군 김영범, 유길수, 이술진, 김건홍, 어인수 대법 유태홍, 이영섭, 김운우, 김용권	
112	75. 10.	긴조 9호, 국보법, 방화음모, 범인은닉, 반공법	000 외 1인 (대학생), 000 (대학강사)	징자3집5(000), 징자2집4(000), 징자1집2(000)→선고유예(000)	서울대 제적생으로, 맑스, 엥겔스 저작(도이취 농민전쟁, 혁명과 반혁명 등)을 탐독보관, 고무하는 내용의 서적을 취득보관하고(국외공산계열 활동 찬양), 서울의대 마등록 학생모임 '사회의학연구소'수양회에 참석해 "반정부학생운동으로 민주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 김지하의 '양심선'	지법 이영규, 김목민, 김인수 고법 전병연, 최휴섭, 김종화	'사회의학연구회' 일원인 000의 국보법 위반을 고지할 의무지을 수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6. 7. 77도644]				언유인물을 복사하여 각 대학에 배포하고, 000은 긴조 9호 위반으로 수배중인 000을 숨겨주고, 000는 양심선언 1부를 소지하다 배포하고, 긴조 9호 위반자 000, 000를 숨겨줌	대법 양병호,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없음 (누군지 특정할 수 없 이 막연하게 인식한 상태), 000의 방화에 비는 무죄	
113	75. 12.	[서울형사지법 1976. 9. 23. 76고합399] [서울고법 1981. 2. 19. 76노2101] [대법 1982. 3. 23. 81도 1450] [서울고법 1982. 9. 10. 82노 1037] [대법 1983. 4. 12. 83도63]	긴조 9호, 국내재산도 피방지법, 업무상횡령, 외국환관리 법, 특가법 등	000 외 1인 (회사 대표이사), 000(전 대표이사), 00상사, 00중공업주식회사	아래	일본에 아연 등을 수출하면서 선적시 수출신용장상 개설량을 초과선적하고 검수서를 조작, 상당량을 선박수송도중 자연감모된 것처럼 감량처리하여 그 차액 대금을 국내 00상사로 송금하지 않고 미국으로 보내 국내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고, 세금을 포탈함	지법 허정훈, 이공현, 김의열 고법 황도연, 김영일, 김중곤 대법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고법 김영진, 김원제, 이근웅 대법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긴조 9호 제3항 위반, 000의 국내재산도 피법(무죄)
<형량> 000(징6자1벌8억5천), 000(징3자1), 000(벌500만), 000상사(벌12억), 00중공업(벌500만)→000(징3벌4억), 000(징1.6집3벌6억)→000(징2집3), 00상사(벌3억)								
114	75. 5. 22.	[서울지법 영등포지 원 1976. 11. 8. 76 고합224] [서울고법 1980. 1. 9. 76노 2329]	긴조 9호	채만수 (무죄)	징자1집3 →면소	서울대 채광석, 유영표, 김근테, 이호은 등과 함께 김상진 추도식을 강행키고 하고 75. 5. 22 교내에서 500여명의 학생과 함께 장례선언문과 조시, 조사를 낭독하고 유신헌법철폐 등 구호외치며 정문밖으로 진출을 기도함(학교장 허락없는 금지된 시위)	지법 이영구, 조홍은, 민형기 고법 박천식, 정상학, 이상구	긴급조치 해제 로 면소(오들 들 사건)
115	75.	[대구지법 1976. 11. 30. 75고합265] [대구고법 1977. 3. 31. 77노19] [대법 1977. 7. 12. 77도1360]	긴조 9호, 국보법, 반공법, 밀항단속법, 마약법	000(상호신용금 고직원), 000(학원강사), 000(양장점)	징자5, 징자3, 무죄(000), 국보법, 반공법, 마약법(무죄) →징자2(000)	일본에 밀항해 체류중 조총련으로부터 원조를 받고 국가 기밀탐지의 지령을 받고 귀국하고, 대화중 "김대중 사건은 중정에서 조작한 사건이며 관련자인 1등서기관은 중정요원이다, 유정희 국회의원은 독재의 들러리다" 등의 발언을 함	지법 조수봉, 배종수, 송창영 고법 최재호, 박준용, 송진훈 대법 강안희,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아래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p><비고> 국보법, 반공법, 국방경비법 등 위반전력. 항소심에서 000은 정신적 위축상태에서 증언하였으며, 000는 구속영장없이 22일간 불법감금된 상태에서 심한 고문으을 받았다고 항변하였으나 배척. 그러나, 간첩행위에 대해서는 무죄</p>								
116	75. 8.	[서울형사지법 1977. 2. 16. 76고합 832] [서울고법 1977. 6. 21. 77노 424] [대법1977. 9. 28. 77도2238]	긴조 9호, 특가법, 알성녀돌수 수, 사기 등	000 (전 국회의원)	징10자5 벌금92, 870만원→징7 자5벌금7, 000만원 →징5추징금2, 100만원(형정 정청구)	유정희 국회의원으로, 일본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일본 다나가 수상이 퇴임했는데 상당한 축재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000도 많은 부정축재를 했다"고 말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전상석, 유지담, 조용무 고법 김상원, 홍기배, 김규복 대법 이일규,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형정 정청구 (1980. 1. 31.)
117	75. 8. 30.	[서울지법 영등포지 원 1977. 4. 29. 76 고합343] [서울고법 1978. 3. 10. 77노 942] [대법 1978. 5. 23. 78도919]	긴조 9호	김영준 (회사원)	징자3집5 →징자1집2	연세대 제적생으로, 민청학련사건시 알게 된 정화영에게 편지로 '고통과 억눌림을 인종하는 우리의 민중들, 갈수록 국민들은 소수집권층의 존립위해 외세에의 담보물로 고삐가 죄어가고 있다'는 편지 발송(사실왜곡 전파)	지법 이원배, 조홍은, 민형기 고법 박우동, 안종혁, 김규복 대법 이일규, 이영섭, 강안희, 정태원	민청학련사건으로 징15자15 선고 구속집행 정지출소(1975. 2. 15.)
118	74. 7-12.	[서울형사지법 1977. 5. 19. 77고합 256] [서울고법1977. 9. 14. 77노1055] [대법 1978. 1. 17. 77도 3408]	긴조 9호	000 외 2인 (공무원)	징26벌250만원(000), 징3벌2850만원(000), 징3벌500만원 집4(000) →징26	방역약품구매업무 및 약품배정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현대약품, 동성제약, 상일화학, 근대방역으로부터 각각 2, 750, 000원, 780, 000원, 1, 300, 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지법 안우만, 김동권, 양삼승 고법 조 언, 고중석, 이철환 대법 정태원,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긴조 9호 제9항 위반
119	75. 5-11.	[서울지법성동지원 1977. 5. 20. 77고합 19] [서울고법1977. 9. 1. 77노924] [대	긴조 9호	000, 000 (예루살렘교 교주)	징자1→ 징자1집2	말세론 주장해오던 자로서, 신도들에게 "금년 8. 중 전쟁이 일어나 공산주의자들이 승리한다"는 등의 발언(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이병후, 박재운, 안성희 고법 오석락, 이익우, 정귀호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법 1977. 11. 12. 77 도2918]				대법 임항준,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	
120	75. 9.	[서울지법 영등포지 원 1977. 7. 8. 77고 합26] [서울고법 1977.10. 12. 77노 1244] [대법 1978. 1. 31. 77도3476]	긴조 9호	신동수 (무직)	징자1.6 1970. 교련반대시위 등으로 서울대학제적자로서, 학원자 유화, 유신헌법폐지, 구석자 석방 등을 주장하기 위해 유 인물을 작성하는 등 시위예비	지법 이원배, 조홍은, 민형기 고법 조 언, 고중석, 이철환 대법 강안희, 민윤기, 이일규, 정태원	
121	75.	[국방부 고등군법회 의 1977. 7. 25. 77 고군형항제2호] [대 법 1977. 12. 13. 77 도2793]	긴조 9호, 특가법, 뇌물수수	000 외 3인 (공무원)	징1.6(000), 징2(000), 징2.6벌450만 원(000), 선고유예(000)	고군 김교덕, 박경순, 이탁규, 김정술, 전기철 대법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유태홍	긴조 9호 9항 위반(특가법위 반특례)
122	75. 11.	[서울지법 성북지원 1977. 9. 16. 77고합 88] [서울고법 1977. 12. 28. 77노1518]	긴조 9호, 사기	000 (회사수위)	징자1.6 →징자1 대화중 "우리나라는 국민소득보다 개인당 빛이 더 많다, 박정희가 정치를 잘못하여 잘사는 놈은 더 잘살고 죽느 니 노동자만 죽는다,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었으며 이러 게 못살지 않는데 병신같은 박정희가 정치를 잘못한다, 박정희는 미국놈의 종이나 다름없다, 주한미군이 철수하 면 이북에서 곧 쳐내려온다" 등의 발언을 함(허위사실날 조유포)	지법 이순우, 송영식, 김정남 고법 조 언, 이철환, 김학세	
123	75. 7.	[전주지법 정읍지원 1978. 1. 10. 77고합 45] [광주고법 1978. 5. 31. 78노48]	긴조 9호	000 (노동)	징자2 술집에서 음주중, "박정희 대통령은 종신 대통령도 아닌 데 주민등록법과 민방위 조직을 만들어 국민을 움짱달짝 못하게 한다, 이것은 종신대통령을 하기 위한 수단이다" 등의 발언을 함	지법 박규석, 최형기, 유정주 고법 차상근, 김용열, 이우선	
124	75. 9.	[서울 형사지법 1978. 3. 15. 75고합 1067] [서울고법	긴조 9호, 공갈	고하운 (신문사 사장)	징8월징2, 무죄(공갈방 조, 긴조)	지법 한정진, 이기영, 조용무 고법 김용준, 조용완	항소심에서 긴 조해제로 면소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 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 고
	1981. 3. 11. 78노 1206] [대법 1981. 8. 20. 81도1137]			→면소(긴조)	사 제품보다 엄청나게 비싸게 구입했다는 내용의 왜곡보 도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허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	양희열 대법 정태균,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125	75. 6. [춘천지법 1978. 6. 29. 78고합17] [서 울고법 1978. 10. 18. 78노935]	긴조 9호, 반공법	000 (무직)	징자2→ 징자1	대화중, "김일성이가 영웅이고 정치를 잘한다, 이번 6.25 를 잘 넘겨야지, 전후하여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전방에서는 민간인들을 철수시키고 있다"고 말함(유언비 어 날조유포)	지법 이태훈, 장준철, 박태훈 고법 김진우, 박보무, 김학세	
126	75. 5. 26. [서울형사지법 1980. 1. 14. 75고합 654]	긴조 9호	민병권 윤서영 (대학생)	면소	한국외국어대생으로, 학교 앞 주점에서 동료학생 정민수 와 회합, 현정부 비판의 유인물을 받아 동교생 1인씩을 포섭하여 각각 배포할 것과 시위에 가담할 것에 동조	지법 이재화, 김 훈, 이정구	긴조 9호 해제 로 면소

4)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제정 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사건(1976. 발생)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1	72-76.	[서울형사지법 1976. 2. 24. 75고합 173] [서울고법 1976. 6. 10. 76노 565] [대법 1976. 9. 28. 76도2073]	긴조 9호, 반공법	000(의사), 000(인쇄업), 000 외 2인(이상 회사원), 000 외 1인(상업), 000 외 1인(회원업)	징자7-징자2→징자5-징자2→징자4(박남업, 형경정)	피고인들(50대 초반)은 이복출신으로 6.25 국방경비법, 국가보안법, 간첩죄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사람들로서, 000의 병원(자혜의원)에서 수시로 한국의 정치상황, 대북관계, 정권비판과 긴급조치 해제 등에 대해 대화함(반국가단체 고무찬양)	지법	허정훈, 이공현, 김의열	구체적 실행행위 전혀 없었고 단지 과거 친북활동하였다는 전력으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 긴급조치 해제로 형경정 청구(서울고법 1979. 12. 29. 79초 110)
							고법	전병연, 최휴섭, 김종화	
							대법	이일규, 홍순엽, 양병호, 강안희	
2	76. 1. 4.	[전주지법 1976. 3. 11. 76고합13] [광주고법 1976. 9. 15. 76노311] [대법 1978. 4. 25. 76도 3361]	긴조 9호	000 (묘목판매업)	징자1.6집3 →무죄	자신의 집에서 73. 11.경 돈 500, 000원을 빌려주었던 조카부부에게 서신을 작성함에 있어, '이 시간에도 나는 정부로부터 말살을 당하고 있으니 죽지 못하여 살고 있다, 현정권은 정권유지에 집착하여 국민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으니 온 집안이 단합하여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우리들의 각오를 몇 가지 열거한 것이니 참고하기 바란다'라고 기재하여 조카에게 발송(유언비어를 날조, 사실 왜곡 표현물 배포)	지법	김용은, 조건오, 최형기	항소심에서 수신인이 특정되었으므로 긴급조치 9호의 1의 '배포'라고 단언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하여 무죄선고
							고법	노병인, 양영태, 김선석	
							대법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3	76. 1.	[서울형사지법 1976. 4. 12. 76고합 152] [서울고법 1976. 10. 7. 76노 927] [대법 1976. 12. 28. 76도3637]	긴조 9호	김창열 (무직)	징1.6자2 →징자1	75. 1.4 동아일보 격려광고란중 유신헌법철폐요구하는 내용, 개헌주장 등 440매 광고물을 복사한 표현물을 소지하고, '동아일보 격려광고 모음'제하에 인쇄제본을 의뢰	지법	김운경, 이상경, 라정옥	
							고법	전병연, 최휴섭, 김종화	
							대법	민문기,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4	76. 2. 13.	[전주지법 군산지원1976. 4. 16. 76고합17] [광주고법 1976. 9. 1. 76노291]	긴조 9호	000 (목공)	징지3집4	군산시내 모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일본어로 술을 달라고 하자, 옆테이블 사람들이 좋은 우리말을 두고 왜 일본말을 쓰냐고 하자 "일본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박정희새끼는 해놓은 것이 무엇이나"고 말함(국가원수 모독, 사실 왜곡전파)	지법	유지원, 김대현, 최훈장
							고법	노병인, 양영태, 김선석
5	76. 1.	[서울민형사지법 인천지원 1976. 5. 14. 76고합38] [서울고법 1976. 10. 14. 76노1219]	긴조 9호	000 (제분업)	징지3 →징지1	대회중, "000은 000와 별장에서 재미본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000도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필리핀 마르코스는 군정으로 독재를 한다, 000과 같은 놈이다"라고 말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사실 왜곡전파)	지법	윤영철, 김중곤, 강원구
							고법	전병연, 최휴섭, 김종화
6	76. 2.	[서울민형사지법 인천지원 1976. 5. 14. 76고합30] [서울고법 1978. 3. 24. 76노1175] [대법 1978. 6. 13. 78도1037]	긴조 9호	000 (목사)	징지3집5	교회부흥회에서 신도들에게 "000는 000이 죽인 것이 아니고 평소 불교를 신봉하고 기독교를 박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쥐 죽게 한 것이다, 국립묘지에는 남자나 군인들만이 안장되는 곳인데 000 여사를 국립묘지에 안장한 것은 잘못이라는 여론이 많다" 등의 말을 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사실왜곡전파)	지법	윤영철, 김중곤, 강원구
							고법	박우동, 안종혁, 김규복
							대법	유태홍, 이영섭, 김운행, 김용철
7	76. 1.	[전주지법 군산지원 1976. 5. 14. 76고합1] [광주고법 1976. 10. 27. 76노323]	긴조 9호 폭처법	000 (어물행상)	징지5→징지3	폭행사건으로 군산경찰서로 임의동행되어 대기중 순경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곧 죽는다, 박정희 대통령은 죽어도 좋다" 등의 발언을 함	지법	유지원, 김대현, 최훈장
							고법	노병인, 양영태, 김선석
8	76. 2. 9.	[서울지법 수원지원 1976. 5. 17. 76고합34] [서울고법 1976. 10. 8. 76노	긴조 9호, 반공법	000 (중학교사)	징지2	수업중, "정부가 방위성금 150억원 중 75억은 팬텀기 구입하고 나머지는 조총련계 재일동포를 매수해 모국방문케 하는데 썼다, 기구당 500원씩 적십자 회비를 내는데 일부는 어디에 쓰는지 모	지법	송기방, 김중권, 전봉진
							고법	김상원, 정래용, 홍기배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1544] [대법 1976. 12. 28. 76도3549]				르니 낼 필요없다"고 말하고(사실왜곡전파, 유언 비어날조유포), "이북의 경제성장률과 전력이 남한보다 높다"고 말함(북괴 활동 고무찬양)	대법 김영세, 한환진, 안병수, 김용철		
9	76. 2	[대구지법 안동지원 1976. 5. 20. 76고합18] [대구고법 1976. 9. 23. 76노659]	긴조 9호	000 (노동)	징자1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박정희 정치가 이승만 정치만 못하다, 산에 나무를 하게하나, 리아카를 끌고 다니며 장사를 하게 하나, 우리같은 놈은 어디에 가서 벌어먹고 사느냐, 박정희가 장기집권을 하니 우리 평생에는 대통령 선거 한번 못해 본다, 김일성을 왜 욕하느냐" 등의 발언을 함	지법 한재영, 박준수, 임수태 고법 고정권, 김철기, 김현무	
10	76. 2	[대구지법 경주지원 1976. 5. 25. 76고합22] [대구고법 1977. 7. 27. 76노764]	긴조 9호, 폭처법	000 (농업)	징자1집2	조총련계 재일동포 모국방문단 서울시민 환영대회 장면을 TV로 시청하다 "저거는 전부 허위다"라고 발언함	지법 김완석, 김태준, 심명수 고법 최재호, 박준용, 송진훈	
11	76. 1.	[서울지법 성북지원 1976. 5. 25. 76고합51] [서울고법 1976. 10. 8. 76노1183] [대법 1977. 1. 11. 76도3638] [서울고법 1977. 5. 6. 77노181] [대법 1977. 7. 26. 77도1754]	긴조 9호, 국가보안법	000 외 1인 (무직)	징자7, 징자2집3→징자3. 6(000)→징자2무죄(국보)	해방이후 근로인민당 경북도당 조직부장직(000), 만주에서 독립운동(000)경력자로서, 지연관계로 알던 000과 그의 처가 고정간첩이라는 허위사실을 중정 수사요원들에게 신고하여 무고하고, 대화중, "남한에 중공간첩으로 활약하는 중국, 한국사람이 있다, 그들은 중국대사관을 거점으로 활약하고 있다"고 말하고(000)(유언비어 날조유포), 000은 000에게 "내가 교도소 수감중일때 간첩 000을 만났는데 정부에서 동인을 처형 않고 백령도로 보내 월북시키려다 미군에게 발각되었다"는 등의 말을 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이병후, 윤규환, 노원욱 고법 전병연, 최휴섭, 김종화 대법 강안희, 이영섭, 양병호, 이일규 고법 김상원, 홍기배, 김규복 대법 라길조,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대법(77. 1. 11.)에서 중정에 신고한 내용이 유언비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파기환송
12	76. 1. 4.	[대구지법 상주지원 1976. 5. 26. 76]	긴조 9호, 사기	000 (무직)	징자4→징1(형경정)	대화중,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정부에서 하사한 자금출처는 방위성금이다, 박정권 타도하려면 중	지법 성병현, 여춘동, 오윤덕	비약적 상고 기각, 긴조 해제로 형경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고합18] [대법 1976. 9. 28. 76도 1969]				교인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말함(사실왜곡전파)	대법 주재황, 한환진, 임항준, 라길조	정결정(대구지법 상주지원 1979. 12. 28. 79초22)
13	76. 4	[전교사 보통군법 회의 1976. 6. 2. 76 형공제393호] [육군 고등군법회의 1976. 10. 22. 76고군형 제817호] [대법 1977. 2. 22. 76도 3905]	긴조 9호	000 (방위병)	장1자2→ 파기관송 대학재학중 방위소집되어 근무중, 선배에게 보낸 편지에 유신헌법 비판, 교과서에 박정희 개인미화하는 것을 비판함(사실왜곡전파)	보군 박동석, 심란섭 고군 전재석, 이흥진, 김진홍, 조규택 대법 강안희,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대법에서, 편지를 선배의 모친만 열람한 바, '전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14	75. 10. -76. 2	[서울형사지법 1976. 6. 4. 76고합 364] [서울고법 1976. 11. 18. 76노 1446] [대법 1977. 2. 22. 76도4252]	긴조 9호	김명식, 김무길, 김정수, 김승중, 김정택 (예수회 수사등)	장자5(김명식), 장자2(김무길, 김정수, 김승중), 장자1(김정택) → 장자3(김명식), 장자1.6 (김무길, 김정수), 장자1.6집3 (김승중), 장자1집2(김정택) 김명식은 유신체제 비판, 헌법 및 긴급조치 폐지, 월남파병, 새마을 운동 비판하는 '10장의 역사연구' 제하의 풍자시를 작성하여 유인물 180여부로 제작, 동료들에게 배포함(사실왜곡, 허위날조)	지법 허정훈, 이공현, 김의열 고법 전병연, 최휴섭, 김종화 대법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	10장의 '역사연구' 사건
15	76. 2	[대전지법 홍성지원 1976. 6. 8. 76고합7] [서울고법 1976. 12. 3. 76노 1273]	긴조 9호	000 (인쇄공)	장자2→장자1.6집3 대화중, "인민이 해방될 날도 멀지 않았다"고 의침	지법 김익규, 김종식, 박찬주 고법 한정진, 정현식, 김종배	
16	76. 3. 24	[서울지법 성북지	긴조 9호	전점석, 최갑성	장자1	지법	이병후, 윤규환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원 1976. 6. 8. 76고합97 [서울고법 1976. 11. 2. 76노1257] [대법1977. 1. 25. 76도4166]	(대학생)		헌법철폐 내용으로 하는 '한신선언문' 200매를 배포함	노원욱 고법 한정진, 정현식, 김종배 대법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유태홍	
17	76. 1.	[대구지법 1976. 6. 9. 76고합54]	긴조 9호	000 (무직)	단6월장10일자1 대학재수중 술을 마시며, "박정희는 일당독재다, 조총련 재일동포가 모국을 방문했을 때 복과에 속았다고 말했다는 것은 정부가 조작한 말이다, 나는 민청학련사건으로 구속됐다 석방되었다"고 말함(북한이름게 하는 유언비어날조, 사실왜곡전파)	지법 조수봉, 이기현, 배종수	
18	76. 3. 13.	[전주지법 1976. 6. 10. 76고합54] [광주고법 1976. 10. 19. 76노360]	긴조 9호	고영조(학생), 하정택(농업)	징자1.6집3 (고영조), 징자1집2(하정택)	지법 김용은, 조건오, 최형기 고법 김재주, 박종택, 김용열	
19	76. 2.	[부산지법 마산지원 1976. 6. 15. 76고합33] [대구고법 1976. 12. 13. 76노810] [대법 1977. 2. 22. 77도65]	긴조 9호, 반공법	000 (농업)	징자2 대화중, "박도당은 독재정치를 하고 있어 실업자가 많은데 이북은 농어업을 하면 똑같이 나누어 살기 좋다, 유엔내부에는 공산주의가 우세해 이북은 지금이라도 유엔에 가입할 수 있다" 등의 발언을 함(사실왜곡전파, 북한 찬양)	지법 조무제, 유 언, 김종철 고법 고정권, 김철기, 김현무 대법 양병호,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20	76. 3.	[대구지법 1976. 6. 16. 76고합121] [대구고법 1976. 9. 30. 76노812]	긴조 9호	000 (여행상)	징8일자1 길거리로 지나다, "박정희는 XXX다, 000은 빨갱이들만 모인 집단이다, 박정희 XXX는 깡패들만 양성해 나라를 망치게 했다"고 고함을 치고 목격한 순경이 지서에 연행하자 거기서도 계속해 같은 내용의 말을 함	지법 조수봉, 이기현, 배종수 고법 고정권, 김철기, 김현무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21	76. 3.	[청주지법 총주지원 1976. 6. 16. 76고합17] [서울고법 1976. 11. 5. 76노1290] [대법 1977. 2. 22. 76고4056] [서울고법 1977. 6. 9. 77노309] [대법 1978. 2. 28. 77도?]	긴조 9호	고영근 (목사)	징7지5→ 징자2→ 징자1.6	설교중 "문선명이 수많은 기업을 두어 개인이익을 치부하는데 정부에서는 승공, 반공이니 하며 축사를 하며 협조하고 있다, 박정희가 국민을 기망하고 무능하다, 외채가 80억인데 빚덩이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되었다, 혁명공약을 지키지 않고 장기집권을 합리화한다, 유엔표결에 한국지표 줄어드는 것은 자유진영에서 고립당하는 걸 표시하는 것인데 누구때문에 고립되어 가겠느냐" 등의 발언을 함(파기환송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000가 법개정해 무덤을 4평으로 제한해놓고도 000 무덤은 1000평에 달해 500만의 사람을 동원해 참배케하고 있으니 개인승배다'라고 발언한 것만 인정)	지법 박규석, 신정치, 이치호 고법 김상원, 정태웅, 홍기배 대법 정태원,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고법 오석락, 이익우, 정귀호 대법 김윤행, 이영섭, 김용철, 유태홍	상고심(77. 2. 22)에서, 발언내용은 신문, 각종 간행물에 보도된 공지의 사실로 사실왜곡 인정할 수 없다고 파기환송
22	76. 1.	[부산지법 1976. 6. 17. 76고합245] [대구고법 1978. 2. 15. 76노825]	긴조 9호	김영일, 조태원, 이태성 (대학생)	징자2집3(김영일, 조태원), 징자1집2(이태성)	부산대, 동아대생들로서, 한국기독교장로회 부산중부교회 대학생회 간부들로 회지에 '우리 약한 힘을 한데 모아 아프다고 고함이라도 질러보자, 왜 때리느냐고 반항해보자, 우리 올바른 삶을 위해 아니 떼뻗한 죽음을 위해 이땅의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실현시키자, 한국적이니 유신이니 따위는 말고...' 등의 내용을 실어 회원들에게 배포함	지법 김석수, 임완규, 김주성 고법 이정우, 최종영, 안석태	
23	76. 3. 14.	[서울지법 성동지원 1976. 6. 18. 76고합60] [서울고법 1976. 10. 19. 76노1417]	긴조 9호	김금룡 (학생)	징자1→ 징자1집2	성남시 주민교회 주일학교 교사로서, 이해학 목사로부터 긴급조치 철폐, 의회정치 회복 내용 담은 '민주구국선언문' 100부를 제작해 달라는 부탁 받고 등사기로 이를 제작함(헌법비방·폐지·개정 주장 선동하는 내용의 표현물 제작)	지법 변정수, 김경철, 김훈 고법 한정진, 정현식, 김종배	
24	76. 2.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1976. 6. 28.]	긴조 9호, 반공법	000 (회사경비원),	징자1.6집3, 징자1집2	술에 취해, "이북으로 가야했는데 갈 수 있는 길을 잘 알고 있다, 이남은 10월이 되면 망한다, 박	지법 이영구, 김목민, 김인수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000(공원)		정희는 도당이고 김일성은 수령님이다, 월급 3만 원으로는 못살겠다, 돈을 벌기 위해 이북에 가야겠다' 등의 말을 함(김일성 고무찬양, 유언비어 유포)	고법 김상원, 홍기배, 정태용,	
25	76. 4.	[대전지법 1976. 6. 30. 76고합7] [서울고법 1976. 11. 4. 76노1466]	긴조 9호	000 (농업)	용산발 목포행 열차에서 술에 취해 '동무, 우리 인민' 등의 북한의 상투적 용어 사용하며 "유정희 의원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유정희는 잡동사리다, 대통령 선거가 대의원에 의해 행해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고성으로 외침(사실왜곡전파)	지법 안우만, 성문용, 김권택, 고법 전병연, 최휴섭, 김종화	
26	75. 6. 76. 2	[서울지법 수원지원 1976. 7. 19. 76고합80] [서울고법 1976. 11. 18. 76노1778] [대법 1977. 2. 22. 76도4358]	긴조 9호	000 (무직)	연세대 신학과 복학생으로, 동료인 '민청학련' 관련자 서창석, 김학민, 김용준 등의 석방은 포드 대통령 내한사 박정희에게 압력가하여 석방요구했고, 박정희는 8월 이내로 정권을 내놓는다, 정일권 국회의장이 외국 순방한 것도 대통령 망명처를 모색하기 위한 짓이라고 말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송기방, 김중권, 전봉진, 고법 전병연, 최휴섭, 김종화, 대법 임항준,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	민청학련 사건으로 징역12년선고 받고 1975. 2. 15. 형집행정지로 출소
27	76. 3.	[대구지법 1976. 7. 21. 76고합168] [대구고법 1976. 10. 7. 76노1029]	긴조 9호	000 (무직)	술집에서 큰소리로 "박대통령은 폭군 연산군과 로마의 네로황제와 같이 독재적이다, 장기집권을 위해 국회의원을 간선제로 하고 별별수단을 다 쓰고 있다, 고급공무원들이 골프장, 요정에 다니며 뿌리는 돈은 시민들이 피땀흘려 모은 돈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라고 말함	지법 조수봉, 배종수, 이기현, 고법 고정권, 김철기, 김현무	
28	75. 3 -76. 2	[서울형사지법 1976. 7. 28. 76고합468] [서울고법 1976. 12. 10. 76노1800] [대법 1977.	긴조 9호, 반공법	000 (무직)	대화 중, "김일성이 정치를 잘해 이북은 살기 좋다, 소련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나라다, 미국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고(반국가단체, 국외공산계열 활동찬양), "독재정치는 물러나야 한다,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총칼이 무서워 말을	지법 허정훈, 이공현, 김의열, 고법 김상원, 홍기배, 정태용, 대법 김영세, 한환진, 안병수, 김용철	반공법 전과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3. 22 77도94]				못한다"고 말함(사실왜곡전과)			
29	76. 2	[대전지법 천안지원 1976. 8. 18. 76고합29] [서울고법 1976. 12 7. 76노1776]	긴조 9호	000 (농업)	징자4→징자2집4	주점에서 대화중, 상대방에게 "너는 공화당이지, 똑똑히 살다 죽으라, 유정회 국회의원 선출은 너희들 마음대로 하느냐"고 소리침(유언비어 유포)	지법 공아도, 양인평, 박채규 고법 한정진, 김종배	
30	76. 3. 1.	[서울형사지법 1976. 8. 28. 76고합287] [서울고법 1976. 12 29. 76노1835] [대법 1977. 3. 22 77도44]	긴조 9호	문익환, 김대중, 윤보선, 정일형, 이태영, 이우정, 이문영, 이해동, 안병무, 함석헌, 문동환, 서남동, 함세웅, 신현봉, 문정현, 장덕필, 김승훈, 윤반웅	아래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1976. 3. 1. 명동성당에서 유신헌법철폐, 긴급조치 폐지 등을 주장하는 '민주국국선언문'을 발표함(사실 왜곡전과, 헌법 왜곡 비방, 그 폐지를 주장선동)	지법 전상석, 황우여 고법 전병연, 김종화 대법 민복기,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운행, 이일규, 강안희, 라길조, 김용철, 유태홍, 정태원	'3·1민주국국선언문'으로 700여 명의 친구교 신자들 모인 가운데 선언문 낭독.
<p><형량> ①징자8(문익환, 김대중, 윤보선, 함석헌), 징자5(정일형, 이태영, 함세웅, 이우정, 문동환, 신현봉, 이문영, 문정현, 윤반웅), 징자4(서남동), 징자3(이해동, 안병무), 징자2(장덕필, 김승훈) ②징자5(문익환, 김대중, 윤보선, 함석헌), 징자3(정일형, 이태영, 이우정, 이문영, 문동환, 함세웅, 신현봉, 문정현, 윤반웅), 징자2(서남동), 징자2집3(이해동, 안병무, 김승훈), 징자1집2(장덕필)</p>								
31	76. 3. 18.	[광주지법 1976. 9. 1. 76고합100] [광주고법 1977. 2. 17. 76노522]	긴조 9호	000, 000 (무직), (농업)	징자1, 징8월자1집2→징자1집2(000)	000은 1975.부터 신민당기관지인 '민주전선' 보급요원으로 광주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을 상대로 "3.1사태와 김대중선생의 선거법위반 재판상황, 특히드사건에 연루된 000, 000 문교부장관의 교수와 학생들에 대한 불법행동 등 이런 사실을 알려면 민주전선을 사보십시오"라고 열변토로함	지법 이상범, 오성률, 강창웅 고법 이성렬, 천경송, 김선석	
32	76. 3.	[대전지법 1976. 9.	긴조 9호	000	징자1.6	상가집에서 "박정희가 무엇인데 신부들을 구속하	지법 안우만, 김권택	음주에 의한 심신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6. 76고합77]	[서울고법 1976. 11. 23. 76노1839]	(농업)		느냐, 지도 혁명을 해서 대통령이 된 주제에 다른 사람이라고 하지 말라는 법이 있냐" 등의 말을 큰소리로 함	신문용 고법 한정진, 정현식, 김종배	미약상태 인정	
33	76. 3.	[서울지법 인천지원 1976. 9. 7. 76고합71] [서울고법 1977. 2. 2. 76노1919] [대법 1977. 4. 26. 77도655]	간조 9호	00(목사), 000(무직)	징자8, 징자3집5 →징자5(입일)	민중회복국민회의 위원, 고문 경력자들로서, 대화중 "박정희는 장기집권하고 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5년안에 좌경 쿠데타 일어난다, 박정희는 원래 공산주의자다, 자주국방 자립경제운운은 정권연장수단이다"라고 말하고, '재야정당 자진해체 건의서', 야당국회의원에게 '의원직 사퇴권고서' 작성해 배포할 것을 준비하고, "박씨 주변 권력층은 외국에 수백만 달러를 이미 도피시켜놓았다, 이번 3.1명동사건으로 박정권은 생명을 단축한 축진제가 된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함	지법 윤영철, 김종곤, 강원구 고법 조인, 고중석, 이철환 대법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유태홍	
34	76. 5. 6.	[청주지방법원 1976. 9. 15. 76고합56] [서울고법 1976. 12. 21. 76노1904] [대법 1977. 3. 8. 77도265]	간조 9호, 반공법	000 (한전 직원)	징자2→ 징자1	동료들과 술마시는 자리에서 "국무총리는 로보트다, 박정희가 무슨 대통령이나, 이북이 살기가 더 좋다"고 하고, "선량한 국민을 이북에 간첩으로 보내어 죽게한다"고 말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변재승, 임승균, 문윤길 고법 한정진, 정현식, 김종배 대법 유태홍,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주취에 의한 일과성 주정성 정신장애로 심신미약상태 인정함
35	76. 4. 18.	[광주지법 1976. 9. 16. 76고합101] [광주고법 1977. 5. 19. 76노925]	간조 9호	김영종 (대학생)	징10월자1집2→ 징10월자1집2	전남대생으로 4.19기념행사를 학내에서 시행할 것을 마음먹고, '정의와 자유의 낯인 4.19정신은 부조리와 현실타협에 의하여 죽어버렸으며, 이제 더 이상은 4.19의 죽음을 기념하는 행사는 하지 말고 학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모든 것에 항거하자'는 취지의 결의문을 작성, 학내에서 태극기를 걸어놓고 학생들앞에서 낭독함	지법 임순철, 서석구, 신정식 고법 이성렬, 김선석, 하태은	
36	76. 3.	[광주지법 1976. 9.	간조 9호	윤한봉	징자2→	76.3.1명동사건의 '구국선언문'을 입수해 소지, 신	지법 심의섭, 황대연	간조 1, 4호위반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17. 76고합102] [광주고법 1977. 2. 24. 76노542] [대법 1977. 5. 10. 77도 989]			징자1.6	광교회에서 낭독하고 "3.1사태를 정부전복이라고 구속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발언	오세빈 고법 이성렬, 천경송, 김선석 대법 김용철, 이영섭, 김윤행, 유태홍	으로 징자15선고 복역중, 75. 2. 15. 형집행정지 출소
37	76. 5. [전주지법 1976. 9. 23. 76고합109] [광주고법 1977. 2. 24. 76노553] [대법 1977. 5. 24. 77도 988]	긴조 9호, 산림법	000 (농업)	징자1.6	대회중, "대통령, 김종필 그 자식들이 무엇을 알아서 정권 잡았느냐, 대통령이 나에게 무릎 꿇고 빌러온다" 등의 말을 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김용은, 최형기, 노재승 고법 이성렬, 천경송, 김선석 대법 김윤행, 이영섭, 김용철, 유태홍	
38	76. 6. [부산지법 1976. 9. 23. 76고합591] [대구고법 1977. 1. 27. 76노1274]	긴조 9호, 주민등록법	000 (무직)	징자1	식당에서 그 곳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박정희는 때려죽여야 한다, 박정희가 멋대로 법을 조정하면서 혼자 잘 살고 있다" 등의 발언을 함	지법 김석수, 임완규, 김주성 고법 최재호, 박준용, 송진훈	
39	76. 2. [서울형사지법 1976. 9. 24. 76고합 479] [서울고법 1977. 2. 4. 76노 2029]	긴조 9호, 공문서위조	이하영(재수생), 최상호(학원강사)	단2장3자3, 징자2→단1장자1. 6, 징자1	국회를 씨름장으로, 공화당을 벼락당으로 표현한 '씨름장의 멜로디'라는 제목으로 민청학련, 군사 재판, 김지하사건 등이 독재정권의 인권유린과 탄압의 결과 고문으로 날조된 것으로 표현하는 시문을 작성하여 인쇄하여 자신이 다니는 학원에 배포하고 최상호는 이를 보관소지	지법 허정훈, 이공현, 김의열 고법 김상원, 홍기배, 김규복	
40	76. 5. [춘천지법 원주지원 1976. 9. 30. 76고합51] [서울고법 1977. 1. 20. 76노 1957]	긴조 9호	000 (광산노동)	징1→징자1	대회중, "000가 000을 죽이려고 했다, 중정요원이 000 집을 포위해 죽이려 했으나 먼저 알고 피했다, 성남시가 서울시로 편입된 것에 반대하는 데모에 참여하고 서울시장 승용차를 내가 불질렀다" 등의 발언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윤상목, 민수명, 신명균 고법 오석락, 이익우, 정귀호	
41	76. 4. [전주지법 1976. 10.	긴조 9호,	000 외 1인	징자1.6,	전주시내 학원강사들로서 학원강의중, "남북이 외	지법 김용은, 최형기,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7. 76고합113] [광주고법 1977. 3. 3. 76노555] [대법 1977. 7. 26. 77도 1117]	반공법, 공문서부정 사용	(학원강사)	징자1→징자1.6집 3, 징자1집3	국원조없이 싸우게 되면 남한은 북한에게 진다, 북한에는 굶는 사람이 없으나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체제로서 빈부차가 심하고 노동자 입장에서 북한이 살기가 낫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북에 간첩을 보내고 있고 돌아오면 이중간첩인줄 모르기에 비밀리에 감시한다"(000), "유신헌법하에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퇴보한 것이며, 유신헌법개정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다"(000)등의 발언을 함	노재승 고법 이성렬, 천경송, 김선석 대법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42	76. 3. 31.	[부산지법 진주지원 1976. 10. 11. 76고합40] [대구고법 1978. 2. 9. 76노 1280] [대법 1978. 5. 23. 78도549]	간조 9호	000 (중학교 교사)	징8월자1	사회과 교사로써, 수업시간에 "유신헌법은 장기집권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제도로 간접선거 하는 것은 나쁜 제도이다, 헌법개정 반대학생들을 연행하여 고통준다"는 등의 발언을 함(헌법개정선동)	지법 김두석, 이국주, 정극수 고법 박돈식, 양기준, 조열래 대법 유태홍, 이영섭, 양병호, 김용철	
43	76. 3.	[광주지법 장흥지원 1976. 10. 19. 76고합46, 72, 122] [광주고법 1977. 2. 24. 76노591] [대법 1977. 5. 24. 77도 958]	간조 9호, 변호사법	김원식 (무직)	징자3	김대중의 경북지방조직 담당보좌역활동을 하던 사람으로서, 75. 12 경 대화중 "내년 봄에는 정권이 바뀐다"고 말하고(유언비어 날조유포), 76. 3. 경 3.1.구국선언으로 구속된 김대중 사건의 부당성에 대한 편지를 작성, 지인들에게 우송	지법 최규봉, 박상선, 오세립 고법 이성렬, 천경송, 김선석 대법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44	76. 7.	[부산지법 마산지원 1976. 10. 19. 76고합154] [대구고법 1978. 2. 9. 76노 1308]	간조 9호	000 (무직)	징자3집5	취기에 "박정희 장기집권으로 민주주의가 없다, 명동사건은 선량한 교인들인데 석방시키지 않고 공화당 간부들만 사육을 채우니 공평하지 못한 세상이다, 복귀가 남침준비 하고 있다는 말을 역이용하여 정부에서 국민들을 공포분위기로 이끌	지법 조무제, 유 언, 김종철 고법 박돈식, 양기준, 조열래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어가고 있다, 10월유신을 반대한다"고 말하여 파출소로 임의동행되어 대기중 "박정희는 여수순천 반란사건에 가담하지 않은 줄 아느냐, 박정희는 빨갱이 정치와 같지 않느냐" 등의 발언을 함			
45	76. 6.	[춘천지법 강릉지원 1976. 10. 19. 76고합54] [서울고법 1977. 2. 4. 76노2081]	긴조 9호	000 (광업)	정자1	열차역에서 "대한민국은 10년내 망할 것이다", 열차안에서 "사국이 어수선하다, 일거일동 움직이는 것을 박정희가 감시한다"고 말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김종수, 민세홍, 오행남 고법 김상원, 홍기배, 김규복	만취해 심신상실 내지 심신 미약 주장했으나 배척
46	76. 6.	[서울형사지법 1976. 11. 4. 76고합764] [서울고법 1978. 3. 10. 76노2330]	긴조 9호	000 (통일연구협회 이사장)	정자1.6집3 →선고유예	협회사무실에서 토론중 "미국 대통령으로 카터가 당선되면 한국인권문제와 관련해 군원삭감등 조치를 취하게 될지도 모르고, 이것을 피하기 위해 내년 3월 헌법개정, 국회해산하고 직선제로 국민의 신임을 묻게 될 것이고 새로운 국회의원수는 인구 10만명에 1명꼴로 300명이 될 것이다"라고 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심훈중, 김창수, 양승태 고법 박우동, 안중혁, 김규복	
47	76. 7. 22	[서울지법 성동지원 1976. 11. 5. 76고합134]	긴조 9호, 반공법	000 (무직)	정자3집5	만취하여 대화 중, "이북에 가서 김일성 만났는데 살기가 좋더라, 제2의 6.25가 나와 살게 된다, 2년 후면 박정권이 무너진다" 등의 발언을 함(유언비어 날조유포, 반국가단체 구성원 찬양고무)	지법 변정수, 김 훈, 신성철	범행시 심신장애 상태 주장하였으나, 배척
48	76. 1.	[서울형사지법 1976. 11. 5. 76고합875] [서울고법 1977. 3. 25. 76노2222] [대법 1977. 5. 24. 77도1245]	긴조 9호, 반공법	000 (병원사무장)	정자1.6 →정자1	대화중, "내 친구인 한승헌 변호사는 공산주의자가 아닌데 정부에서 구속시켜 매장시키려하고 있다, 공산주의 이론은 좋은 것이고 남한에서 정치 잘하려면 공산주의 이론과 민주주의 이론을 합쳐서 정치해야 한다"고 말함(북한 노선 지지찬양)	지법 허정훈, 조용무, 김의열 고법 김상원, 홍기배, 김규복 대법 김용철, 이영섭, 김윤행, 유태홍	
49	76. 4.	[서울지법 영등포	긴조 9호,	000	무죄→	서문여고 사회교사로 수업시간중, "북한에 우리보	지법 이영구, 조홍은,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지원 1976. 11. 8. 76고합186 [서울고법 1980. 3. 27. 77노109] [대법 1980. 9. 30. 80도1179]	반공법	(고교교사)	면소(긴조)	다 1년만저 지하철이 생겼다, 후진국일수록 일인정권이 오래간다, 우리나라 정권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해먹는다'고 말한 것은 북괴고무 찬양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인집권도 자유당집권하에서 경험한 바 있는 역사적 사실이어서 그 자체가 낱조된 사실이거나 사실 왜곡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고, 동해물과 운운도 비유적 표현에 불과하며, 박정희 정권이 장기집권임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어서, 장기집권에서 오는 지루한 안정에 대해 자유국민이 가지는 염증감상을 표현한 것이므로 무죄	민형기 고법 김형기, 이영범, 양인평 대법 김태현, 안병수, 김용철, 김기홍	
50	76. 7. [춘천지법 강릉지원 1976. 11. 16. 76고합60] [서울고법 1977. 2. 24. 76노2200]	긴조 9호	000 (어업)	징자1	술을 마시면서 대화중, "아놈의 세상 더러운 세상이다, 국민 내는 세금은 박정희 혼자 다 쳐먹고 순전히 독재다"라고 큰소리로 말함	지법 김종수, 민세홍, 오행남 고법 오석락, 이익우, 정귀호	
51	76. 3. 14.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1976. 11. 18. 76고합130]	긴조 9호	000(무직)	징자1.6집3	통행금지위반으로 경찰서 보호중 "긴급조치발동해 국민을 못살게 한다"고 말함(긴급조치 비방)	지법 홍성운, 이강국, 서재현	
52	76. 5. 8.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1976. 11. 18. 76고합132] [서울고법 1977. 3. 11. 76노2302]	긴조 9호, 반공법	000 (양계업)	징자1.6→징자1 (반공법 무죄)	대화중, "전쟁 일어나 남한이건 북한이건 통일되면 좋겠다, 김일성이 정권 오래 잡고 있는 걸 보면 나긴 난 놈이다", 부모에게 "돈 안주면 양계장에 불지르고 이복가서 살겠다"고 말하고(북괴, 김일성 찬양고무동조), "이후라이 김대중을 납치했다, 지붕도색 강제로 시키는 건 독재다"라고 말함(유언비어 유포, 사실왜곡전파)	지법 홍성운, 이강국, 서재현 고법 김상원, 홍기배, 김규복	반공법 위반에 대한 증언이 일관성 결여, 북한 찬양고무 범의없음
53	76. 3. 1. [서울지법 성동지	긴조 9호	이해학	징자3	성남시 주민교회 전도사로서, 문익환 목사로부터	지법 변정수, 김 훈,	긴급조치 1호 위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원 1976. 11. 12 76 고합164] [서울고법 1977. 2. 3. 76노 2158] [대법 1977. 4. 26. 77도590]		(전도사)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명동성당 사건으로 반포된 민주구국선언문'을 받아 주민교회 주일학교 교사에게 지시해 선언문 100여부를 등사케 함(헌법 부정, 비방하고 개정, 폐지 선동하는 표현물 제작케 함)	신성철 고법 오석락, 이익우, 정귀호 대법 주재황, 한환진, 임항준, 라길조	반으로 대법원에 서 15년 선고 (1974. 8. 20.)	
54	76. 7.	[서울형사지법 1976. 11. 26. 76고 합915] [서울고법 1977. 3. 2. 77노5]	긴조 9호	000 (무직)	정자1	대화중, "000이 국내에서 많은 돈을 빼들려 스위스 은행에 예금해 놓고 그 중 100억불을 찾아 000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였다"고 말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허정훈, 김창수, 김의열 고법 조 언, 고중석, 이철환	
55	76. 6.	[대구지법 1976. 12. 8. 76고합282] [대 구고법 1977. 4. 7. 77노7] [대법 1977. 7. 26. 77도1368]	긴조 9호, 반공법	000(고교교사), 000, 000(대학생)	정자3,6, 정자1 →정자2(000), 정자1집2(000), 선고유예(000)	헌법반대하는 '4.19선언문', '김상진유서' 등을 소지하여 후배에게 내용을 전파하고, 후배 등과 대화 중 "월남은 망한게 아니다, 통일로 가기 위해 먼저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군인은 필요악이다" 등의 발언을 하고(000), 000에게서 위 선언문, 유서의 프린트 부탁을 받고 30여부 가량을 프린트하여 000에게 주어 전달함(000)	지법 조수봉, 배종수, 송창영 고법 최재호, 박준용, 송진훈 대법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	
56	76. 7.	[춘천지법 강릉지 원 1976. 12. 14. 76 고합70] [서울고법 1980. 1. 9. 77노 125]	긴조 9호	000 (농업)	정자1,6집3 →면소	대화중, "카터가 당선되면 박정희 공화당 정부는 무너지고 끝장이다, 현정부는 장기집권 독재하기 때문에 자유당 이박사 때보다 더하고 어떤 면은 김일성보다 더하다, 정보정치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가 잘못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없다, 공화당 정권은 무너지질 때가 되었다"는 발언을 함	지법 김종수, 민세홍, 오행남 고법 박천식, 정상화, 이창구	긴조 해제로 면소
57	76. 6.	[서울형사지법 1976. 12. 21. 76고 합672] [서울고법 1978. 3. 24. 77노	긴조 9호	이성규 (민주통일당 당원)	정자3집5	통일당 정책연구실장으로, 당수 양일동이 '사회안 전법폐지, 3.1명동선언사건은 순수한 우국선언임에도 정부가 정부전복음모사건으로 과장시켜 여론을 자극시키고 있다, 국가안보를 구실로 긴급	지법 심훈중, 김창수, 양승태 고법 박우동, 안종혁, 김규복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128] [대법 1978. 6. 27. 78도1023]				조치를 남발, 장기화하여 국민의 자유권 침해하므로 긴급조치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는 등의 전날 가진 기자회견문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200부를 제작하고, 미국 CBS방송국 특파원에게 교부하여 배포함	대법	정태원,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58	76. 8. [광주지법 1976. 12. 23. 76고합197] [광주고법 1977. 4. 21. 77노48]	긴조 9호	000 (목사)	징자2집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광주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교회내 대학생부 토론중 "박대통령은 건강이 나빠 지방순회를 못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우리나라 정부지지도가 낮다, 유신헌법통해 장기집권확고하고 민주회복위해 헌법폐지되어야 한다, 서울명동사건의 성직자들은 몸으로 선교하는 진정한 용자이다" 등의 발언을 함	지법 고법	임순철, 서석구, 신정식 이성렬, 천경송, 김선석	
59	76. 8. 21. [부산지법 1976. 12. 28. 76고합835] [대구고법 1978. 3. 8. 77노105]	긴조 9호	000 (은행원)	징자2집4	한국의환은행행원으로 76.부터 울산지점 기획조사계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서울대재학시절부터 적극적인 반정부활동을 전개하였던 경력이 있는 자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혀 경찰서로 연행되어 가서 대기하던 중 집에 보내주지 않는다며 책상을 치면서 박대통령에 대해 욕설을 한 후 "000는 만주벌판에서 독립투사를 죽였다, 00대학교는 간첩일색이다"라고 말함 (사실 왜곡 날조유פו)	지법 고법	김석수, 임완규, 김주성 이정우, 최종영, 안석태	
60	76. 4-8. [광주지법 1976. 12. 30. 76고합177] [광주고법 1977. 4. 2. 77노46] [대법 1977. 7. 26. 77도 1433]	긴조 9호	조홍래, 임기준, 윤기석, 강신석 (목사)	징자6(조홍래, 임기준), 징자5(윤기석, 강신석)→징자4, 징자3	한국기독교 장로회 전남노회 소속목사들로서 무안교회, 장흥읍교회 등 목사로서, 1976. 3. 1. 명동성당 사건으로 성직자들이 구속되자 임시노회를 개최하여 석방요구, 유신철폐, 민주헌정회복내용의 결의문을 작성하고 4. 22. 경기노회에서 채택하고, 이후 광주 양림교회, 함평읍교회 등지에서 결의	지법 고법 대법	심익섭, 황대연, 오세빈 이성렬, 장희목, 김선석 김윤행, 이영섭, 김용철, 유태홍	3.1명동사건관련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문을 낭독함		
61	76. 9.	[광주지법 순천지원 1977. 2. 4. 76고합150] [광주고법 1977. 4. 21. 77노76]	긴조 9호	000 (무직)	징자2→징자1 술에 취해 "박정희를 죽여야지 박정희가 혁명을 일으켜 내 신세가 이렇게 되었다, 박정희가 혁명을 일으켜 윤보선을 죽여버렸다"고 발언함	지법 이형년, 백수일, 김은집 고법 이성렬, 천경송, 김선석	
62	76. 10.	[광주지법 1977. 2. 11. 76고합231] [광주고법 1977. 4. 21. 77노91]	긴조 9호	000 (농업)	징자2집3 취중에 버스에서, "박정희가 차장들을 교육시켜 자리를 양보토록 해야 하는 데 그런것도 못한다, 박정희가 정치도 못하면서 높은 놈들만 잘 살게 하고 서민들을 죽게 만들었다, 박정희가 정치도 못하면서 세금만 거둬들인다" 는 등의 말을 함(유인비어 날조 유포)	지법 심의섭, 서석구, 정창환 고법 이성렬, 천경송, 김선석	
63	75. 8. -76. 10.	[서울형사지법 1977. 2. 16. 76고합963, 994] [서울고법 1977. 6. 1. 77노420] [대법 1977. 9. 13. 77도2040]	긴조 9호	아래	아래 명동성당 미사에서 김지하 고문사실을 듣고 통일연구협회원들에게 "정권이 인혁당, 김지하를 공산주의자로 조작한 것이고, 민심수습책으로 포항에서 석유난다고 했다"고 말하고(사실왜곡전파), 대화 중, "000 내분을 여당이 자금지원으로 조작했다, 구치소 내에서 대화 중 '긴급조치 반대, 미대선에서 카터가 당선되면 한국정세에 변화온다'고 말함(유인비어 날조유포)	지법 전상석, 유지담, 조용무 고법 조인, 고중석, 이철환 대법 라길조,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p><피고인 성명 및 직업> 김재위(무직), 김자명(통일연구협회지도위원), 최상익, 이경식(통일당 중앙상무위원), 함윤식(상업), 권노갑, 전우성, 최덕길(무직) <형량> 징자4(김자명, 이경식), 징자3(함윤식, 권노갑), 징자2(김재위, 최상익, 최덕길)→징자2.6(김자명, 이경식), 징자2(함윤식, 권노갑), 징자1.6(김재위, 최상익, 전우성, 최덕길)</p>							
64	76. 8.	[대구지법 상주지원 1977. 2. 23. 76고합61, 76고단678] [대구고법 1977. 6.	긴조 9호, 폭처법	000 외 1인 (농업)	징자2, 징1.6집3 폭행사건으로 상주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중, "정권이 바뀌면 사면령이 있을 것이다, 8.15.저격사건에 박대통령이 죽었다면 문세광이 살았을 것이다, 장관 고관들은 도둑놈아닌 사람이 없다"고	지법 박헌기, 성기창, 광동효 고법 최재호, 박준용, 송진훈	긴조 1, 4호위반으로 징자15선고 복역중 75. 2. 17. 형집행정지 출소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16. 77노226] [대법 1977. 9. 28. 77도 2172]				발언함	대법 강안희,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000)
65	76.	[광주지법 1977. 2. 24. 76고합206] [광주고법 1977. 7. 2. 77노173] [대법 1977. 9. 28. 77도 2327]	긴조 9호, 반공법	000 외 1인 (무직)	징자2, 징자3→징자1.6, 징자2	지법 문영택, 황대연, 양태종 고법 이성렬, 김선석, 하태은 대법 한환진, 김영세, 안병수, 유태홍	75. 6. 간첩 및 국가보안법위반으로 복역 중 1976. 7.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출감(000) 76. 3.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위반으로 징자3.6선고 후 집행중인 자
66	76. 8.	[서울형사지법 1977. 3. 2. 76고합 902] [서울고법 1977. 6. 1. 77노 533]	긴조 9호, 반공법	000 (중학교사)	징자1→ 징자1집2	지법 한정진, 유지담, 조용무 70 조 언, 고중석, 이철환	
67	76. 7.	[전주지법 1977. 3. 4. 76고합144] [광주고법 1977. 7. 5. 77노141] [대법 1979. 4. 25. 77도	긴조 9호, 반공법	000 (부동산개업)	징자1→ 징자1집2	지법 오병선, 노재승, 강길봉 고법 이성렬, 김선석, 하태은	피고인 사망으로 공소기각(대법 1979. 6. 12 77도 2727)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2727]				침범해서 발생한 것이다, 남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수가 이복과 같다, 김일성, 박정희가 무슨 공공이속이 있다"등의 발언을 함	대법 유태홍,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68	76. 12. 4	[서울형사지법 1977. 3. 16. 76고합 1123] [서울고법 1977. 6. 24. 77노 580]	긴조 9호	김숙원 (사원)	징자3→ 징자2	지법 고법 한정진, 유지담, 조용무 김상원, 이철환, 김규복	
69	76. 7.	[부산지법 1977. 3. 17. 76고합913] [대구고법 1977. 7. 16. 77노292] [대법 1977. 10. 31. 77도 2489]	긴조 9호, 반공법, 국가모독	000 (회사원)	징자7→ 징자3	지법 고법 대법 윤경현, 이신섭, 장운기 최재호, 박준용, 송진훈 김영세, 한환진, 안병수, 유태홍	망상형 정신분열 증으로 인한 사물 변별능력, 의사결정능력 미약상태 인정
70	76.	[서울지법 수원지 원 1977. 3. 21. 76	긴조 9호	000 (무직)	징자7 →징자4	지법 이상범, 이치호, 전봉진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고합88] [서울고법 1978. 6. 8. 77노 606] [대법 1978. 8. 22. 78도1626]				같이야 승복하지, 중정은 국내 최고악당 집결소며 박정희 전용 화장실이다, 중정에서 최중길 교수를 고문하여 빨갱이로 몰아 죽이고 자살로 발표했다, 긴급조치는 계엄령보다 더 강한 강압적 지배방식이다 등의 내용으로 작성하여 같이 수감되어 있던 긴조 9호위반 복역수에게 위 항소이유서를 돌려가며 읽게 하고 반정부적 발언을 수회에 걸쳐 함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대법 라길조,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71	76. 8.	[서울지법 성북지원 1977. 3. 25. 77고합5] [서울고법 1977. 6. 22. 77노 616] [대법 1977. 9. 13. 77도2210]	긴조 9호, 반공법	000 (무직)	징지3 →징지2	대화중, "이복방송을 들어야 8.18도끼만행사건을 알 수 있다, 이복은 전쟁준비가 다 되어 있다, 000, 000, 000가 외국은행에 많은 돈을 예금해 뒀다, 돈 있는 사람들은 8.18.사건이후 이민못가서 아우성이고, 금값, 딸라값이 뛰어서 서로 살려고 한다"고 말함	지법 변정수, 송영식, 김정남 고법 조 언, 고중석, 이철환 대법 양병호,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술에 취해 심신장애상태 주장
72	76. 9.	[서울지법 성북지원 1977. 4. 1. 76고합245] [서울고법 1978. 3. 10. 77노 662]	긴조 9호	000 (건축업)	징지2집3	대화중 "청와대 박서방이 우리 형님이다, 선거때 표언기 위해 밀양박씨 증친회 간부로 있는 우리 형님에게 돈 30만원을 주고 족보에 옮겨 밀양박씨들이 밀어주어 당선되었다"는 말을 함(허위사실 날조유포)	지법 변정수, 송영식, 김정남 고법 박우동, 안종혁, 김규복	
73	76. 9.	[부산지법 1977. 4. 18. 76고합1056] [대구고법 1977. 8. 31. 77노441] [대법 1977. 11. 22. 77도 2911]	긴조 9호, 반공법	000 (중학교사)	징지2	중학 영어, 국사교사로서, 수업중 "김유신, 김춘추가 삼국을 통일하려고 당을 끌어들이려 나중에 땅을 떼줬는데, 김일성이 남침위해 중공군을 끌어들이려는 점이 비슷하지만, 나중에 땅을 준 것이 없으니 결과적으로는 신사다, 김일성은 6.25전쟁후 황폐해진 북한땅을 지금의 북한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지도자로서는 유능하다, 이복은 교육비도 적게 드는데 우리나라는 많이 든다, 미군이 빨리	지법 오장희, 박장우, 장윤기 고법 이정우, 최종영, 양기준 대법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철수해야만 우리나라가 자립할 수 있다" 등의 발언을 함			
74	76. 11. -77. 2	[군수사보통군법회의 1977. 4. 28. 77보군형공제22호] [육군고등군법회의 1977. 7. 20. 고군형제301호] [대법 1977. 12. 27. 77도 2945]	긴조 9호, 반공법	000(병장), 000(중사)	징자2, 징자1.6→징자2, 징자1.6집3	서울대 농대재학 중 입영, 동료 군인(중사)과 대화 중 모택동 사상 언급(국외공산계열 찬양고무), 빈부격차, 외채문제, 정치뇌물사건 언급(사실왜곡 전파), 주한미군철수와 현 정권이 부패했다고 말함(유언비어 날조유포)	보군 황관영, 이인수, 신학근, 김종성, 전가한 고군 이석립, 하철용, 차진한 대법 강안희,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75	76. 9. 18.	[부산지법 마산지원 1977. 5. 11. 77고합51] [대구고법 1977. 9. 23. 77노 498]	긴조 9호	000 (운수업)	징자1	동료들과 대화중, "000 저격사건범인 000은 김일성이 보낸 것이 아니고 일본 내 교포 중 한국정부 시책 반대하는 극렬분자가 저격하게 한 것이다, 정부시책인 '운수업체 기업화'는 영세차주 못살게 하는 탁상공론식의 시책"이라고 발언함(사실 왜곡전파)	지법 박재봉, 박경규, 손홍익 고법 이정우, 최종영, 양기준	
76	76. 12	[부산지법 1977. 5. 12. 77고합98] [대구고법 1977. 11. 3. 77노512]	긴조 9호, 반공법, 상습절도	000 (무직)	징자5→징자3자2→ 징26자1.6 (형경정)	북한방송을 듣고 "김대중 납치사건은 박정희가 종신대통령을 하기 위해 제저목적으로 한 것이다,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하지 못하도록 미국 국회의 원에게 보석, 돈, 여대생들을 뇌물로 바치도록 지령했다" 등의 표현물을 제작함	지법 윤경현, 이신섭, 장윤기 고법 최재호, 박준용, 송진훈	긴조 해제로 형경정 청구(대구고법 1979. 12. 19. 79초 66)
77	74-76.	[서울형사지법 1977. 5. 19. 77고합 256] [서울고법 1977. 9. 14. 77노 1055] [대법 1978. 1. 17. 77도3402]	긴조 9호, 뇌물수수, 특가법, 뇌물공여	000 외 7인 (공무원), 000 외 2인 (회사대표이사)	징3벌금2, 850만~징26벌금2, 50만→징26벌2, 850만~징1.6집2→ 징2.6집3	보건사회부, 시 보건사회국 공무원, 제약회사 대표이사 등으로서, 방역약품 지정납품 사례조로 뇌물을 주고 받음	지법 안우만, 김동건, 양삼승 고법 조인, 고중석, 이철환 대법 정태원,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긴조 9호의 9항 위반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서울고법 1980. 2. 8. 78노231] [대법 1980. 8. 12. 80도 841]					고법 황선당, 한대현, 박천봉 대법 김윤행, 양병호, 서윤홍	
78	76. 9. 8.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1977. 5. 26. 76고합21]	긴조 9호	000(목사), 000(전도사)	징지2집3	공산당이 강한 것도 경제혼란 오는 것도 다 하나님 뜻이다, 남한 정부가 신정으로 가야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교리책자 숙독후 다른 신도에게 빌려주어 유포(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홍성운, 정극수, 서재현	
79	[대전지법 1977. 6. 9. 76고합53] [서울고법 1976. 11. 12. 76노1291] [대법 1977. 1. 25. 76도 4158]	긴조 9호	000 (노동)	징지1.6 →징지1	주점에서 대화중, '박정희 그 놈이 해놓은 게 무엇이나,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다한 것이지 잘한 것이 무엇이 있어 나라를 외국에 팔아 이용한 것 밖에 더 있느냐' 등의 발언을 함	지법 안우만, 김권택, 유재선 고법 김상원, 정태웅, 홍기배 대법 임항준,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	만취해 심신상실 내지 심신 미약 주장했으나 배척
80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1977. 6. 10. 77고합1] [서울고법 1977. 10. 14. 77노 1114] [대법 1978. 1. 24. 77도3690]	긴조 9호	이범영, 박석운, 백계문(대학생)	징지4→ 징지26	서울대법대생들로서, 유신헌법철폐시위를 할 것을 합의하고, '민주구국선언문' 제하 유인물 300매를 제작하고 128. 도서관 등지에서 배포하고 구호를 외치고 시위를 주도함	지법 이원배, 조홍은, 민형기 고법 김상원, 홍기배, 정귀호 대법 임항준,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	
81	[서울형사지법 1977. 6. 18. 77고합 56] [서울고법 1977. 10. 11. 77노 1135] [대법 1978. 1. 31. 77도3599]	긴조 9호	000 (대학공론사 대표)	징지1.6	소위 '대구10.1폭동'에 참가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기형식으로 '건국전야의 비화'라는 제목의 책을 씀(당시 정권이 미군정과 경찰의 실정과 파오로 부득이 발생한 우발적 사건인데도 공산당의 사전 지령에 의한 계획적, 조직적 사건으로 조작했다고 함으로써 사건의 진상 등을 왜곡조작)	지법 한정진, 이기영, 조용무 고법 김상원, 홍기배, 김규복 대법 김윤행, 이영섭, 김용철, 유태홍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82	76. 12	[서울지법 수원지원 1977. 6. 27. 77고합29] [서울고법 1977. 12. 1. 77노1165] [대법 1978. 2. 14. 77도3983]	긴조 9호, 명예훼손	000 (사회복지사업)	징자2→징자1	대회중, "000은 권력잡자 국유지를 헐값에 불하받아 이익을 남겨 340만평 목장등을 치부했고, 박정희 혁명동지인 000 등에게 외자도입특혜를 취치부를 했으며, 유신정부를 거꾸러뜨리려면 민주주의 방식으로 유신헌법을 개정해야한다"고 말함	지법 이상범, 이지호, 전봉진 고법 오석락, 이익우, 정귀호 대법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유태홍	
83	75. 1. -76. 10.	[서울형사지법 1977. 6. 29. 77고합192, 269] [서울고법 1980. 4. 24. 77노1304]	긴조 9호, 특가법, 뇌물수수, 뇌물공여, 알선뇌물공여	000 외 2인(공무원), 000 외 3인(무직), 000	징4벌금27, 500만원 등 →징3벌금80만원, 추징230만원등	건설부 수자원국 공무원, 경찰서장 등으로 하천공사에 관한 공작물설치허가, 하청공사 허가조건 및 실시계획변경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음	지법 한정진, 이기영, 조용무 고법 김형기, 이영범, 양인평	긴급조치 9호(특가법상 뇌물죄)위반
84	76. 7.	[서울형사지법 1977. 7. 12. 77고합317] [서울고법 1977. 10. 21. 77노1242] [대법 1978. 1. 18. 77도3671]	긴조 9호	000 (회사원)	징자1→징자1집2	대회중, "대통령선거에 혼자 나와 혼자 당선되는게 무슨 선거냐, 000와 XX를 맺었다, 000은 청와대 비서실장당시 돈을 많이 벌어서 대통령 선거때 선거자금뒀다"는 말을 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이석선, 김창수, 라정욱 고법 김상원, 이익우, 김규복 대법 양병호,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85	76. 11. 29.	[서울지법 인천지원 1977. 7. 13. 77고합57] [서울고법 1977. 10. 6. 77노1195] [대법 1977. 12. 20. 77도3397]	긴조 9호, 반공법	000 (선장)	징자1→징자1집2	잡담 중 동료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집권하고 김대중 납치사건이 중앙정보부가 한 일"이라고 말하고(사실왜곡전파, 유언비어유포), "우리나라도 80년대에는 이북과 전력이 같아진다"고 함(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지법 김훈경, 권성, 김호중 고법 오석락, 이익우, 정귀호 대법 이일규,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86	76. 3.	[대구지법 1977. 7. 20. 77고합69] [대구고법 1977. 12.	긴조 9호, 반공법	000 (무직)	징자10→징자8→징자26(형경정)	대구정화여중 물상과목 담당교사로 재직 중, 수업시간에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및 동조하고 정부고위관료들의 부패에 대해 유언비어 날조 유	지법 신선근, 이석우, 박효열 고법 박돈식, 양기준	긴조 해제로 형경정청구(대구고법 1979. 12. 19. 79초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13. 77노807 [대법 1978. 2. 28. 77도 4058]				포	<table border="1"> <tr> <td>대법</td> <td>조열래</td> <td rowspan="2">65)</td> </tr> <tr> <td></td> <td>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td> </tr> </table>	대법	조열래	65)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대법	조열래	65)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87	76. 5.	[춘천지법 원주지원 1977. 8. 18. 77고합22] [서울고법 1977. 11. 10. 77노 1441] [대법 1978. 1. 10. 77도3730]	긴조 9호, 반공법	000 (농업)	징자3 →징자1	<table border="1"> <tr> <td>지법</td> <td>윤상목, 신명균, 김상철</td> <td rowspan="3"></td> </tr> <tr> <td>고법</td> <td>오석락, 이익우, 정귀호</td> </tr> <tr> <td>대법</td> <td>임항준,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td> </tr> </table>	지법	윤상목, 신명균, 김상철		고법	오석락, 이익우, 정귀호	대법	임항준,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	
지법	윤상목, 신명균, 김상철													
고법	오석락, 이익우, 정귀호													
대법	임항준,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													
88	76. 9.	[서울형사지법 1977. 8. 24. 77고합 204, 325] [서울고법 1977. 12. 14. 77노1736] [대법 1978. 3. 14. 78도 17]	긴조 9호, 사기, 변호사법	000 외 1인(무직), 000(국제개발협회이사장), 000(회사대표)	징4자2(김갑하), 징1.6(진홍춘), 징1집2(심인수, 김기환)→징자2(김갑하), 징1집2(김기환)	<table border="1"> <tr> <td>지법</td> <td>한정진 이기영, 조용무</td> <td rowspan="3"></td> </tr> <tr> <td>고법</td> <td>조 언, 이철환, 김학세</td> </tr> <tr> <td>대법</td> <td>강안희,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td> </tr> </table>	지법	한정진 이기영, 조용무		고법	조 언, 이철환, 김학세	대법	강안희,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지법	한정진 이기영, 조용무													
고법	조 언, 이철환, 김학세													
대법	강안희,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89	76. 11.-12	[서울형사지법 1977. 8. 31. 77고합 222] [서울고법 1977. 12. 1. 77노 1517] [대법 1978. 3. 14. 77도3984]	긴조 9호	000 (무직)	징자1.6 →징자1→파기환송	<table border="1"> <tr> <td>지법</td> <td>한정진 이기영, 조용무</td> <td rowspan="3">대법,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왜곡하여 말하는 경우 긴급조치의 '전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td> </tr> <tr> <td>고법</td> <td>오석락, 이익우, 정귀호</td> </tr> <tr> <td>대법</td> <td>김윤행, 이영섭, 김용철, 유태홍</td> </tr> </table>	지법	한정진 이기영, 조용무	대법,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왜곡하여 말하는 경우 긴급조치의 '전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고법	오석락, 이익우, 정귀호	대법	김윤행, 이영섭, 김용철, 유태홍	
지법	한정진 이기영, 조용무	대법,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왜곡하여 말하는 경우 긴급조치의 '전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고법	오석락, 이익우, 정귀호													
대법	김윤행, 이영섭, 김용철, 유태홍													
90	76. 6.	[서울형사지법 1977. 10. 26. 77고합77] [서울고법	긴조 9호	000 (무직)	징자3→ 징자1.6	<table border="1"> <tr> <td>지법</td> <td>한정진, 이기영, 조용무</td> <td rowspan="2"></td> </tr> <tr> <td>고법</td> <td>조 언, 이철환,</td> </tr> </table>	지법	한정진, 이기영, 조용무		고법	조 언, 이철환,			
지법	한정진, 이기영, 조용무													
고법	조 언, 이철환,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1978. 3. 29. 77노 1823] [대법 1978. 6. 13. 78도1075]				과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은 진다, 박정희가 여배우들과 관계했다, 김일성을 핑계로 박정희가 독재를 하고 있다, 유신헌법은 박정희가 독재하기 위한 도구다, 언론탄압은 한국이 제일이다, 기사도 정부에서 이렇게 쓰라고 정해준다' 등의 말을 함	김학세 대법 김용철, 이영섭, 김윤행, 유태홍		
91	76. 3.	[서울형사지법 1977. 10. 28. 77고합666] [서울고법 1978. 3. 8. 77노 1920] [대법 1978. 5. 23. 78도895]	긴조 9호	000 (무직)	징자1. 6→ 징자1	대화중, "000이가 일을 잘못해 000가 권총으로 썼는데 팔에 부상을 입고 외국에 치료하려고 갔다"고 말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허정훈, 정용인, 김황식 고법 조 언, 이철환, 김학세 대법 이영섭, 양병호, 김용철, 유태홍	
92	76. 11.	[서울형사지법 1977. 12. 23. 77고합737] [서울고법 1978. 3. 30. 78노 179]	긴조 9호	000 (이용업)	징자3집5	본인 이발관에서 대화중, "정일권, 박정희 그것들 다 일본군 출신이다, 형편없는 것들이야, 우리 독립군을 얼마나 많이 잡아넣고 못살게 했는데 그 래"라고 말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허정훈, 이종욱, 우의형 고법 오석락, 김학세, 김성만	
93	76. 3. 24.	[서울지법 성북지원 1978. 3. 10. 78고합19] [서울고법 1978. 7. 28. 78노 452] [대법 1978. 10. 10. 78도2269]	긴조 9호	박남수 (천은교회 지도교사)	징자1	한국신학대 학생으로 유신헌법철폐, 긴급조치해제 주장하는 '한신선언문' 200매를 교내에 배포함 (헌법폐지주장, 선동, 긴조비방)	지법 이순우, 강홍주, 양동관 고법 박우동, 안종혁, 정지형 대법 유태홍,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94	76. 1.	[서울지법 수원지원 1978. 3. 20. 76고합161] [서울고법 1980. 10. 11. 78노	긴조 9호, 사문서위조 동행사, 협박	000 (무직)	징자4→ 징8월집2(사문서 위조 무죄, 긴조 면소)	대화중, "김대중이를 중정에서 일본에 가서 납치 해다가 배에 싣고 오면서 손발에 쇠못치를 달아 현해탄 앞바다에 수장시키려 했으나 미국이 미행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박정희가 별두개를	지법 이상범, 김창수, 장세두 고법 황도연, 정용인, 김중곤	긴조 해제로 면소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511]				날치기로 댔다, 000을 죽이려고 했으나 못 죽이고 미국으로 추방시켰다" 등의 발언을 함			
95	76. 8. 26. [서울형사지법 1978. 5. 2. 78고합19] [서울고법 1978. 10. 6. 78노742] [대법 1979. 12. 26. 78도2786] [서울고법 1984. 10. 12. 80노199]	긴조 9호, 형령	000 (한국종교협의회 사무총장)	징자2→징자1→면소(긴조 9호), 무죄(형령)	8. 26. 당시 사기죄로 구속중인 000이라는 사람의 처로부터 동인의 억울함을 해명하는 광고를 동아일보에 의뢰해 줄 것을 부탁받고 광고료 명목으로 금 100만원을 받아 동아일보에 금 60만원을 제공하고 잔금 40만원을 동인의 처에게 반환하지 않고 형령, 다시 12. 28. 동인의 처로부터 동 명목으로 금 100만원을 받아 금 70만원을 조선일보에 제공하고 30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형령하고 성관판대 재단운영권 포기에 관한 중앙정보부와 문교부측의 부당성에 대해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작성함에 있어 본 탄원서를 동아일보에 광고게재하여 배부케 함(사실왜곡내용의 표현물 제작배포)	지법 고법 대법 고법	김형기, 신성철, 박인호 박우동, 정지형 정태원, 민문기, 이일규, 김용철 오병선, 김정남, 정성욱	긴조 해제로 면소
96	76. 7. [서울형사지법 1978. 12. 27. 76고합985] [서울고법 1977. 5. 12. 77노179]	긴조 9호, 변호사법, 여권법, 허위공문서 작성동행사, 뇌물공여, 수수	000(무허가이민 알선업), 000(영문대서업), 000, 00(무직)	징자3, 징1.6집3, 징1집2→징자2(000)	미국이민 희망자들로부터 수수착수금 등을 받고 신원확인서, 해외이주자카드 등을 작성해 해외이주허가를 받게 하고, 미군과 약혼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한 여권신청서를 작성해 여권을 발급 받게 하고(000), 출장하여 실제거주여부 등 신원조사해야함에도 직접 조사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록한 신원조사서 작성하여 상부에 보고함(000, 00)	지법 고법	김윤경, 이상경, 라정욱 오석락, 이익우, 정귀호	
97	76. [서울형사지법 1979. 1. 26. 78고합747] [서울고법 1979. 4. 12. 79노280]	긴조 9호	000 (운전수)	징자4→징자2	택시운전사로 승객과 대화중, "조그만 XXX XX가 자기 부인도 백발백중의 명사수를 시켜 죽였다, 그 놈은 김일성만도 못한 놈이다" 등의 말을 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고법	최병규, 이상문, 박성철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5)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제정 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사건(1977. 발생)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1	77. 4.	[서울형사지법 1976. 2. 17. 75고합1039] [서울형사지법 1977. 7. 14. 77고합363] [서울고법 1977. 11. 3. 77노1246, 76노673]	긴조 9호	이혜경(주간시민기자), 고평순, 배경순(대학생)	징자1집2 (배경순), 선고유예(고광순)/ 징자1(이혜경, 고평순)→징자1집3(고광순)	수도여사대, 이대생들로서, 75. 9. '2천 수도인의 합성'제하의 유인물 150매를 작성하여 그 중 10매를 고평순에게 주어 이대에도 뿌려달라고 하고, 이대 강의실에서 동료학생에게 배포함(배경순, 고평순)/77.1.4. 사이 이대생 홍미영 등에게 예비시간 끝나고 대강당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기로 하였으나 예비에 그침	지법 전상석, 제차룡, 강기원/안우만, 김동건, 양승태 고법 오석락, 이익우, 정귀호	
2	77. 1.	[춘천지법 1977. 5. 12. 77고합1] [서울고법 1977. 9. 7. 77노925]	긴조 9호	000 (버스 조수)	징자2→ 징자1	대화중, "미국케네디 의원과 김대중이 친해 3.1명동사건으로 구속된 인사가 미대통령 취임이후 풀려날 것이다, 현 정부는 장기집권을 하고 있고 학도호국단, 유신헌법은 장기집권을 위해 만들어졌고, 새마을 반상회, 사랑방 좌담회는 내년 선거전략이며, 동아일보 광고해약사태는 언론탄압정책이고, 신민당 전당대회 난투극은 공화당에서 자금을 댄 신민당 분열책이다"라고 말함(사실왜곡, 유언비어 유포)	지법 김대환, 정태세, 박태훈 고법 조 언, 고중석, 이철환	
3	77. 2.	[춘천지법 1977. 5. 26. 77고합17] [서울고법 1977. 9. 7. 77노922]	긴조 9호	000 (언론인)	징자1.6→ 징자1집2	경향신문 강원도청 출입기자로, 강원도청 기자실에서 "문선명의 사업체인 일화인삼차 사장을 구속한 것은 문선명이 미국 포드대통령 선거운동을 하였으나 낙선되고 카터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문선명을 나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말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김대환, 정태세, 박태훈 고법 조 언, 고중석, 이철환	
4	77. 2.	[춘천지법 1977. 5. 26. 77고합14] [서울고법 1977. 9. 7.	긴조 9호	000 (운전기사)	징자1.6→ 징자1.6집3	대화중, "금년도 서해안섬에 간첩 60명이 침입하여 그 중 1명이 자수하기 위해 예비군을 찾아가 자수하니 네가 무슨 간첩이나 하면서 농담으로 넘겼다, 예비군	지법 김대환, 정태세, 박태훈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77노1008]				이 무력하다"고 말함(유언비어 날조유포)	고법 조 인, 고중석, 이철환		
5	77. 3. 14	[부산지법 전주지 원 1977. 5. 30. 77 고합23] [대구고법 1978. 2. 9. 77노 550] [대법 1978. 5. 9. 78도565]	긴조 9호	000 (무직, 전직 초등학교 교장)	징자2집3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이승만 때는 학생이 데모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못한다, 박정희는 정권을 물려 줘야 한다, 미군철수도 박정희가 하게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윤석명, 이규홍, 강문룡 고법 박돈식, 양기준, 조열래 대법 이영섭, 양병호, 김용철, 유태홍		
6	73-77. 4.	아래	긴조 9호, 외국화관 린법, 알선뇌물 공여, 특가법, 조세범처 벌법, 명예훼손 등	000 (대표이사), 000 (국회의원)	무기징역, 벌22억(000), 징7벌1억9천→ 징6벌4억5천, 징5→징5벌4억 5천(000)	대평연합상사 대표이사(000), 8, 9대 민주공화당 국회의원(000)로서, 000은 농협중앙회의 비료 공급중개영업을 함에 있어 외국비료공급상들과의 중개수수료, 내정 가격 이상의 비싼 값으로 농협수입가격을 정해 농협 이 비싸게 대금지출케 하고 실제 지급대금과의 차액을 국외로 이동은닉할 것을 기도하여 일본 비료회사 와의 계약에 있어 중개수수료 등을 뉴욕소재 스미토 모 아메리카 상사에 예치하고, 000은 농협소요 비료계 약을 위해 000에게 청탁을 받고 농수산부 장관인 000 을 소개하여 주고 뇌물을 받음	지법 한정진, 이기영, 조용무 고법 김영진, 황상현, 윤우정 대법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이희창 고법 이일영, 이호원, 윤형한 대법 윤영철,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긴조 9호 3항 위반
<p><사건번호> [서울형사지법 1977. 6. 10. 76고합1119, 77고합146, 77고합235, 77고합283] [서울고법 1981. 12. 18. 77노1239] [대법 1984. 4. 10. 82도766] [서울고법 1989. 6. 30. 84노1173] [대법 1990. 5. 11. 89도1597]</p>								
7	77. 2	[대구지법 1977. 6. 15. 77고합90] [대구고법 1978. 2. 9. 77노692] [대법 1978. 4. 25. 78도 550]	긴조 9호	000 (기자)	징자3집5 일본 KCI통신사 부사장으로, 대화중, '정부요인, 재벌 들은 유사시 망명위해 유람선으로 위장된 피난용 요 트를 대기시켜 놓고 있고, 000도 미국망명요청한 바 있다는 발언을 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신진근, 이석우, 박효열 고법 박돈식, 양기준, 조열래 대법 이영섭, 양병호, 김용철, 유태홍		
8	77. 3.	[춘천지법 강릉지	긴조 9호	000	징자2집3 잡화가게 안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면서 "금년들어 공	지법 김중수, 오행남,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원 1977. 6. 21. 77고합33]		(농지개발조합 임사직원)		군비행기 한대가 이북으로 넘어갔다"고 말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윤정보		
9	77. 2	[부산지법 1977. 6. 30. 77고합213] [대구고법 1979. 10. 20. 77노718] [대법 1978. 2. 14. 77도 3609]	긴조 9호, 공갈미수	000 (점원)	장2단1.6자2→ 단2장2.6자3	3.1명동성당사건으로 김대중 등 재야인사들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김대중에게 익명으로 '75년 대통령 선거때 000가 모기업체로부터 20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내용을 편지를 보내고, 연대 등 각 대학 학생회장들에게 대통령을 바꾸는 거사에 함께 참여하자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려다 우편검열로 수거됨으로써 미수에 그침	지법 윤경현, 이신섭, 장운기 고법 최재호, 박준용, 송진훈 대법 유태홍, 이영섭, 김운행, 김용철	
10	77. 3.	[서울형사지법 1977. 7. 5. 77고합 350] [서울고법 1977. 10. 20. 77노 1283]	긴조 9호	000 (주부)	정자1.6	피고인의 남편이 000의 고소로 변호사법으로 구속되자, 000이 대통령모독하는 말을 한 것처럼 날조하여 이를 이용 고소취하를 받을 것을 결의하고 사람들이 듣는데서 박대통령이 000과 XX했다는 말을 000이 했다고 말함(유언비어 유포)	지법 이석선, 김창수, 라정옥 고법 오석락, 이익우, 정귀호	
11	77. 1.	[서울형사지법 1977. 7. 8. 77고합 342] [서울고법 1977. 11. 2. 77노 1196] [대법 1978. 2. 14. 77도3728]	긴조 9호	000 (목사)	정자6 →정자3	대화중, "정부에서 비협조적 목사들을 위협하고 고문한다, 000 저격사건은 사실은 000가 정권연장위해 해치운 것이다, 000 사망도 위장한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함	지법 허정훈, 김승묵, 김황식 고법 조 언, 고중석, 이철환 대법 한환진, 김영세, 안병수, 정태원	
12	77. 3. 5.	[서울형사지법 1977. 7. 13. 77고합245] [서울고법 1977. 10. 14. 77노 1279] [대법 1978. 1. 24. 77도576]	긴조 9호, 집시법	박광태 (상업)	정자2 →정자1	민주통일당 전남지구당 창당준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중앙당 정기총회에서 민주회복투쟁을 행동으로 보이기 위해 가두시위를 하기로 하고 당사건물 도로상에서 옥외시위를 하고, 건물 창가에 화성기를 이용해 결의문을 낭독하고, 긴급조치 해체, 구속인사석방 등 구호를 외치고 박정희 정보정치와 폭력정치를 타도하자고 외침	지법 한정진, 이기영, 조용무 고법 김상원, 홍기배, 정귀호 대법 양병호, 김영세, 한환진, 정태원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13	77. 4.	[대전지법 천안지원 1977. 7. 13. 77고합19] [서울고법 1977. 11. 11. 77노1245] [대법 1978. 1. 24. 77도3810]	긴조 9호	000 (행상)	징자2→ 징자1.6	주점에서 음주중 식사차 들른 면사무소 공무원들에게 "박정희는 죽어야 한다, 국가원수 좋아하네, 농민이 불쌍하다, 박정희가 정치를 잘못해서 공무원들이 농민을 착취한다, 김대중이가 더 똑똑한데 힘을 못쓰게 한다, 박정희를 4. 28. 내가 죽인다" 등의 발언을 함	지법 공아도, 이순영, 박용상 고법 김상원, 홍기배, 김규복 대법 라길조,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항소심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 인정해 형감경
14	77. 2.	[서울형사지법 1977. 7. 13. 77고합287] [서울고법 1977. 10. 6. 77노1329]	긴조 9호	00 (탤런트)	징자1집2	국방부 제작의 '새마을 새물결'이라는 영화에 육군사병으로 출연하던 중, 잠담하다 "000이 영화배우와 모종의 씬셈이 있다, 앞으로 육사에는 많은 혜택이 있을 거다"라는 발언을 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한정진, 이기영, 조용무 고법 오석락, 이익우, 정귀호	
15	76. 10. -77. 2.	[서울형사지법 1977. 7. 13. 77고합254] [서울고법 1977. 10. 6. 77노1345] [대법 1977. 12. 27. 77도3448]	긴조 9호	000(무직, 전직 CIC 정보관, 육군소위, 미 CIA 망원활동)	징자5	대화 중 "미국이 유신체제를 해체하고, 박대통령을 하야시키려고 하고, 000이 부동산 등을 축재, 000가 주한미대사관에게 뇌물주고, 박동선 사건관련한 미인사가 150여명으로 수뢰자들 중에 포드, 키신저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말을 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한정진, 이기영, 조용무 대법 라길조,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16	77. 4.	[서울형사지법 1977. 7. 14. 77고합356] [서울고법 1977. 11. 2. 77노1247] [대법 1978. 2. 14. 77도3729]	긴조 9호	인태선 (한국기독교장로회 청년회장)	징자3→ 징자2	77신앙 고백선언 제하 유인물을 제작하여 4. 24. 향린교회 연합예배서 사회를 주도하면서 구속인사 등을 위한 기도를 하고 유인물을 배포, 낭독하고 자유민주주의 만세 3창을 하며 교회 앞 거리에서 플래카드를 펼쳐 시위함	지법 안우만, 김동건, 양승태 고법 조 언, 고종석, 이철환 대법 강안희,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17	77. 4.	[서울지법 인천지원 1977. 7. 29. 77고합76] [서울고법 1977. 12. 2. 77노]	긴조 9호, 변호사법, 횡령	000 (농업)	징자1→ 징자1집2	동리거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3명과 대화중, "사기 및 도박죄로 구속되어 있을 때 같이 수감되어 있던 사람이 '000를 김일성 첩으로 보내면 이복이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을 해 구속되었다"고 말함.	지법 최병규, 김중곤, 이문재 고법 박우동, 안종혁, 김규복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1368]						
18	77. 2	[서울지법 성북지 원 1977. 7. 30. 75 고단172, 77고합54] [서울고법 1977. 11. 9. 77노1367] [대법 1978. 1. 31. 77도3809]	긴조 9호, 공문서위 조동행사, 국가모독, 경범죄처 벌법	전대열 (통일당 선전국장)	징자2→ 징자1	민주통일당 당보 제작실무책임자로서 긴급조치를 비 판하는 양일동 대표최고위원의 송년사를 게재배포하 고, 민주수호국민협의회 선언문의 내용을 내외신기자 들에게 배포하고(국가안전과 위신을 해함), 민주청년협 의회 창립선언문 등 유인물을 보관함	지법 변정수, 송영식, 김정남 고법 조 언, 고중석, 이철환 대법 김용철, 이영섭, 김운행, 유태홍
19	77. 4. 19.	[전주지법 1977. 8. 17. 77고합52] [광 주고법 1977. 11. 24. 77노379]	긴조 9호	최인규, 손인범, 최갑선(학생)	징자2(최인규), 징1-1.6자1(손 인범), 징1.6자1집3(최 갑선)→징1.6자 1집3(손인범)	기독교학생회원으로 활동 중인 전북대학생들로, 4.19.기 념일을 전후하여 시위를 결의하고 '고난동참투쟁선언' 이라는 제목 하에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유신체제의 철폐와 구속학생과 교수의 석방 언론탄압중지, 학원자유보장' 등 내용의 원고를 유인 물로 작성하여 전주시내 교회와 전북대 구내에 배포 (사실왜곡 표현물 배포)	지법 오병선, 노재승, 강길봉 고법 이성렬, 김선석, 하태은
20	77. 2	[광주지법 1977. 8. 18. 77고합66] [광 주고법 1977. 11. 10. 77노362]	긴조 9호	000 (상업)	징자3→ 징자1.6	대화 도중, "박정권은 언제 무너지겠느냐, 자신이 김대 중 선거참모였으며 부정선거로 김대중이 낙선된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며 자신이 입을 열면 여러 사 람이 다칠 상황이었는데 정보부 김모국장이 찾아와 눈감아 달라고 부탁한 바 있다"고 말하고, 1972 대통 령선거와 통일주체국민대회의 대의원제도 등에 관한 비판발언	지법 문영택, 김상기, 양태중 고법 이성렬, 김선석, 하태은
21	76. 12 18. -77. 5.	[서울형사지법 1977. 8. 19. 77고합20, 355] [서울고법 1977. 11. 30. 77노1488] [대 법 1978. 3. 14. 77도	긴조 9호	이재오(교사), 최동전(출판업), 정수일(농업)	징자3-징자2→ 징자1.6(이재오 , 최동전), 징자1(정수일)	극단 '상황'대표인 이재오는 본인이 연출한 단막극에서 우리나라가 안보를 빙자해 인권탄압을 자행하다 카터 미 대통령으로부터 굴욕적인 외교적 망신 받는 내용으로 묘 사하고(사실 왜곡전파), 서울시내에 뿌려진 긴급조치 해 제, 유신철폐 주장하는 유인물은 KCIA와 미CIA가 민주	지법 이석선, 김창수, 라정옥 고법 조 언, 이철환, 김학세 대법 민문기, 이일규,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4102]				화운동 방해목적으로 조작했을 수도 있다고 함(정부기관 개입 등의 유언비어 날조유פו)	강안희, 정태원	
22	77. 1.	[육군보통군법회의 1977. 8.30.77보군형공제66호] [육군고등군법회의 1978.12.7 77고군형항제678호] [대법 1978.3.14.78도204]	긴조 9호	000 (하사관후보생)	징자1	보군 이규석 고군 박종남, 신학근, 이인수, 김종성, 서인후 대법 라길조,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23	77. 4.	[서울지법 수원지원 1977. 8. 31. 77고합87] [서울고법 1977. 11. 4. 77노1489]	긴조 9호	00 (중학교사)	징자3	지법 이상범, 이치호, 전봉진 고법 김상원, 홍기배, 김규복	
24	74. 3. -77. 2.	[서울지법 성북지원 1977. 9. 3. 77고합76] [서울고법 1978. 1. 19. 77노1487] [대법 1978. 4. 25. 78도317]	긴조 9호, 반공법, 병역법, 주민등록법	장기표	징자5→징자3 (민중의 소리 교부의 점은 무죄)→징자26	지법 변정수, 송영식, 형집행 중 긴조 김정남 9호 해제로 긴 고법 오석락, 이익우, 조부분은 형집 정귀호 행면제(형경정청 구. 서울고법 대법 양병호, 주재황, 1979. 12. 29. 79 임항준, 라길조 초112)	
25	77. 4. 7.	[청주지법 1977. 9. 6. 77고합68] [서울고법 1977. 12. 16.	긴조 9호	000 (대명중동구락부장)	징자2	지법 유효봉, 임승균, 문윤길 고법 박우동, 안종혁,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77노1546] [대법 1978. 2. 28. 78도 32]				을 논의, 발기문 10매를 작성 및 살포	대법 김규복 강안희,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26	77. 4.	[광주지법 1977. 9. 19. 77고합62] [광주고법 1978. 2. 2. 77노432]	진조 9호	조봉훈 (대학생)	진자1집2	전남대생으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산하 한국기독교 청년회 전남지구 총무로서, 배호경과 공모하여 광주 기독교부녀회 강당에서 예배중인 회원들을 상대로 자유민주주의 회복, 교회사찰행위중지, 선교자유보장, 언론집회탄압중지 등의 결의문을 배포	지법 심의섭, 서석구, 정창환 고법 이성렬, 김선석, 하태은	
27	77. 1.	[광주지법 1977. 9. 19. 77고합71] [광주고법 1977. 12. 22. 77노430] [대법 1978. 2. 28. 78도 21]	진조 9호	00(약사), 000(전도사), 000(무직)	진자1(00, 000), 진자1집2(000)	기독교장로회 청년연합회 회장 등 간부들로서, 광주 양림교회 신앙강좌회에 참석해 민주회복인사석방, 자유민주주의 회복, 언론탄압중지, 선교자유보장, 박동선 뇌물사건 진상규명 등의 내용을 담은 '우리의 고백' 제하 유인물을 작성배포하고, 유신헌법철폐 내용의 결의문을 작성해 부활절예배시 배포할 것을 예비	지법 심의섭, 서석구, 정창환 고법 이성렬, 김선석, 하태은 대법 양병호,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28	77. 3.	[대전지법 홍성지원 1977. 9. 21. 77고합28] [서울고법 1977. 12. 15. 77노 1565]	진조 9호	000 (조선일보 보급소장)	진자3→ 진자2집3	대화중, "독도는 박대통령이 일본에 팔아먹었다더라"고 말함(사실왜곡전파)	지법 김억규, 황상현, 박찬주 고법 오석락, 이익우, 정귀호	
29	77. 5.	[부산지법 진주지원 1977. 9. 26. 77고합61, 77고단360] [대구고법 1978. 1. 25. 77노951]	진조 9호, 절도	000 (행상)	진자2	철도죄로 복역중, 재소자들과 대화중 "박정희는 장기 집권 독재다, 행상하는 사람들은 살기가 예전보다 못하다, 이북에서 귀순한 사람이 말하는 것도 여기서 전 부조작하는 것이다" 등의 말을 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윤석명, 박국홍, 강문종 고법 이정우, 최종영, 안석태	
30	77. 4. 20.	[서울 형사지법 1977. 9. 28. 77고합 489] [서울고법	진조 9호	성종대 (대학생)	진자1.6	"유신정권은 긴급조치로 국민기본권억압, 정권연장에 혈안되어 있다"는 내용의 유인물 작성하여 교내에 배포(사실왜곡 및 긴급조치9호 비방하는 표현물 제작,	지법 한정진, 이기영, 조용무 고법 오석락, 이익우,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1977. 12. 15. 77노1623] [대법1978. 3. 14. 78도31]				배포)	정귀호		
						대법	한환진, 김영세, 안병수, 정태원	
31	77. 3. 28.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1977. 9. 28. 77고합104, 134] [서울고법 1977. 12. 28. 77노1673] [대법 1978. 3. 14. 78도199]	긴조 9호	김천우, 박찬우, 양춘승(대학생)	징자3→징자1.6	서울대생들로, 학도호국단해체, 학원사찰 중지, 독도영유권문제, 미국, 일본에 공여한 뇌물사건으로 국제적 위신 추락회복위한 자주외교실행, 긴조해제, 생존권보장 등을 주장하는 '민주구국선언문' 800매를 제작하고 3. 28. 교내에서 학생들을 모이게 해 위 선언문을 낭독하고 배포함	지법 고법 대법	이원배, 조홍은, 민형기 조 인, 이철환, 김학세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	
32	77. 3. [춘천지법 1977. 9. 29. 77고합35] [서울고법 1977. 12. 30. 77노1622]	긴조 9호	000 (교교 교사)	징자1.6→징자1.6집3	교교 영외교사로 77. 3. 간디수상정권의 선거패배기사를 보고, 인도정권의 붕괴과정을 한국 정치체제에 비유하고 김영삼이 대한민국 지도자가 되어 신정을 해 주길 바라는 내용의 '신이여!' 제하 유인물을 작성하여 중학 동창인 김영삼 의원에게 우송함(헌법비방)	지법 고법	김대환, 정태세, 박태훈 박우동, 안종혁, 김규복	
33	77. 4. 4. [전교사보통군법회의 1977. 9. 29. 77형공제151호] [육군고등군법회의 1978. 1. 18. 77고군형항제710호] [대법 1978. 3. 28. 78도364]	긴조 9호, 군무이탈	000 (이병)	징자2	군인신분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YWCA 강당에서 유신헌법, 사회제도개혁, 언론집회탄압 중지 등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함(헌법개정 주장선동)	보군 고군 대법	박춘서, 정순일, 서용석 정운호 임항준,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	
34	77. 5. 11. [서울지법 성북지원 1977. 9. 30. 77고합114] [서울지법 성북지원 1977.	긴조 9호	박창수, 진 철, 임성현, 김광훈(대학생)	징자2→징자3(박창수)	한국신학대생들로서, 교내시위를 결의한 후 유신헌법 철폐, 긴급조치즉각해제, 현정권 하야를 내용으로 하는 '신앙고백선언서'를 작성하여 유인물을 제작하고 5. 11. 예배실에서 예배후 선언서를 낭독하고 구호를 외	지법 고법	이순우, 송영식, 김정남 박우동, 안종혁, 김규복	긴조 9호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병합됨(박창수)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12 16. 77고합213] [서울고법 1978. 2. 24. 77노1737, 78노 96] [대법 1978. 6. 13. 78도747]			치러다 학장, 학생과장 등 교수들에게 유인물을 빼앗겨 미수에 그침	대법 임항준, 주재황, 한환진, 라길조	
35	77. 3. 25.	[서울지법 성북지 원 1977. 9. 30. 77고합 82] [서울고 법 1978. 2. 28. 77노1670, 78노135] [대법1978. 5. 23. 78도813]	긴조 9호 오용식, 이영재, 김하범, 김현수, 정상시(대학생)	징자3(오용식, 이영재), 단2징3지3(김하범, 김현수), 징자2(정상시) →징자26~징자2	한국신화대생들로서, 오용식은 현정부비판의 신앙고백서를 작성하여 호국단명의로 발표할 것을 기도, 이영재, 김현수로 하여금 집회 시위를 교사하여 행동케하고, 정상시대, 이영재, 김하범, 김현수는 공동하여 학내에서 위 유인물을 배포하여 집회 주도	지법 변정수, 송영식, 김정남 고법 조 언, 이철환, 김학세 대법 강안희, 이영섭, 이일규, 정태원	
36	77. 3.	[서울형사지법 1977. 10. 7. 77고합585] [서울고법 1978. 2. 24. 77노1671] [대법 1978. 5. 9. 78도718]	긴조 9호 000 (무직)	징자3→ 징자26	대화중, "서울대는 데모를 막기위해 관악캠퍼스로 옮겼다, 박정희가 불치병에 걸려 있다"고 말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허정훈, 김승목, 김항식 고법 박우동, 안종혁, 김규복 대법 라길조,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37	77. 6. 27.	[서울지법 성동지 원 1977. 10. 7. 77고합124] [서울고 법 1977. 12. 29. 77노1735] [대법 1978. 4. 25. 78도 139]	긴조 9호 000 (무직, 전직 육군소령, 원호처 원호과장)	징자1→ 징자1집2	술을 마시고 버스안에서 승객들에게 "자주국방은 말뿐이고 현사태는 6·25사변때와 다를 것이 없다, 박정희가 독재정치를 하고 있다, 한국적 민주주의는 그 자체 모순이고 민주주의는 말뿐이다, 국민들을 말도 못하게 잡아기둔다"는 등의 발언을 함(사실왜곡전파)	지법 박창래, 홍일표, 안성희 고법 오석락, 이익우, 정귀호 대법 강안희, 이영섭, 정태원, 이일규	
38	77. 5. 10.	[대구지법 1977. 10. 12 77고합187]	긴조 9호 000 (인장업)	징8월자1	청도읍에서 합승한 택시에서 동승자들과 이야기하던 중, 000의 죽음에 대해 "000는 자살하였다, 000은 내 6	지법 신진근, 이석우, 박효열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 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 고	
	[대구고법 1978. 1. 26. 77노1009]				년 후배라서 잘 안다"라고 말함(사실 왜곡전파)	고법	박돈식, 양기준, 조열래	
39	77. 4.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1977. 10. 12. 77고합119] [서울고법 1978. 2. 24. 77노1797] [대법 1978. 5. 9. 78도 717]	긴조 9호	박종열 (무직)	징자2	박형규 목사의 아들로서, 문익환 목사의 처 박용길로부터 '민주구국헌장'을 교부받아 서울대 철학과 4년 김재명에게 교부하고, 기독교인들의 인권과 민주회복을 위한 모임을 소개하고 학원의 언론자유를 소생시키자는 내용의 '격문'제하 유인물을 소지함	지법 고법 대법	이원배, 조홍은, 민형기 박우동, 안종혁, 김규복 김용철, 이영섭, 양병호, 유태홍
40	77. 4. 12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1977. 10. 12. 77고합109] [서울고법 1978. 2. 23. 77노1771] [대법 1978. 5. 9. 78도 746]	긴조 9호	김재명, 오세범, 정의현(대학생)	징자3→징자2 (오세범, 정의현), 26(김재명)	서울대학생들로서 교내에서 시위를 벌이기로 하고 학도호국단해체, 유신헌법폐지, 긴급조치 해제, 국보위법폐지, 대통령 직선제 주장을 내용으로 하는 '사월선언문', '민주구국헌장서문'을 제작하고,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배포함.	지법 고법 대법	이원배, 조홍은, 민형기 오석락, 이익우, 정귀호 김용철, 이영섭, 양병호, 유태홍
41	77. 3-4	[서울형사지법 1977. 10. 15. 77고합379] [서울고법 1978. 1. 23. 77노 1796] [대법 1978. 4. 11. 78도484]	긴조 9호	정명기(전도사), 김정택, 신철호, 임성우, 남호(신학대생)	징자2(김정택), 징자1.6 (정명기), 징자1(신철호, 임성우), 징자1집2(남호)→징자1.6~징자1집2	유신헌법철폐, 긴급조치 해제, 긴조 무효선언을 내용으로 하는 윤보선 외 9명 명의의 '민주구국헌장을 읽고 소지하다 김정택에게 교부하고, 감리교 신학대 명의의 '시국에 대한 결의'를 초안작성해 교내에 배포할 것을 모의하였으나 사전발각됨	지법 고법 대법	한정진, 이기영, 조용무 조 인, 이철환, 김학세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
42	77. 5.	[청주지법 충주지원 1977. 10. 19. 77고합38, 77고단	긴조 9호, 사문서위 조동행사	000 (행상)	징자2	행상판매중, 동네부녀자들에게 비누를 사라고 하면서 "3년후면 이북 김일성이가 내려올텐데, 비누한장 팔아 주면 축원을 해주겠다"고 말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고법	임순철, 김평우, 이홍복 박우동, 안종혁,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333] [서울고법 1978. 2. 10. 77노 1734] [대법 1978. 5. 9. 78도588]					김규복 대법 이일규, 이영섭, 강안희, 정태원	
43	77. 5.	[부산지법 1977. 10. 20. 77고합476] [대구고법 1978. 2. 16. 77노1090] [대법 1978. 6. 13. 78도706]	긴조 9호, 상해, 시문서위 조동행사, 공정증서 원본불실 기재동행사, 밀항단속법	000 (무죄)	징자5 (밀항단속법 무죄)	현행헌법 개정운동, 5.16반란 정치인 숙청작업 등의 내용으로 '민주봉사단의 소리'제하 문서를 작성하여 부산시내 각 대학, 국회의원, 신문사 등에 발송하고 부산시내 일원에 살포함 지법 윤경현, 이신섭, 진병춘 고법 박문식, 안용득, 조열래 대법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유태홍	
44	77. 6.	[서울형사지법 1977. 10. 28. 77고합690] [서울고법 1978. 2. 28. 77노 1932] [대법 1978. 5. 23. 78도814]	긴조 9호	000 (점술가)	징자4→ 징자2	집앞에서 여대생 3명의 손금을 봐주다가 "자연법칙에 따라 모든 재산을 공동소유로 하는 공산주의 사회로 돌아가고 있다, 맑스주의 국가인 소련, 동독같은 나라도 잘 살고 있다, 박대통령은 1인독재며 빈부차가 심하다"라고 말함 지법 허정훈, 정용인, 김황식 고법 조인, 이철환, 김학세 대법 정태원, 이영섭, 이일규, 강안희	반공법 위반 징 10월자1선고(74. 4. 6.)받고 만기 출소
45	77. 4.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1977. 10. 28. 77고합138] [서울고법 1978. 3. 2. 77노1825] [대법 1978. 5. 9. 78도 719]	긴조 9호	양동채 (대학생)	징자2→ 징자1.6	한신대생으로 구속목사, 학생의 석방위한 대학내 기도회를 개최하고자 유인물을 제작하려하였으나 신고에 의해 미수에 그침 지법 이원배, 조홍은, 민형기 고법 오석락, 이철환, 김성만 대법 한환진, 김영세, 안병수, 정태원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46	77. 1-5.	[서울형사지법 1977. 10. 28. 77고합521] [서울고법 1978. 3. 16. 77노1822] [대법 1978. 5. 23. 78도881]	긴조 9호, 반공법	000 (무직)	징자4→ 징자1.6	싸움중 "김일성이 쳐내려 오면 세상이 뒤집히고 박정희도 죽는다"고 말하고(유언비어 날조유포), 주점에서 "김일성은 똑똑하다, 박정희는 정치를 잘못하고 여기는 살기가 힘들다"고 말함(반국가단체 구성원 찬양고무)	지법	허정훈, 정용인, 김황식
							고법	오석락, 안종혁, 김성만
							대법	김용철, 이영섭, 양병호, 유태홍
47	76. 77. 3.	[서울형사지법 1977. 10. 28. 77고합670] [서울고법 1978. 2. 24. 77노1824]	긴조 9호, 반공법	000 (운명사주업)	징자2	대화중 "미군이 철수하면 우리가 불리하지 않겠느냐, 이북은 김일성이가 똑똑해 군사력은 이북이 우세하다, 박정희는 독재자다, 나는 현정부에 반대한다, 카터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이북의 정규군은 우리보다 우세하다" 등의 발언을 함	지법	허정훈, 정용인, 김황식
							고법	박우동, 안종혁, 김규복
48	77. 4.	[서울형사지법 1977. 10. 28. 77고합465] [서울고법 1978. 3. 9. 77노1985] [대법 1978. 6. 13. 78도756]	긴조 9호, 간첩, 국보법, 반공법	000 외 3인 (대학생)	무기징역(000 외 1인), 징자6(000), 징자3집5(000)→징자3.6(000), 징자10(000)→징자3(000, 형경정), 징자9(000)	000 외 3인은 재일교포로 각각 부산대 대학원 화학과, 한양대 의예과, 서울대사회계열 재학생들로서, 000는 일본내 조총련계 학생단체 조선문화연구회에서 성명 불상 지도원에게 포섭돼 사상교육을 받고, 남한의 경제적 발전상 파악 등의 지령을 받고 사업보고문 등을 작성하여 보고하여 간첩하고, 000 외 1인 등에게 접근하여 북한방송, 통혁당 목소리 방송을 청취하도록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방송을 청취하고 사상학습을 함	지법	허정훈, 정용인, 김황식
							고법	오석락, 이철환, 김성만
							대법	정태원,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p>※000의 경우 재일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회의(한민통) 간부 겸 대남공작지도원으로 알려진 000에게 포섭되어 국내 정세, 학생들의 민주화운동 등을 보고하라는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땅굴 견학, 씨알의 소리 등을 구입제공하고 서울대 시위 유인물 민주국선언, 민족시보 등을 소지하고 북한방송을 청취함</p> <p>※ 한민통은 유신철폐투쟁에 적극적인인 일본 민단내 개혁파 인사들이 김대중과 73. 8. 결성하고 해외반독재투쟁을 전개한 조직으로 이 간첩단 사건을 계기로 반국가단체로 판단되었으나, 000는 한민통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p>								
49	77. 5.	[서울형사지법 1977. 10. 28. 77고합517] [서울고법	긴조 9호	설 훈, 이민구, 황인국, 서익진, 김창우(대학생)	징자5~3→ 징자2.6~1.6	고대, 서울대생들로서 유신헌법철폐시위를 벌이고자 '구국선언문' 제하의 유인물 150매를 제작배포하고, '학원문제의 본질' 제하 유인물 200부를 제작하여 서울대	지법	허정훈, 정용인, 김황식
							고법	오석락, 안종혁,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1978. 2. 23. 77노1931 [대법 1978. 5. 9. 78도668]				교내에 배포함	김성만 대법 라길조,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50	77. 3. 25. [부산지법 1977. 10. 31. 77고합461] [대구고법 1978. 3. 8. 77노1140]	긴조 9호, 반공법	000 (무직)	징자2	밀항단속법위반으로 징10월집2, 징8월을 각각 선고 받은 경력이 있는 자로, 부산교도소내 복역하면서 판결 확정 전 2차에 걸친 밀항으로 일본에 체류하면서 들은 재일조선인 총연맹측의 허위선전, 선동에 공감하고 자신의 밀항단속법위반으로 장기간의 실형이 선고될 것을 예측해 정부에 불만을 품고 교도소밖에서 비행기소리가 나자 "저 소리는 이북에서 해방시키러 오는 전쟁의 소리다, 저 소리는 이북에서 나를 구조하러 오는 소리다"고 말하고(북괴를 찬양, 고무, 선전), 동 교도소내에서 '000여사'라는 책을 보면서 '000 저격사건은 조작된 것이다. 입국할 때 몇 돈의 금만 가지고 들어와도 적발이 되는데 어떻게 권총이 반입될 수 있냐, 정부에서 눈감아준 것이 틀림없는 것 같다, 민단보다는 조총련이 우세하다, 박정희가 독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못사는 것이다'는 등의 발언을 함(북괴활동에 동조함과 동시에 현정권을 비방하는 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오장희, 박장우, 김영훈 고법 이정우, 최종영, 안석태	
51	75. 7. -77. 2. [전주지법 1977. 11. 5. 77고합63] [광주고법 1978. 3. 11. 77노504] [대법 1978. 6. 27. 78도880]	긴조 9호, 반공법, 매장및묘지에 관한 법률	000 (목사)	징10자7	기독교 장로회 선교자유 위원회 전북 위원장으로, 설교중 "월남 공산당 지도자 트랑방트라는 공산주의자지만 오로지 공만을 위해 일한 사람이고 월맹의 호지명도 사심없이 싸운 사람으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다, 박정희는 15년간 아무 한 일없이 안보를 구실삼아 국민을 탄압한다, 교역자와 대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선교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다 불의한 것들에	지법 오병선, 노재승, 김기수 고법 이성렬, 김선석, 하태은 대법 김윤행, 이영섭, 김용철, 유태홍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의해 투옥되었다, 현정부는 정치와 3권분립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함								
52	77. 7.	[대구지법 경주지원 1977. 11. 15. 77고합78] [대구고법 1978. 2. 9. 77노1148] [대법 1978. 4. 25. 78도529]	간조 9호, 절도	000 (무직)	징자4	<table border="1"> <tr> <td>지법</td> <td>이민수, 심명수, 이상선</td> </tr> <tr> <td>고법</td> <td>박돈식, 양기준, 조열래</td> </tr> <tr> <td>대법</td> <td>김용철, 이영섭, 양병호, 유태홍</td> </tr> </table>	지법	이민수, 심명수, 이상선	고법	박돈식, 양기준, 조열래	대법	김용철, 이영섭, 양병호, 유태홍	
지법	이민수, 심명수, 이상선												
고법	박돈식, 양기준, 조열래												
대법	김용철, 이영섭, 양병호, 유태홍												
53	77. 5.	[서울지법 성북지원 1977. 12. 3. 77고합127] [서울고법 1980. 10. 23. 78노97] [대법 1981. 7. 7. 80도2897]	간조 9호, 반공법, 신용훼손	000 (무직)	징자2집3→ 징자1집2 (간조 면소)	<table border="1"> <tr> <td>지법</td> <td>이순우, 송영식, 김정남</td> </tr> <tr> <td>고법</td> <td>황도연, 정용인, 김중곤</td> </tr> <tr> <td>대법</td> <td>서일교,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td> </tr> </table>	지법	이순우, 송영식, 김정남	고법	황도연, 정용인, 김중곤	대법	서일교,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간조 해제로 면소
지법	이순우, 송영식, 김정남												
고법	황도연, 정용인, 김중곤												
대법	서일교,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54	77. 9.	[춘천지법 강릉지원 1977. 12. 9. 77고합65] [서울고법 1978. 3. 8. 78노3] [대법 1978. 5. 9. 78도785]	간조 9호	000 (광부)	징자5→ 징자2	<table border="1"> <tr> <td>지법</td> <td>김중수, 이유주, 오행남</td> </tr> <tr> <td>고법</td> <td>조 언, 이철환, 김학세</td> </tr> <tr> <td>대법</td> <td>주재황, 양병호, 임향준, 라길조</td> </tr> </table>	지법	김중수, 이유주, 오행남	고법	조 언, 이철환, 김학세	대법	주재황, 양병호, 임향준, 라길조	
지법	김중수, 이유주, 오행남												
고법	조 언, 이철환, 김학세												
대법	주재황, 양병호, 임향준, 라길조												
55	76. 9. -77. 1.	[대구지법 경주지원 1977. 12. 13. 77고합79] [대구고법 1978. 3. 16. 78노13] [대법 1978.	간조 9호, 상해	000 (학원 이사장)	징자2	<table border="1"> <tr> <td>지법</td> <td>이민수, 심명수, 이석우</td> </tr> <tr> <td>고법</td> <td>박문성, 조열래, 안용득</td> </tr> <tr> <td>대법</td> <td>라길조, 주재황,</td> </tr> </table>	지법	이민수, 심명수, 이석우	고법	박문성, 조열래, 안용득	대법	라길조, 주재황,	상해건은 긴급 조치와 무관(병합 판결)
지법	이민수, 심명수, 이석우												
고법	박문성, 조열래, 안용득												
대법	라길조, 주재황,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5. 23. 78도867]					양병호, 임항준		
56	77. 8. 27.	[서울지법 성북지 원 1977. 12. 13. 77고합182] [서울 고법 1978. 3. 15. 78노148] [대법 1978. 5. 23. 78도 940].	간조 9호	000 (행상)	징자2	일정직업 없는 자로서 버스 차내에서 "박정희가 나쁘 다, 박정희와 대결하여 죽이겠다, 0은 부인이 3명이다, 영화배우와 X을 000"고 외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이순우, 송영식, 김정남 고법 조 인, 이철환, 김학세 대법 이일규, 이영섭, 강안희, 정태원	항소심에서 범 행당시 음주로 사물변별, 의사 결정 능력없는 상태였음을 항 변하였으나 배 척
57	77. 6.	[대구지법 경주지 원 1977. 12. 13. 77고합73] [대구고 법 1978. 3. 8. 78 노12] [대법 1978. 5. 23. 78도804]	간조 9호	000 (서적 외판원)	징1.6자2	책판매를 권유하다, "박정희에게 고개 숙이기 싫어 책 장사 한다, 박정희가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 먼저 죽는 다, 000의 형이며, 000의 장인이 이북에서 한자리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대화가 안되고, 김대중 씨가 구속된 것은 박정희보다 똑똑하니까 잡아 넣었 다"고 발언	지법 이민수, 심명수, 이석우 고법 이정우, 최종영, 안석태 대법 라길조,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58	77. 8.	[서울형사지법 1977. 12. 23. 77고 합102] [서울고법 1978. 6. 23. 78노 167] [대법 1978. 9. 12. 78도1882]	간조 9호	000 (저술업)	징자2	5.16은 민주사회주의에 의한 합헌, 합법적인 혁신정당 을 인질외교의 제물로 했다, 보안처분은 일제식민지에 서도 이러한 가혹한 처분은 없었다고 하는 서면을 작 성해 인쇄소에 의뢰함	지법 허정훈, 이종욱, 우의형 고법 박우동, 안종혁, 정지형 대법 김용철, 이영섭, 김운행, 유태홍	
59	77. 8. 6.	[광주지법 1977. 12. 23. 77고합164] [광주고법 1978. 6. 1. 78노41]	간조 9호, 반공법	000 (옛장수)	징자2	광산고물상영업소에서 종업원들과 사소한 다툼 끝에 폭력을 행사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팔세받을 사람이 아니다, 박정권은 물러가라, 중앙정보부는 무너진다 , 김일성이는 내 형님이다" 등의 말을 함(유언비어 날조 유포)	지법 심의섭, 라종훈, 한정덕 고법 차상근, 김응열, 이우선	1977. 1. 25. 서 울고법에서 간 조 9호로 징1선 고 후 1977. 4. 8. 출소
60	75. 12 -77. 5.	[서울형사지법 1977. 12. 26. 77고	간조 9호, 국가모독	양성우 (시인)	징자3→ 징자2	전직 고교교사로 한국기독교교회연합회 주최 '구국금식기 도회'에서 체제비판하는 '겨울공화국'낭독건으로 파면당	지법 한정진, 이기영, 조용무	간조 해제로 인 한 검사의 형경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합586] [서울고법 1978. 6. 30. 78노196] [대법 1978. 9. 26. 78도1992] [서울형사지법 1980. 2. 22. 80초79]				한 사람으로서, 75. 12경 유신체제비판을 주제로 장편시 '노예수참'을 작성하여 77. 4경 종로 기독교회관에서 미국인 교수 등에게 교부하고 일본 잡지 '세카이'에 번역 게재토록 하고, 77. 5경 '우리는 열변이고 책을 던졌다'는 시를 작성하여 민주인사를 체포, 고문하고 억압정치와 인권을 유린하는 정권을 비판함(우리나라 국내외 정세전반에 관해 사실왜곡, 건조 9호위반)	고법 대법 지법	박우동, 안종혁, 정지형 이일규,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이재화, 김 훈, 이정구	감청구로 감형
61	77. 4. 21.	[전주지법 1977. 12. 30. 77고합140] [광주고법 1979. 12. 20. 78노60]	건조 9호	김승한 (무직)	정16자1집3 →면소	지법 고법	오병선, 노재승, 김기수 윤 관, 이태우, 임현택	건조 해제로 면소
62	77. 3.	[서울형사지법 1978. 1. 18. 77고합657] [서울고법 1979. 8. 8. 78노283] [서울형사지법 1980. 3. 14. 80초81]	건조 9호, 반공법	000 (노동)	징자1.6집3 → 징자1집2(형경감)	지법 고법 지법	한정진, 이기영, 조용무 박천식, 정상화, 김학세 이재화, 김 훈, 이정구	건조 해제로 인한 검사의 형경 감청구로 감형
63	77. 3.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1978. 1. 20. 77고합265] [서울고법 1978. 5. 4. 78노194] [대법 1978. 7. 25. 78도1390]	건조 9호	000 (무직)	징자1	지법 고법 대법	고영구, 김학대, 이창구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라길조,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64	77. 8.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1978. 1. 20. 77고합265]	건조 9호, 폭처법	000 (회사원)	징자1 → 징자1집3 → 징8월집2	지법	고영구, 김학대, 이창구	건조 해제로 형경청구(서울고)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77고합253] [서울고법 1978. 5. 17. 78노195] [대법 1978. 9. 5. 78도1583]			(형경정청구)	말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주점 주인의 안면부를 1회 가격, 둔부 수회 참	고법 김진우, 박보무, 김학세 대법 임향준,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	법 1980. 2. 26. 80초10)	
65	77. 10.	[서울형사지법 1978. 1. 25. 77고합899] [서울고법 1978. 6. 30. 78노267] [대법 1978. 9. 26. 78도1925]	긴조 9호	배기선 (대학생)	징자2	국민대 정외과생으로 '유신정권은 비민주, 반민족 반역사의 독재정권이다', '우리의 침묵은 무엇을 배반하고 있는가' 제하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교내에 배포함	지법 한정진, 이기영, 조용무 고법 박우동, 안종혁, 정지형 대법 김윤행, 이영섭, 김용철, 유태홍	
66	77. 12. 5.	[서울지법 성동지원 1978. 1. 27. 77고합201] [서울고법 1978. 5. 11. 78노268]	긴조 9호	000 (아동복 재단사)	징자1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자신을 중정 직원이라 사칭하면서 "을 12월내 전쟁이 난다, 000이 000를 죽이라고 명령했다, 정부가 김대중의 눈을 가려 일본에서 데리고 왔는데 눈을 떠보니 집 앞이었다"는 등의 말을 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이영모, 유 현, 정극수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67	77. 10. 7.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1978. 1. 28. 77고합310] [서울고법 1978. 6. 3. 78노264] [대법 1978. 9. 26. 78도1638]	긴조 9호	홍윤기, 박홍열, 전경재, 최상일, 김용관, 박관석, 심상완, 강 천(대학생)	징자1.6~징자1 →징자1.6~징자1집2	서울대생들로서, 사회학과 주최의 심포지엄 참석을 위해 400여명의 학생들이 모였으나 행사가 연기되자 연기이유를 밝히라고 하며 해산하지 않고 학도호국단 자율화, 학보 및 신문검열철폐, 징계학생 면책, 총장퇴임을 주장하고 결의문을 작성함(대학당국 허가받지 않고 집회)	지법 고영구, 김학대, 이창구 고법 김진우, 박보무, 김학세 대법 이영섭, 김유행, 김용철, 유태홍	
68	77. 11.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1978. 1. 28. 77고합341, 346] [서울고법 1978. 5.	긴조 9호, 공무집행 방해, 상해,	김경택, 장기영, 문성훈, 연성만, 양기운, 신희백, 진재학, 여균동,	아래	서울대생들로서, 헌법폐지, 긴급조치 해제, 대학 당국을 규탄하는 내용의 유인물 '민주구국투쟁선언문'을 작성하여 11. 11. 교내 학생식당에서 구호를 외치고 시위에 가담하도록 선동하고 선언문을 배포	지법 고영구, 김학대, 이창구 고법 박우동, 안종혁, 정지형	긴조 해제로 면 소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12 78노292] [대법 1978. 9. 12 78도 1526] [서울고법 1980. 1. 11. 78노 292]	재물손괴	이철국, 김부겸, 이창호(대학생)			대법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고법 황선당, 한대현, 박천봉		
<형량> 징자3(김경택, 장기영, 문성훈, 연성만, 양기운), 징자1.6(신희백, 이철국, 김부겸, 이창호), 징1.6단1자1.6(진재학, 여균동)→징자1~징자1집2(진재학)→면소(신희백)								
69	77. 10.	[서울형사지법 1978. 2. 1. 77고합 877] [서울고법 1978. 6. 23. 78노 388] [대법 1978. 9. 26. 78도1884]	긴조 9호	김성만, 고광진 (대학생)	징자1, 징자10월→징10월자1(고광진)	고려대학생들로서 77. 11. 7. 반정부시위를 위한 유인물작성(대학자율화, 박동선사건, 양심법석방, 유신헌법 철폐, 민주헌정회복등) 등 구체적 계획을 세움(당국의 사전허가없는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한 시위 및 표현물에 의한 헌법폐지주장)	지법 한정진, 이기영, 조용무 고법 박우동, 안종혁, 정지형 대법 한환진, 김영세, 안병수, 강안희	
70	77. 4.	[광주지법 1978. 2. 2 77고합186] [광주고법 1978. 6. 1. 78노96] [대법 1978. 9. 12 78도 1630]	긴조 9호, 반공법	000 (조선대 강사)	징자3.6	국문과 강사로 강의중, "우리나라는 빈부차가 심한데, 북한은 잘사는 사람도 못사는 사람도 없이 골고루 평등하게 살고 있다, 북한은 우리가 식량원조해준다고 해도 국제여론, 체면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정신력이 강인한 사람들이다, 교회는 인권문제를 선두에 서서 인도해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어 카터가 미군을 철수시키려는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함	지법 문영택, 채영수, 정남희 고법 차상근, 김응열, 이우선 대법 이일규,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71	77. 1. 24.	[광주지법 1978. 2. 2 77고합192] [광주고법 1978. 6. 22 78노101] [대법 1978. 9. 12 78도 1836]	긴조 9호, 반공법	000 (무면허한약중사)	징자2벌20만	한약방종업원으로, 치료중 환자들에게 "박정희는 정치가 엉터리이고, 김일성은 독재정치를 하여도 박대통령보다 더 훌륭한 정치를 한다, 우리나라도 제대로 정치를 할 사람은 김대중이나 야당세력이 해야 한다"는 발언함	지법 문영택, 채영수, 정남희 고법 차상근, 김응열, 이우선 대법 안병수, 김영세, 한환진, 강안희	
72	77. 10. 12	[서울형사지법	긴조 9호	노영민, 김거성	징자5~징단2장	연세대생들로서 기독교학생반 국제사회부 활동을 하면	지법 허정훈, 이종욱,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1978. 2. 3. 77고합 797] [서울고법 1978. 5. 31. 78노 387] [대법 1978. 9. 12. 78도1624]		(대학생)	3자3→징자26 ~단1장자1.6	서 형제교회에서 '구국선언서'를 작성하고, 위 선언서 500매를 연대에서 채플시간후에 강당출입문에서 뿌리고, 신과대 예배실에서 배포함	우의형 고법 김진우, 박보무, 김학세 대법 김윤행, 이영섭, 김용철, 유태홍	
73	77. 10.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1978. 2. 4. 77고합347] [서울고법 1978. 6. 26. 78노293] [대법 1978. 9. 12. 78도 1878]	반병률, 이증연, 김영현, 김태경, 김사인(대학생)	징자2~징8월자 1→징1.6자1~ 징8월자1집2	서울대생들로서, 수회에 걸쳐 헌법폐지, 긴조 반대하는 내용의 유인물 제작예비	지법 고영구, 김학대, 이창구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대법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	
74	77. 8.	[춘천지법 강릉지원 1978. 2. 6. 77고합67] [서울고법 1978. 5. 17. 78노 266] [대법 1978. 8. 22. 78도1571]	000 (노동)	징자5→ 징자2.6	대회중, "대통령은 날도적놈이다, 매호당 190만원씩 빚을 지워 놓았다, 22년이나 대통령을 했으면 됐지 내년에도 대통령을 하려고 하니 날도적 놈이다, 박정희도 당이다"라고 말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김종수, 이유주, 오행남 고법 김진우, 박보무, 김학세 대법 이영섭, 김윤행, 김영철, 유태홍	
75	77. 11.	[서울형사지법 1978. 2. 6. 77고합 882] [서울고법 1978. 6. 29. 78노 364]	유재현 (대학생)	징3. 6자3 →징자2	서강대생으로, 11. 12 학원자유, 유신철폐시위를 하다 동대학생 등이 경찰에 연행되자, 11. 14. 교내강의실에서 구속학우를 위해 목념을 하자고 하고 강의실 밖으로 나가 교문을 향하면서 구호를 외침(학교장 사전 허가없이 학생시위를 유도 감행 및 헌법폐지주장)	지법 윤상목, 라정옥, 현영두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76	77. 12. 18.	[서울형사지법 1978. 2. 6. 78고합 21] [서울고법 1978. 6. 10. 78노	기길동, 권태욱, 김명원(대학생)	징자5(기길동), 징1.6자1 (권태욱), 징자4(김명원)	서울대생들로, 기장청년 서울연합회명의로 '기독청년 민주화 투쟁선언' 제하의 선언서를 작성, 현수막을 제작하고 수도교회 예배실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유신 철폐 구호를 외치며 시위함	지법 윤상목, 라정옥, 현영두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429] [대법 1978. 8. 22. 78도1637]			→징3.6자3~징2.6자2		대법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77. 77. 11.	[서울형사지법 1978. 2. 6. 77고합 886, 908] [서울고법 1978. 6. 29. 78노263]	긴조 9호	이순범, 이효율, 박태울 (대학생)	징자2→징자1.6~1	서강대학생들로서 교련정기검열에 대비한 훈련중에 11. 12 항의표시로 아리랑, 애국가 등을 합창하고 학원자유, 유신철폐 등 구호를 외침	지법 윤상목, 라정욱, 현영두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78. 77. 11. 15.	[서울형사지법 1978. 2. 8. 77고합 887] [서울고법 1978. 6. 7. 78노314] [대법 1978. 9. 12. 78도1774]	긴조 9호	000 (농업)	징자2→징자1.6	전 신민당 통일문제 특위 부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신민당 야당성 회복투쟁동지회 서울지부 결성대회에서 "유신체제철폐, 장기집권 비판, 헌법개정 말한마디만 하면 5년, 10년 형을 때려 대통령 말 한마디가 법이다"는 내용의 격려사를 함.	지법 한정진, 이기영, 조용무 고법 김진우, 박보무, 김학세 대법 김운행, 이영섭, 김용철, 유태홍	
79. 77. 10. 25.	[서울형사지법 1978. 2. 10. 77고합865] [서울고법 1978. 6. 19. 78노389] [대법 1978. 9. 26. 78도1834]	긴조 9호, 특수공무 집행방해, 폭처법	000 외 6명)	징자5(000 외 1인), 징자3(000), 징자2(000 외 1인), 징자1(000), 단1징1.6(000)→징3.6자3~징자1집2	연세대학생들로서, 채플시간에 반정부시위를 벌이기로 하고, 정권유지위한 박동선 사건을 폭로하는 내용의 '77연세 민주수호 결사투쟁선언제하의 유인물 1, 000매를 작성하여 대강당에 플래카드를 걸고 동료학생들에게 배포하고 교문밖으로 진출하고(당국의 사전허가 없이 정치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시위), 경찰관 구타	지법 허정훈, 이종욱, 우의형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대법 임항준,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	
80. 77. 11. 24.	[광주지법 장흥지원 1978. 2. 16. 77고합115] [광주고법 1978. 7. 13. 78노118] [대법 1978.	긴조 9호	고영근 (목사)	징자6	장로회 목사로서 전남노회 교회개척 '농민을 위한 기도회'강사로 설교중, "박정권이 인권탄압을 가속화한다, 영구집권하겠다고 박해하고, 정치자금마련을 위해 부정부패가 만연하다, 농민, 근로자들이 억압받고 있다"고 말함(헌법비방, 사실왜곡전파)	지법 정태규, 오세빈, 신정식 고법 차상근, 김용열, 이우선 대법 김운행, 이영섭,	긴조 9호위반으로 징자1, 6확정(78. 2. 28.)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 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 고	
	9. 26. 78도2068]					김용철, 유태홍		
81	77. 11. 18.	[서울형사지법 1978. 2. 17. 77고합891] [서울고법 1978. 7. 7. 78노475] [대법 1978. 9. 26. 78도2071]	긴조 9호	임영준, 한승동, 장정수, 김용진(대학생)	징자4(임영준, 한승동, 장정수), 징자3(김용진) →징자3(임영준, 한승동, 장정수)	서강대학생들로서 유신헌법철폐를 주장하는 '서강선언문'과 플래카드 1, 200매를 제작하여 교내에서 배포하다 경찰에 의해 제지(사실왜곡전파, 헌법폐지선동)	지법 허정훈, 이종욱, 우의형 고법 박우동, 안종혁, 정지형 대법 한환진, 김영세, 안병수, 강안희	
82	77. 3. 16.	[대구지법 경주지원 1978. 2. 21. 77고합103] [대구고법 1978. 7. 27. 78노273] [대법 1978. 10. 10. 78도2182]	긴조 9호, 반공법	000 (농업)	징자1	마을 길을 넓히기 위한 새마을 사업장에서 부녀회장, 동장, 새마을 지도자 등이 일하는 것을 보고 "새마을 사업때문에 배고파 못 살겠다, 헌정부가 없어지든지 한 놈이 죽든지 해야지, 이북은 잘 산다고 하는데 우리는 새마을 사업때문에 못산다"고 말함(사실왜곡,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지법 이민수, 심명수, 이석우 고법 이정우, 최종영, 안석태 대법 김용철, 이영섭, 김운행, 유태홍	
83	77. 11.	[대구지법 1978. 2. 28. 77고합477] [대구고법 1978. 5. 11. 78노266]	긴조 9호	000 (노동)	징자1	술을 마시면서 대화중, 쌀막걸리 제조판매조치에 대해 "쌀술은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나오지 선거만 끝나면 나오지 않는다, 김종필 국무총리가 물러나 있는 것은 내년 선거 때문이다, 박대통령이라고 부정이 없을리가 있나"라고 말함(사실왜곡전파, 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이주성, 김인수, 손기식 고법 박돈식, 안용득, 조열래	
84	77. 11. 16.	[대구지법 1978. 2. 28. 77고합479] [대구고법 1979. 3. 31. 78노265]	긴조 9호	000 (채수리공)	징자1집2	식당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대화도중, "땅굴은 북한이 판것이 아니라 남한에서 판 것이다"라고 말함(사실왜곡 전파)	지법 이주성, 김인수, 손기식 고법 김호영, 권연상, 김태준	
85	77. 12.	[서울형사지법 1978. 3. 9. 78고합32] [서울고법 1978. 6. 14. 78노	긴조 9호	000 (고교 교사)	징자2→ 징자1.6	국사 담당 교사로, 수업중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충효사상교육은 1인독재를 위한 수단이다, 유신헌법 국민투표 개표할시 반대표 몇 트럭을 불살라버렸다"고 말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윤상목, 라정욱, 현영두 고법 김진우, 박보무, 김학세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471] [대법 1978. 9. 12 78도1757]					대법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86	77. 3.	[부산지법 1978. 3. 13. 77고합904] [대구고법 1978. 7. 20. 78노365] [대법 1978. 11. 14. 78도 2191] [대구고법 1979. 3. 8. 78노 957]	긴조 9호	000 (입업)	징자4→ 징자3→ 무죄	대화중, "000이 미국가서 발언한 것은 진심이 아니고 중정 조종을 받고 꼭두각시짓을 한 것이다, 박정희는 부정부패가 엉망진창이며 국민 대다수가 불만이 많고 이러다가는 얼마 안가서 뒤집어진다, 윤보선, 김대중도 아무 죄도 없는데 징역을 살린다, 새마을 운동도 아무것도 아니고 걸치레다, 신문도 자유보도를 못하게 하니 무법천지다" 등의 발언을 함	지법 김성일, 박채규, 진병춘 고법 박돈식, 안용득, 조열래 대법 유태홍,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고법 김호영, 권연상, 김태준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대립감 정있던 000의 허위고발에 의한 것이 인정되어 무죄
87	77. 6.	[서울형사지법 1978. 3. 24. 77고합916] [서울고법 1978. 7. 20. 78노 612] [대법 1978. 11. 28. 78도2203]	긴조 9호	000 (음반제조업)	징자26→ 징1.6자1집3	오아시스 레코드사 대표로서, 대화중 "울산땅은 000이가 다 먹고 마산은 000가 거의 다 먹었다, 박정권이 시정쇄신 운운하지만 형식에 불과하다, 박정권은 덤배 터잡이다"라고 말함	지법 허정훈, 이종욱, 우의형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대법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유태홍	
88	77. 10.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1978. 4. 7. 78고합21] [서울고법 1978. 7. 28. 78노561]	긴조 9호	000 (무직)	징10월자1→ 징10월자1집2	서울대 졸업생으로서, 한신대학원, 서울대 재학생들과 대화중, "지난 10. 25. 연대 학생시위때 기동경찰관에 의해 학생이 사망했고 1명은 최루탄에 맞아 실명했다고 하더라"는 말을 함(유언비어 유포)	지법 고영구, 김학대, 이창구 고법 박우동, 안종혁, 정지형	
89	76. 77. 1.	[서울형사지법 1978. 4. 13. 77고합862] [서울고법 1978. 8. 30. 78노 805] [대법 1978. 11. 28. 78도2476]	긴조 9호, 공문서부정사용	000 (무직, 육군 중령 예편)	징자26→ 징자1(공문서 부정사용 무죄)	용인공원 이사로 재직하면서 직원들에게 "000가 대통령 XXX다, 71년도 대통령선거는 부정선거다, 총통이 되어 영구집권을 하려고 한다"는 등의 말을 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윤상목, 라정욱, 현영두 고법 김진우, 박보부, 김학세 대법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90	77. 10.	[서울형사지법 1978. 5. 2. 78고합19] [서울고법 1978. 10. 6. 78노742] [대법1979. 12. 26. 78도2786] [서울고법 1984. 10. 12. 80노199]	000 (한국종교협의회 사무총장)	징자2→ 징자1→ 무죄, 면소	000이 성균관대의 재단운영권을 포기하는 과정에 문교부, 중앙정보부가 개입되어 있다는 탄원서를 동아일보에 게재함(사실왜곡 표현물 제작배포)	지법	김형기, 신성철, 박인호	긴조 해제로 면소
						고법	박우동, 정지형	
						대법	정태원, 민문기, 이일규, 김용철	
						고법	오병선, 김정남, 정성욱	
91	77. 11.	[서울형사지법 1978. 5. 17. 78고합162] [서울고법 1978. 10. 20. 78노786]	000 (상업)	징자1.6→ 징자1.6집3	다방에서 대화중, "000이 과거 여수반란사건에 관련돼 생명이 위급하게 되었는데 000이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게 처형하지 못하도록 신원보장을 하여 구출되었다"고 말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한정진, 이기영, 조용무	
						고법	박우동, 지홍원, 정지형	
92	77. 10.	[서울형사지법 1978. 5. 31. 78고합79] [서울고법 1978. 11. 17. 78노850]	000 (회사원)	징자1.6→ 징자1.6집2	대화중, "000 대한통운 사장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의화낭비, 외도한 것이 탄로나 총리가 가서 사죄를 하고 박대통령이 알고 사장직에서 물러나게 했다"고 말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한정진, 이기영, 조용무	
						고법	박우동, 지홍원, 정지형	
93	77. 2-3.	[서울지법 성동지원 1978. 7. 14. 78고합63] [서울고법 1980. 1. 9. 78노1275]	000 (무직, 전 학교 이사장)	징2자3 →면소	학교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것을 당국에 진정, 노력중 "독재정권이 학교를 뺏어갔다, 총칼로 정권 뺏더니 학교까지 뺏어간다" 등의 말을 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사실 왜곡전파)	집적	이영모, 정극수, 이원국	
						고법	박천식, 정상학, 이창구	
94	77. 8.	[서울형사지법 1978. 8. 25. 78고합237, 389] [서울고법 1978. 12. 7.]	김병곤 (상고사문제대책 협의회 간사)	징자4→ 징자3	향린교회내 대학생부 세미나에서 박기평 등 20여명의 학생들에게 "박정희는 일제시대 만주 군관학교 출신으로 독립군 토벌경력이 있다, 따라서 현정권도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허정훈, 이종욱, 우의형	긴조1, 4호 위반으로 무기징역 선고(1974. 4. 8.) 받고 형집행정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78노1243] [대법 1979. 2. 27. 78도 3166]				조유포), 위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중, 유신 헌법철폐, 독재정권타도, 노동삼권 보장 등의 구호를 수회의침	대법 김윤행, 이영섭, 김용철, 유태홍	지 출소(75. 2. 15). 법원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고 이유서를 백지로 제출함
95	77. 9.	[서울형사지법 1978. 9. 12. 78고합473] [서울고법 1978. 12. 21. 78노 1391]	긴조 9호	000 (주부)	징자26→징자1.6집3 대화중, "000이 영화배우 000네 집에 들어가는 걸 본 사람이 있다"고 말함(허위사실 날조유포)	지법 김형기, 신성철, 박인호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96	77. 4.	[서울형사지법 1978. 10. 2. 78고합323] [서울고법 1979. 2. 14. 78노 1392] [대법 1979. 12. 26. 79도669]	긴조 9호	000 (무직)	징자1→징자1 집2 →면소 술을 먹고 대화중, "000가 박정희에게 본인의 은사로 미국 모대학 교수로 있는 홍모양과의 재혼을 권유하고 있어 곧 성사될 것"이라는 말을 함(유언비어 유포)	지법 김형기, 강현중, 강원구 고법 김진우, 박보무, 김학세 대법 강안희,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긴조 해제로 면소
97	77. 10. 25.	[서울형사지법 1978. 12. 7. 78고합641] [서울고법 1979. 5. 23. 79노 76]	긴조 9호	김병돈 (대학원생)	징자1→징자1.3집3 연대 대학원생으로 '77연세 민주수호 결사투쟁선언 제하 유인물을 학교 후문앞에 모인 100명 학생들에게 낭독하고 이대 교정을 거쳐 서강대 교정까지 행진하면서 구호를 외침	지법 윤상목, 김기섭, 민형기 고법 김진우, 정상화, 김학세	
98	77. 11.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1978. 12. 16. 78고합177] [서울고법 1979. 5. 4. 79노154] [대법	긴조 9호	배남효 (대학생)	징1.6자2 →징자1 서울대생으로, 동료학생들과 함께 언론탄압중지, 긴급조치 폐지, 학도호국단 해체, 윤치주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유인물을 제작하기로 하고 제작에 필요한 갠지 2, 000매를 운반하여 유인물 제작예비	지법 김용준, 윤여현, 박일환 고법 박우동, 정태웅, 정지형 대법 김윤행, 민문기,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1979. 7. 24. 79도 1379]					한환진, 김용철	
99	77.-78. [부산지법 1979. 3. 12. 78고합764] [대구고법 1979. 6. 21. 79노325] [대법 1979. 9. 11. 79도 1679]	긴조 9호, 집시법	조희순 (목사)	징자5→징자3 →징자1집2(형경정청구)	목사로 재직중인 자로, 교회에서 '민주구국헌장' 제하의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철폐를 주장하는 유인물을 제시 받고 함석헌, 윤보선 등 종교인과 재야정치인들과 공동작성자로 서명한 후, 비슷한 내용의 표현물을 각 4개 제작하고 구속노동자들의 석방시위를 주도하고 교회집회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고문잘하는 것으로 유명하고, 독재 잘하는 것으로 유명한 정부다"라고 말함(사실 왜곡 전파)	지법 안용득, 조창호, 김진기 고법 김호영, 김태준, 김영일 대법 유태홍,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긴조 해제로 형경정청구([대구고법 1979. 12. 19. 79초67])
100	77. 7. [대전지법 강경지원 1979. 12. 20. 77고합38]	긴조 9호	조용술 (목사)	면소	충남 부여 홍산교회 '나라와 선교자유를 위한 구국기도회'에 설교중 "새마을 운동은 북한에서 실시중인 천 리마운동과 5개구 제도를 배워와 모방 실시하는 것이고, 박정희는 정권연장을 위해 고집하지 말고 이제라도 긴급조치를 없애고 유신헌법도 없애 진정한 민주주의 제도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함	지법 예상해, 박재운, 이광열	
101	77. 7. [광주지법 1980. 1. 8. 78고합184]	긴조 9호	고영근 (목사)	면소	긴조 위반으로 징자6 선고받고 광주교도소 복역중, 77. 7. 14. 보석출소한 후 독재정권의 3S정책 등 비판하는 내용의 '설교자료집'과 '옥중수기'를 배포, 판매함	지법 정태규, 곽준흠, 이재기	긴조 해제로 면소, 긴조 위반으로 두차례 징역형

6)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제정 1975. 5. 13.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사건(1978. 발생)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1 78. 1. 10.	[서울지법 성동지 원 1978. 2. 24. 78 고합12] [서울고법 1978. 6. 30. 78노 338] [대법 1978. 9. 12. 78도1917]	긴조 9호	000 (상업)	징자3→ 징자1.6	택지에서 "대의원선거는 꼭두각시놀음이다, 헌법고 쳐 유신헌법을 조작해 만든 것이다"라고 말함(유언 비어 날조유폐, 사실왜곡전파)	지법	이영모, 유 현, 정극수	술로 인해 심신상 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하였으나 배 척
						고법	박우동, 안중혁, 정지형	
						대법	안병수, 김영세, 한환진, 강안희	
2 78. 1. 6.	[전주지법 1978. 3. 29. 78고합8] [광주 고법 1979. 12. 20. 78노186]	긴조 9호	000 (무직)	징자2집4 →면소	친구와 잡담중, "000사건때 000가 죽었어야 정권도 교체되고 00양도 시집갔을터인데, 아깝게 000여사만 죽었다. 간첩이 넘어와서 검거되어 신문지상에 보도 할 때 정부가 과장보고하고 있다. 이리 폭발사고는 서울 대학생들의 데모를 막기 위해 낸 사고이다. 차 라리 히틀러같이 독재정치를 하던가 정권이 교체되었 으면 좋겠다"는 등의 말을 함	지법	오병선, 노재승, 김기수	긴조해제로 면소
						고법	윤 관, 이태우, 입헌택	
3 78.	[서울형사지법 1978. 5. 12. 78고합 136] [서울고법 1978. 9. 7. 78노 816] [대법 1978. 11. 28. 78도2466]	긴조 9호, 사기, 공사문서 위조 동행사	000 외 2인 (무직)	징2(000), 징자1.6(000 외 1인)→징자1.6집 3(000 외 1인)	77. 12. 대화중 "담보물이 있으면 면책자금 용자받 을 수 있는데 그 자금중 30퍼센트가 공화당 선거자 금으로 들어간다"는 말을 함(통일주체대의원 선거 등에 대비해 정부 및 여당이 거액의 정치자금을 부정방출해 주고 이를 미끼로 비밀리에 선거자금 확보를 획책하고 있는 것으로 유언비어유폐)	지법	허정훈, 이종욱, 우의형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대법	한환진, 김영세, 안병수, 라길조	
4 78. 1.	[서울형사지법 1978. 5. 15. 78고합 68] [광주지법 순천 지원 1978. 8. 11. 78고합72] [광주고	긴조 9호	이민구 (대학생)	징자2, 징자1.6→면소	고대생으로 긴조 위반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 긴급조치 해제, 유신헌법철폐, 자유민주주의 만세를 수희 외침	지법	윤상목, 김명길, 현영두	긴조 위반으로 78. 5. 9. 징자2선고 긴조해제로 면소
						지법	김용은, 양태중, 정창환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법 1979. 12. 20. 78노350, 79노341]					고법 윤관, 이태우, 임헌택	
5	78. 1. [대구지법 경주지원 1978. 5. 16. 78고합11] [대구고법 1978. 8. 31. 78노491]	긴조 9호	000 (회사감사)	징10월자1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과 음주하다, "체제가 잘못되었다, 입도 마음대로 못 떼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하고 산다, 유신체제하에서는 국민들이 권리행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말함	지법 이민수, 심명수, 이석우 고법 박돈식, 안용득, 조열래	
6	78. 1. [대구지법 1978. 5. 24. 78고합62] [대구고법 1979. 4. 30. 78노516] [대법 1979. 8. 21. 79도1305]	긴조 9호	000 (공무원)	징자1집3	칠곡군청 계장으로 대화중, "현 정부도 독재하니까 경제부흥은 됐지만 정치면에서는 독재다, 그렇기때문에 미국이 박동선 사건으로 감정을 사가지고 단기 철수케 된 것이다, 유신헌법 제정 당시 국민 입을 막고 국민투표에 부쳐 실행된 것으로 부당하다, 명동사건은 미국압력때문에 구속인사를 석방시켰다, 언론자유가 없고 정치적 독재하므로 나는 유신헌법을 반대한다" 등의 발언을 함	지법 이주성, 김인수, 손기식 고법 김호영, 권연상, 김태준 대법 한환진,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	
7	78. 1. [서울지법 수원지원 1978. 6. 7. 78고합18] [서울고법 1978. 11. 24. 78노824]	긴조 9호	000 (상업)	징자26 →징자1	술집에서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 XXX, 혁명일으킬 때 무지하게 학살하였다. 박정희 나쁜 놈이다"라고 고성을 외침(유언비어 날조, 사실왜곡 전파)	지법 이상범, 김창수, 장세두 고법 박우동, 지홍원, 정지형	
8	78. 3. 12. [서울형사지법 1978. 6. 13. 78고합234] [서울고법 1978. 11. 24. 78노989] [대법 1979. 2. 13. 78도3138]	긴조 9호	장재철(통일사회당 노동평의회 이사), 최형호(민주통일당 당원)	징자16, 징자1 →징자1집2	인천 답동성당 노동자를 위한 신구교 연합예배에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억압하고 고문하고 노동3권을 박탈하는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비방하는 유인물 '노동자의 불꽃'을 교부받아 읽고 이를 복사배포함.	지법 김형기, 신성철, 박인호 고법 박우동, 지홍원, 정지형 대법 안병수, 김영세, 한환진, 라길조	상고심에서 '고문' 사실 주장했으나 배척
9	78. 1. [대전지법 1978. 6. 6. 78노123]	긴조 9호	정효순	징자26→	통일사회당 충남 대덕연기지구당 위원장으로서, 충	지법 김학만, 이광열	항소심에서 독재정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16. 78고합15 [서울고법 1978. 9. 21. 78노903]	반공법	(상업)	징자1, 무죄(반공법)	남지구당 현판식에서 "이북의 김정권, 이남의 박정권 다 독재정권이므로 물러나야 한다, 현재 선거의 80퍼센트는 부정선거다"라고 발언함(사실왜곡전파)	김성만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권 발언은 복고고무 찬양하는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대한민국정부와 동등한 정권으로 인정하려는 고의성 없다고 판단하여 반공법은 무죄
10	76. 5. -78. 5. [서울형사지법 1978. 7. 8. 78고합332] [서울고법 1978. 11. 14. 78노1053] [대법 1979. 2. 13. 78도3071]	긴조 9호, 공무상 비밀누설	000 (무직, 전직 중앙정보부 직원)	징자26→ 징자1.6 →징1	전화대화중, 중정 2, 3국은 행정부처담당, 해외담당은 6, 7, 8국이 담당한다는 등 중정 직제 및 임무누설하고, 박정권이 미지상군철수, 3자회담, 박동선 사건 등으로 미국으로부터 압력받고 있어 현 체제 유지 어렵다는 등 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한정진, 이기영, 조용무 고법 김진우, 박보무, 김학세 대법 안병수, 김영세, 한환진, 라길조	형집행 중 긴조 9호 해제(1979. 12. 8.)로 긴조 부분은 형집행면제(형경정청구, [서울고법 1980. 2. 26. 80초3])
11	78. 4. 19. [서울지법 성북지원 1978. 7. 14. 78고합84] [서울고법 1978. 11. 24. 78노1158] [대법 1979. 2. 13. 78도3142]	긴조 9호	유허정 (정당원)	징자1	민주통일당 중앙상무위원으로 당수 양일동의 100여명의 당원과 함께 419 기념탑에 참배하고 나오면서 통대선거반대, 대통령 직선제 요구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노상에서 시가 행진을 함	지법 이순우, 강홍주, 양동관 고법 박우동, 지홍원, 정지형 대법 정태원,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12	77. 11. -78. 3.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1978. 7. 14. 78고합95] [서울고법 1978. 11. 13. 78노1043] [대법 1979. 2. 27. 78도	긴조 9호, 반공법	000 (공원)	징26자3 →징자1.6	동료들과 대화중, "000이 영화배우 000와 XX, 미군 철수를 환영한다, 김대중이 조금만 더 일본에 있으면 미국으로 망명해 새정부를 세웠을 것이다, 이북에도 자유가 있다"는 등의 말을 함(허위사실유포, 부괴활동찬양)	지법 고영구, 김학대, 이창구 고법 김진우, 박보무, 김학세 대법 이일규,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3070]							
13	77. 12. 78. 5.	[춘천지법 1978. 7. 29. 78고합26. 32] [서울고법 1978. 11. 24. 78노1082] [대법 1979. 2. 13. 78도3137]	긴조 9호	정성현(종교단체직원), 유남선(학원강사), 박명근(농업)	징지5(정성현, 유남선), 징지3(박명근)→ 징지2-1	카톨릭 농민회 간부로서, 농협문제, 학원가 반정부 시위 상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카톨릭 농민회의 소개' 제하 유인물을 배포하고, 봉천천주교회의 인권회복 구속자석방을 위한 특별미사에서 '카톨릭 농민회 간부 구속에 관한 경과' 제하 유인물을 배포, 낭독함	지법 이태훈, 장준철, 박태훈 고법 박우동, 지홍원, 정지형 대법 이일규,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14	78. 4.	[부산지법 1978. 7. 31. 78고합292, 372] [대구고법 1978. 12. 21. 78노797]	긴조 9호	이성동, 전중근, 서연자(대학생)	징지1, 징지1집2(서연자)→징8월자1(이성동, 전중근)	부산대생들로서 4.19.의 배경과 의의설명, 오늘날의 현실에 비추어 대학생들이 반독재투쟁에 앞장서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부대자율화 민주실천선언서'를 작성, 부산대생들 70여명의 주소를 입수해 우편으로 배포하고, 부산내 교내에 배포함	지법 김성일, 박채규, 진병춘 고법 박돈식, 조열래, 조무제	
15	78. 5.	[서울형사지법 1978. 8. 18. 78고합326] [서울고법 1978. 11. 30. 78노1309]	긴조 9호	한경희, 박인혜, 오현주, 최정순, 김안나(대학생)	징지26(한경희, 박인혜, 오현주), 징지3.6(최정순), 징지1.6(김안나)→징1.6자1(최정순), 징지1집2(오현주, 김안나), 징지1(박인혜)	이대생들로서, 학도호국단비판, 긴급조치 해제, 유신헌법철폐 내용의 유인물 1,000매를 제작하여 대강당 채플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배포함	지법 허정훈, 김승목, 우의형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16	78. 5. 8.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1978. 8. 19. 78고합137] [서울고법 1978. 12. 20. 78노1194] [대법	긴조 9호	부윤경, 서동만(대학생)	징지2→ 징지1	서울대생으로, 유신헌법폐지와 긴급조치 해제, 학도호국단 해체,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학생민주선언' 400부를 작성하여 5. 8. 교내에서 배포하고 구호를 외치고 민주선언을 낭독함	지법 고영구, 김학대, 이창구 고법 김진우, 박보무, 김학세 대법 이영섭, 김윤희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1979. 3. 27. 79도 102]					김용철, 유태홍		
17	78. 7. 1	[광주지법 1978. 8. 23. 78고합150] [광주고법 1978. 12. 29. 78노367] [대법 1979. 3. 13. 79도 132]	김형중, 김용철, 양희승, 류재도(학생)	징자4(박형중), 징2, 3지3(김용철, 류재도), 징자3(양희승)→징자2(김용철)	조선대학생들로서 학내계단에 '유신독재타도'라 쓰고 '우리의 결의'라는 유인물에 긴급조치 비평글을 제작하고, 집회 및 시위를 목적으로 학원교육정상화를 위한 '민주학생선언문' 과 '조선대학교 당국에 보내는 글'이란 유인물 준비, 학생들을 상대로 위 선언문을 낭독하여 집회 및 시위의 예비모 주도	지법 고법 대법	문영택, 채영수, 정남희 차상근, 김용열, 이우선 임항준,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	
18	78. 6.	[광주지법 1978. 8. 23. 78고합151] [광주고법 1978. 12. 29. 78노371] [대법 1979. 3. 13. 79도 123]	노준현, 박현옥, 이영송, 안길정, 한동철, 이택, 박병기, 신일섭(대학생), 김경천(가독교 청년회 간사), 정호철(인쇄소 종업원)	징자5~징자2집3 →징자2집4(한동철, 이택)	전남대생들로서, 조선대 본관앞 계단에 붓으로 유신독재타도라고 쓰고(노준현), 동 대학 송기숙 교수 석방을 위한 집회를 교내에서 하고 6.27 양심교수 연행에 대한 전남대 민주학생 선언문과 '우리의 교육지표' 유인물을 제작하여 6. 20. 전남대 중앙도서관 앞에서 학생 500여명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집회함	지법 고법 대법	문영택, 채영수, 정남희 차상근, 김용열, 이우선 정태원,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19	78. 5. 16.	[서울지법 성북지원 1978. 8. 25. 78고합109] [서울고법 1978. 12. 29. 78노 1268] [대법 1979. 3. 27. 79도149]	김희택, 노창식 (대학생)	징자2	한신대 학생으로, 반정부시위할 것을 공모하여 '5.16선언' 제하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5. 16. 교내 예배실 등지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농민, 노동운동단압증지, 현정권퇴진, 박동선 사건 실체규명 등의 '우리의 결의'를 낭독	지법 고법 대법	이순우, 강홍주, 양동관 김진우, 박보무, 김학세 이영섭, 김운행, 김용철, 유태홍	
20	78. 5.-6.	[광주지법 1978. 8. 28. 78고합146] [광주고법 1978. 12. 29. 78노380] [대법	송기숙 (전남대 국문과 교수)	징자4	연세대 해직교수 성래운과 국민교육헌장과 현 교육제도를 비판하는 성명서 '우리의 교육지표'를 작성해 전남대 교수 10여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AP, 합동 통신, 아사히 신문, 서울대, 이대 등에 배포함	지법 고법	문영택, 채영수, 정남희 차상근, 김용열, 이우선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 ※국민교육헌장의 비민주성, 권위주의 문화비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1979. 3. 27. 79도 155]			(사실왜곡표현물 제작배포)	대법	임항준,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 판	
21	78. 4.	[부산지법 진주지원 1978. 8. 28. 78고합59] [대고법 1979. 2. 15. 78노 779]	김조 9호	양춘승 (대학생)	징자1	서울대생으로 김조 9호위반으로 징자1.6선고받고 서울구치소 수감중, 4. 19. 재소자들과 함께 유신헌법 철폐하라, 박정권 물러가라 등 구호를 외침	지법 윤석명, 김성용, 박국홍 고법 김호영, 권연상, 김태준	김조 9호위반으로 징자1.6확정(1978. 3. 14.)
22	78. 3.	[서울형사지법 1978. 8. 28. 78고합 221, 232] [서울고법 1981. 9. 11. 78노1326] [대법 1984. 2. 14. 81도 3202]	김조 9호, 변호사법, 공갈, 특가법	000 (전 국회의원)	징자3벌1, 300만원→선고 유예, 면소(긴급조치 부분)	강원도 인제군 노인회관에서 개최된 귀향보고회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이 대통령을 마음대로 뽑고 국민은 자기 뜻대로 대통령을 직접선출하지 못한다, 유신체제는 많은 문제점을 놓고 있다, 이것이 무슨 민주주의냐, 김조 9호로 언론의 자유가 탄압받고 있다"는 등의 발언함.	지법 한정진, 이기영, 조용무 고법 김영진, 황상현, 윤우정 대법 김종서,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23	78. 3. 1.	[청주지법 1978. 9. 1. 78고합71] [서울고법 1978. 12. 11. 78노1279]	김조 9호	고광진 (무직)	징자2	고려대생으로 1978. 2. 1. 서울형사지법에서 김조위반으로 징자10월선고받고 항소하여 1978. 6. 23. 서울고법에서 항소가각되어 대법 재판 계속중 1978. 7. 7. 서울구치소에서 청주교도소로 이감된 자인바, 수감 중이던 구치소내에서 "박정권물아내고 민주주의 다시 찾자, 유신헌법 철폐하고 양심법 석방하라, 긴급조치 해제하라"는 구호를 큰 소리로 외침	지법 남윤호, 김정술, 이우근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24	78. 2. 23.	[서울지법 1978. 9. 1. 78고합244] [서울고법 1979. 1. 26. 78노1293] [대법 1979. 4. 24. 79도 366]	김조 9호, 반공법	000 (대학생)	징자5→ 징자3→ 징자1(형경정)	경희대생으로 후배 000이 조직한 통일청년연구원 사무실에서 김일성 찬양발언과, 인혁당사건의 문제점, 박정희대통령의 친일경력에 대한 비판과 함께 박동선과 전 서울시장 김형욱에 대한 발언을 함(유언비어 날조, 사실왜곡 전파)	지법 허정훈, 이종욱, 우의형 고법 박우동, 정태용, 정지형 대법 유태홍, 주재황, 김윤행, 김용철	형집행 중 반공법 위반부분은 징자1로 감형(김조해제로 형경정, 서울고법 1979. 12. 28. 79초107)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25	77. 12-78. 3.	[서울형사지법 1978. 9. 6. 78고합 218] [서울고법 1979. 1. 24. 78노 1316] [서울형사지법 1980. 2. 22. 80초75]	긴조 9호, 사기	000 외 2인 (무죄)	징자3(000), 징자2(00), 징1집2(000)→징 1.6(00)	대화중, "000는 71. 선거때 증정을 시켜 50만표를 조작하여 당선되었다, 000은 00합선, 00사 등에 국내재산 1, 000억원 상당을 축재하고 있다" 등의 말을 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한정진, 이기영, 조용무	긴조 해제로 감사의 형경감청구(00)
							고법 김진우, 박보무, 김학세	
26	77. 6.-12. 78. 2.	[서울형사지법 1978. 9. 8. 78고합 286] [서울고법 1978. 12. 7. 78노 1285] [대법 1979. 2. 13. 78도3186]	긴조 9호	000 (상업은행 청원경찰)	징자3→ 징자2	대화중, "인혁당사건은 정부에서 조작한 것이다, 무기 등 중요부분을 외국에서 수입조립한 것인데도 국민에게 국산품이라고 허위선전한다, 장기집권위해 통일주체국민회의 만들었다, 100억불 수축이라고 하지만 많은 외채갚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둔다, 언론기관을 탄압하고 있다" 등의 말을 함	지법 허정훈, 이종욱, 우의형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대법 임항준,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	
27	78. 1. 28.	[청주지법 1978. 9. 12. 78고합75] [서울고법 1979. 4. 13. 78노1350]	긴조 9호	박관석 (학생)	징자2→ 징자1	서울대생으로 긴조 9호 위반으로 징자1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재판계속 중 서울구치소 내에서 황명근, 정영환, 최영성, 구윤희 등과 긴급조치 해제 구호를 외침.	지법 남윤호, 김정술, 이우근	
							고법 박우동, 정태웅, 정지형	
28	78. 5.	[청주지법 1978. 9. 12. 78고합73]	긴조 9호	오세범 (대학생)	징자2	서울대생으로, 긴조 9호 위반으로 수감되어 있던 서울구치소내에서 유신헌법철폐, 민주인사 석방 등의 구호를 수회에 걸쳐 외침	지법 남윤호, 김정술, 이우근	긴조 9호위반으로 징자3확정(78. 5. 21.)
29	78. 6.	[청주지법 1978. 9. 12. 78고합71] [서울고법 1978. 12. 11. 78노1279]	긴조 9호	고광전 (대학생)	징자2	고려대생으로 긴조 9호 위반으로 징자10월 선고받고 대법원 재판계류중인 자로, 서울구치소 수감 중 박정권 몰아내고 민주주의 다시 찾자, 유신헌법 철폐하고 양심수 석방하라는 구호를 수회에 걸쳐 외침	지법 남윤호, 김정술, 이우근	긴조 9호위반으로 징자10월 선고(78. 2. 1.)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30	78. 6.	[청주지법 1978. 9.	긴조 9호	양성우	징자2	시인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복역 중 긴급조치 해	지법 남윤호, 김정술,	긴조 9호위반으로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 랑	판결 요지	재판관	비 고
	12. 78고합72] [서울고법 1980. 1. 10. 78노1348]		(시인)	→면소	제, 구속학생및 민주인사 석방 구호를 수회에 걸쳐 외침	이우근 고법 김형기, 이영범, 양인평	징자3확정(78. 9. 26). 수감중 재차 긴조 위반. 긴조 해제로 면소
31	78. 3. [광주지법 1978. 9. 13. 78고합78] [광주고법 1978. 1. 23. 78노405]	긴조 9호	000 (무직)	징자2	신민당 광주시당 선전부장으로,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고등학생들을 불러세워 "독재자가 누구인줄 아느냐, 불란서에 가있는 000는 000가 XX XXX, 유능한 김대중씨를 대통령으로 뽑지 않고 무능한 박정회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간접선거로 대통령 뽑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있는 일이다, 박정회는 사람을 만여명이나 죽인 XXX다" 등의 발언을 함	지법 이병호, 장우권, 윤여달 고법 차상근, 김응열, 이우선	
32	78. 3. [광주지법 1978. 9. 15. 78고합94] [광주고법 1979. 1. 23. 78노387] [대법 1979. 27. 79도297]	긴조 9호	000 (국민학교 교사)	징자3	기독교 집사로 유신헌법철폐. 민주인사석방, 박정회 하야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도문을 작성하여 '씨알의 소리'에 게재하기 위해 우편으로 송부하고 부활절 기념예배에서 낭독할 목적으로 위 기도문을 제작소지함	지법 심희섭, 라중훈, 한정덕 고법 차상근, 김응열, 이우선 대법 이일규,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33	78. 8. [육군보통군법회의 1978. 9. 29. 78보군형제249호] [육군고등군법회의 1978. 12. 11. 78고군형향제682호] [대법 1979. 3. 13. 79도11]	긴조 9호	최갑선, 박종훈, 최동근 (군인)	징자10, 징자7, 징자5→징자2, 징자1집2(최동근)	전주 중앙교회 앞에서 기독교장로회 청년 300여명과 함께 유신헌법철폐, 긴급조치 해제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함	보군 고군 장경삼 대법 라길조,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최갑선은 긴조9호 위반으로 징1.6자1집3선고(77. 8. 17.) 받은 경력
34	77. 5. 78. 1-3. [서울형사지법 1978. 10. 5. 78고합]	긴조 9호	권혁충 (민주통일당)	징자3→징자1.6	유신독재정치 비판하는 '정치인의 양심선언'제하 유인물을 제작하여 민주통일당 임시전당대회에서	지법 윤상목, 김기섭, 민형기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266 [서울고법 1979. 1. 31. 78노 1611]		사무국 부국장)		이를 배포하고, '함세웅 신부 출감소감' 제하 유인물을 소지함	고법 김진우, 박보무, 김학세	
35	78. 6. [대구지법 상주지원 1978. 10. 19. 78고합34] [대구고법 1979. 2. 7. 78노 885]	긴조 9호	000 (중학 교사)	징1.6자2 →징자2.6	수업중, "5.16.혁명당시 박대통령은 별이 2개였는데 당시 최고회의 의장 000을 미국으로 보내고 자기가 의장 자리에 앉았다. 박대통령은 일본군에 있었던 적이 있다, 대통령 선거는 하나마나다, 100% 찬성이란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고 민주주의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1표를 무효시킨 것이다"라고 말함	지법 이주성, 박효열, 송창영 고법 김효영, 권연상, 김태준	상고심에서 교사로서 어린 학생들 상대로 유언비어 날조유포한 것은 국가시책,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감 조장시켜 사회불안불씨를 이루게 하는 것으로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
36	78. 6. 1. [서울지법 수원지원 1978. 10. 23. 78고합94] [서울고법 1979. 3. 16. 78노 1574] [대법 1979. 6. 12. 79도863]	긴조 9호, 폭처법, 공무집행방해	신언관, 권오훈, 이병호 (대학생)	징자2	서울대 농대생으로, '민주구국선언문'을 작성 1, 400매 가량 프린트하여 6. 1. 농대 대강당에서 위 유인물 내용을 낭독하고 배포하고 교내를 돌며 시위를 하고, 여학생 기숙사 옥상 위에서 출동 경관들에게 돌을 던짐	지법 이상범, 오세빈, 박형래 고법 박우동, 정태웅, 정지형 대법 민문기, 이일규, 김용철, 정태원	
37	78. 9. 아래	긴조 9호, 반공법, 병역법, 직무유기, 공문서위조 동행사	000 (군인)	징2자3→징1자2 →선고유예(긴조 면소, 반공법, 직무유기, 병역법 무죄)	육군 인사장교대위로서, 소속부대에서 실시하는 예비군교관으로 교육실시중, "북한이 공군력에서 우세하다, 미군을 믿지 말라, 한반도에서 전쟁 일어나면 미국은 유사시 철수하기 쉬운 공군, 해군만 주둔시키고 있다" 등의 발언을 함	보군 송봉준, 이세작, 임주환 고군 황종희, 김호현, 김원보 대법 김운행, 이영섭, 김용철, 유태홍	상고심에서 반공법, 긴조위반사실에 대해 고등군법회의로 파기환송
<p><사건번호> [육군보통군법회의 1978. 10. 26. 78보군형제470호] [육군고등군법회의 1979. 1. 16. 78고군형제789호] [대법 1979. 3. 27. 79도291] [고등군법회의 1979. 6. 19.</p>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79고군형항 제172호 [대법 1980. 11. 11. 79도2065] [육군고등군법회의 1981. 5. 12 80고군형항제615호] [대법 1981. 11. 10. 81도1841]								
38	78. 3.	[부산지법 1978. 10. 26. 78고합431] [대구고법 1979. 2. 15. 78노882]	긴조 9호	김천우 (대학생)	징자1	서울대생으로 긴조 9호 위반으로 징자1.6.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중 긴급조치 해제하라, 민주주의 수호하라, 일본놈 물러가라 고 구호를 외침	지법 주재우, 조건오, 진병춘 고법 김호영, 권연상, 김태준	긴조 9호위반으로 징자1.6확정(1978. 3. 14.)
39	78. 6. 28.	[서울지법 성북지원 1978. 10. 27. 78고합146] [서울고법 1979. 3. 2 78노1553]	긴조 9호	김형국(김대중 비서), 김금동(통일당 인권사무국장), 이성규(국제국장)	징자2 (김형국, 김금동) 징자1(이성규)	78. 6. 26. 광화문에서 일어난 학생시위소식을 김대중의 처 이희호에게 말해주고, 6. 26. 학생데모가 아사히 신문에 크게 났다는 말을 민주통일당 중앙당 집행부서에 얘기하고 6. 29. YMCA 회관 앞에서 학생들의 데모가 있다는 말을 함(확증없는 헛소문을 말해 유언비어 유포)	지법 이순우, 장세두, 양동관 고법 박우동, 정태웅, 정지형	이성규는 78. 6. 27. 긴조 9호 위반으로 징자3집5 선 고받음
40	78. 2. 1., 4. 17.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1978. 10. 28. 78고합119] [서울고법 1980. 3. 13. 78노1614]	긴조 9호, 신용협동조합법	인명진(목사), 김수분(조합이사장), 조지송(목사)	징자1벌30만원 →선고유예	영등포 도시산업선교회 목사로서 영등포산업개발협동조합 여신위원인바, 재무부장관 감사명령에 따른 조합운영사항 등 업무검사를 거부하고, 청주활빈교회 설교에서 "무전유죄 유전무죄, 진짜 도둑놈들은 밖에 있다, 인혁당 조사했던 검사가 암으로 죽었다"는 발언을 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사실왜곡전파)	지법 김용준, 윤여현, 이홍훈 고법 김형기, 이영범, 양인평	
41	78. 6. 26.	[서울형사지법 1978. 11. 2 78고합472] [서울고법 1979. 2. 16. 78노1624]	긴조 9호, 공무집행방해, 폭처법	000 (대학생)	징자2→ 징자1	종로 버스정류장부근에서 유신헌법철폐 구호외치면서 시위하던 중 시위학생 검거하려는 경찰관에게 요치1주의 상해 가함	지법 윤상목, 김기섭, 민형기 고법 박우동, 정태웅, 정지형	
42	78. 6. 26.	[서울형사지법 1978. 11. 2 78고합462] [서울고법 1979. 2. 1. 78노1625]	긴조 9호	허현희 (대학생)	징자2→ 징10월자1	고려대생으로, 6. 26. 종로구 근처에서 유신헌법철폐, 구속학생석방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고 있던 200여명의 학생시위대에 가담하여 시위를 함	지법 윤상목, 김기섭, 민형기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43	78. 6. 26.	[서울형사지법 1978. 11. 2. 78고합437] [서울고법 1979. 2. 28. 78노1626] [대법 1979. 6. 12. 79도675]	김현근 (대학생)	단1.6장2자2	서울대생으로, 광화문 네거리에서 서울대생 200여 명과 같이 유신철폐 등 구호를 수회 외치고 신문로 방향으로 행진함	지법 윤상목, 김기섭, 민형기 고법 김진우, 박보무, 김학세 대법 강안희, 주재황, 한환진, 라길조	긴조 9호 1항다호 (정치관여행위) 위반
44	78. 6. 26.	[서울형사지법 1978. 11. 2. 78고합438] [서울고법 1979. 2. 16. 78노1627]	이윤하 (대학생)	징자2→ 징자1집2	서울대생으로 6. 26. 종로구 서린호텔부근 노상에서 동료 학생들과 함께 시위를 함	지법 윤상목, 김기섭, 민형기 고법 박우동, 정태용, 정지형	
45	78. 2	[부산지법 1978. 11. 6. 78고합486] [[대구고법 1979. 2. 7. 78노1011]	이상경, 이희섭, 김승영(대학생)	징자1.6, 장1.6단1자1.6(이희섭)→징자1.6(이희섭)	부산대, 부산중앙고 중퇴자들로서, 부산대학 내 벽에 '유신, 교련철폐, 박정희 물러가라'고 씌	지법 김성일, 박채규, 진병춘 고법 김호영, 권연상, 김태준	
46	78. 6.	[서울지법 수원지원 1978. 11. 6. 78고합122] [서울고법 1979. 3. 7. 78노1596]	이광희, 박재순, 김주영 (대학생)	징자2(이광희), 징자1(박재순, 김주영) →징자1집2	서울대생들로서 1978. 6. 12. 교내시위 유인물 '학원 민주선언'을 입수하여 기타 피고인에게 배포(헌법 반대, 긴조 비방하는 유인물 보관소지)	지법 이상범, 오세빈, 박형래 고법 김진우, 박보무, 김학세	
47	78. 6. 14.	[부산지법 1978. 11. 6. 78고합540] [대구고법 1979. 3. 31. 78노992]	정의영 (무직)	징자1집2	부산대 휴학처분을 받은바 있는 자로, 공소의 이성동, 전중근, 서인자와 수회합하면서 419.의거 18주년 기념일에 즈음하여 현시국을 비판하는 유인물 '부대자율화와 민주실천선언서'를 '부산대학 자율화 민주학생단, 부산대학 민족학생연구회'명의로 작성하여 약 500여 매 등사하여 유포	지법 김성일, 박채규, 진병춘 고법 김호영, 권연상, 김태준	
48	78. 6. 24.	[서울형사지법	긴조 9호	강춘구	징자2→	고려대생으로, 6. 26.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학생시위	지법 김형기, 강현중,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1978. 11. 7. 78고합 452, 633 [서울고법 1979. 2. 26. 79노19]		(대학생)	징16자1	에 가담하려다 경찰의 시위진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위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되어 있던 중, 유신헌법철폐, 긴급조치 해제, 노동3권보장 등의 구호를 수회 외침	강원구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49	78. 6. 26. [서울형사지법 1978. 11. 7. 78고합 424] [서울고법 1979. 2. 7. 78노 1623]	긴조 9호	임경민 (대학생)	징16자2	고려대생으로, 광화문 우체국 부근 노상에서 100여 명의 학생대모에 합세하여 노래와 유신헌법 철폐를 외침(학교장 허가없이 시위)	지법 김형기, 강현중, 강원구 고법 김진우, 박보무, 김학세	
50	78. 4. [대전지법 1978. 11. 10. 78고합78] [서울고법 1979. 3. 23. 78노1645] [대법 1979. 7. 10. 79도 920]	긴조 9호, 반공법	000 (고교교사)	징자3.6→ 징자2→ 징자1(형경정)	수업중, "공산주의가 좋은 점도 있다,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이 되었다고 하지만, 국민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지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무식하다"고 발언	지법 최규봉, 유재선, 임승균 고법 박우동, 정태웅, 정지형 대법 라길조, 주재황, 임항준, 김윤행	형집행 중 긴급조치 9호 해제(1979. 12. 8.)로 긴급조치 부분은 형집행면제(형경정청구, 서울고법 1979. 12. 28. 79초108)
51	78. 4.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1978. 11. 10. 78고합141] [서울고법 1979. 2. 28. 78노1644]	긴조 9호, 반공법	000 (목수)	징자1	술마시며 대화중, "우리나라에 비극이 올 것이다, 북한과 전쟁하면 우리나라는 진다, 미군이 물러가야 한다, 박정희는 사람을 많이 죽였다"고 말함(유언비어 날조유포, 북한 고무찬양)	지법 김용준, 윤여현, 이홍훈 고법 김진우, 박보무, 김학세	
52	78. 6. [서울지법 수원지원 1978. 11. 13. 78고합132] [서울고법 1980. 1. 11. 78노 1678]	긴조 9호	연성만 (대학생)	징자2 → 면소	서울대생으로, 긴조 9호 위반으로 징자3년 선고받고 복역중, 서울구치소내에서 민중생존권보장, 긴급조치 즉각 해제, 구속인사 석방, 유신헌법 철폐 등의 구호를 반복하여 외침	지법 이상범, 오세빈, 박형래 고법 황선당, 한대현, 박천봉	긴조 9호 위반으로 수감중 재차 긴조 9호 위반, 긴조 해제로 면소
53	78. 6. 29. [서울지법 수원지	긴조 9호	여균동	징자1.6	긴조 9호위반으로 징자1년선고받고 복역중, 서울구	지법 이상범, 오세빈,	긴조 9호위반으로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원 1978. 11. 13. 78 고합131 [서울고법 1979. 2. 26. 78노 1690]		(대학생)	→징자1	치소내에서 민중생존권보장, 긴급조치 즉각 해제, 구속인사 석방, 유신헌법 철폐 등의 구호를 반복하여 외침	박형래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수감중 재차 긴조 9호위반
54	78. 4. [서울지법 수원지 원 1978. 11. 13. 78 고합133] [서울고법 1979. 7. 26. 78노 1679]	긴조 9호	김거성 (대학생)	단1.6징2자2 →징자1	연세대생으로, 수감중인 서울구치소내에서 유신헌법 철폐하라, 긴급조치 해제하라, 노동자 인권을 보장하라, 학원사찰을 중지하라, 언론탄압 중지하라, 민주헌정 회복하라 등의 구호를 반복하여 외침	지법 이상범, 오세빈, 박형래 고법 김형기, 남용희, 김성만	긴조 9호위반으로 징역 단1장1.6자1.6 선고받고 복역중 재차 긴조 9호위반
55	[서울지법 수원지 원 1978. 11. 13. 78 고합134] [서울고법 1979. 2. 22. 78노 1687]	긴조 9호	오성광 (대학생)	징1.6자1 →징자1	연세대생으로 긴조 9호위반으로 구속수감중인 서울구치소에서 민주회복 수행하라, 긴급조치 해제하라, 독재정권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수회 외침	지법 이상범, 오세빈, 박형래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긴조 9호위반으로 징자1년 확정되어 수감중 재차 긴조 위반
56	[서울지법 수원지 원 1978. 11. 13. 78 고합135]	긴조 9호	박태울 (대학생)	징자2	서강대생으로 긴조 9호 위반으로 수감중 서울구치소에서 긴조해제, 학원사찰중지 등의 구호를 외침	지법 이상범, 오세빈, 박형래	긴조 9호위반으로 징자1.6확정(78. 7. 7.)
57	[광주지법 1978. 11. 16. 78고합140] [광주 주고법 1980. 1. 10. 78노488]	긴조 9호	김광훈 (대학생)	징자2 →면소	한국신학대학생으로 긴조 9호 위반으로 복역중 서울구치소내에서 긴조해제, 민주헌정회복, 민주인사 석방, 유신헌법철폐 등의 구호를 외침	지법 문영택, 채영수, 정남희 고법 윤관, 이태우, 임헌택	긴조 9호위반으로 징자2선고(78. 6. 13.), 긴조해제로 면소
58	[광주지법 1978. 11. 16. 78고합134] [광주 주고법 1980. 1. 10. 78노493]	긴조 9호	김창우 (대학생)	징자2 →면소	서울대생으로, 긴조 위반으로 복역중 서울구치소내에서 긴조급조치 해제, 구속자 석방, 유신헌법철폐 등 구호를 외침	지법 문영택, 채영수, 강길봉 고법 윤관, 이태우, 임헌택	긴조 9호 위반으로 징자2년선고 (78. 5. 9.)
59	[서울지법 성북지 원 1978. 11. 17. 78	긴조 9호	김천영 (대학생)	징자2→ 징1.6자1	한국외대 학생으로 문무대입소 반대시위를 하기로 하고 '유신헌법으로 시민, 학생의 자유와 평등이 상	지법 이순우, 장세두, 양동관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고합185] [서울고법 1979. 2. 26. 78노1646]				실되었다, 유신체제는 독재체제임을 선언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선언문을 작성하여 운동장에서 교련교육중인 학생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함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60	78. 3. [광주지법 목포지원 1978. 10. 18. 78고합49] [광주고법 1979. 12. 20. 78노437]	긴조 9호	설 훈 (대학생)	징자2 →면소	고려대생으로 긴조 9호 위반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유신헌법철폐, 긴급조치 해제, 독재정권 물러가라, 독재자는 국민앞에 사과하라 등의 구호를 수회에 걸쳐 외침	지법 허진명, 김구일, 장남희 고법 윤관, 이태우, 임헌택	긴조 9호위반으로 징자26확정(78. 5. 9), 긴조해제로 면소
61	78. 2-9. [서울형사지법 1978. 11. 18. 78고합598] [서울고법 1979. 5. 11. 79노5]	긴조 9호, 집시법	박형규 (목사)	징자5	한완상, 이문영, 서남동, 문익환 등과 함께 박정희 일인독재체제, 유신헌법, 유정희 비판을 내용으로 '3.1민주선언'을 작성하여 78. 2. 24. 기독교회관 금요기도회에서 배포, 낭독발표하고, 9. 4. 기독교장로회 청년 전국연합회 주최의 인권기도회에서 정권 비판발언함	지법 한정진, 이문재, 강종쾌 고법 박우동, 정태웅, 정지형	긴조 1호, 내란예비혐의로 15년형 선고복역중 75. 형 집행정지 출소
62	78. 6-10. [서울형사지법 1978. 11. 27. 78고합471, 607] [서울고법 1979. 5. 16. 79노63]	긴조 9호	이호성, 이영우, 안재환(대학생)	징자2(이영우), 징1.3단1자2(이호성), 징1.6자2(안재환)	동국대생들로서, 6. 12. 발생한 서울대 교내시위 유인물 '학원민주선언'을 입수하여 이를 복사하여 충남대 등에 우송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동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되어 있던 중, '긴급조치 해제, 유신헌법철폐, 학원자유보장, 노동3권 보장' 등의 구호를 외치고, 5. 14. 동국대 내 배포된 유신헌법철폐 내용의 '부처님 오신날' 제하 유인물을 씨클모임에서 낭독, 배포함	지법 최병규, 이상문, 박성철 고법 김진우, 정상학, 김학세	
63	78. 9. [서울형사지법 1978. 11. 27. 78고합614] [서울고법 1979. 5. 4. 79노33] [대법 1979. 7. 24.]	긴조 9호, 특수공무집행방해	김유수 (학생)	징자2	고려대생으로, 78. 9. 14. 고대 대강당에서 개최된 반정부집회에 참석하여 유신헌법철폐, 독재정권 타도 등 구호를 외치고 1, 00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스크럼을 짜고 정문으로 나가려 하다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하자 연좌하여 구호를 외치고 시위하	지법 최병규, 이상문, 박성철 고법 박우동, 정태웅, 정지형 대법 양병호, 안병수, 윤태홍, 서울흥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79도1360]				고, 수위실에서 시위상황을 보고하는 경관을 폭행함		
64	78. 6. 26.	[서울형사지법 1978. 11. 27. 78고합463, 625(병합)] [서울고법 1979. 4. 27. 79노2]	긴조 9호	송광의 (학생)	징자2→징자1 고려대 휴학생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위학생무리와 불법시위하려다 동대문경찰서로 연행,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중 동년 10. 3. 헌법폐지 구호를 외침	지법 최병규, 이상문, 박성철 고법 박우동, 정태웅, 정지형	
65	78. 6.	[서울형사지법 1978. 11. 27. 78고합445, 634] [서울고법 1979. 2. 28. 79노23] [대법 1979. 5. 22. 79도697]	긴조 9호	이승환 (대학생)	징자2 고려대생으로, 6. 26.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학생시위에 가담하여 유신헌법철폐, 독재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가담하고, 수감되어 있던 서울구치소에서, 유신헌법철폐, 긴급조치 해제 등의 구호를 수회 외침	지법 최병규, 이상문, 박성철 고법 김진우, 박보무, 김학세 대법 정태원, 민문기, 이일규, 김용철	
66	78. 6. 12	[서울형사지법 1978. 11. 27. 78고합456] [서울고법 1979. 4. 27. 79노18]	긴조9호, 폭행	000(학생)	징1.6지2→징자1 서울대생으로 신문로앞에서 유신헌법철폐 등을 외치며 학생들과 시위하고(현행헌법의 폐지 주장), 데모학생을 연행하려는 신문로소속 파출소 소속 방범대원을 우산으로 1회 내리치는 등의 폭력행사	지법 최병규, 이상문, 박성철 고법 박우동, 정태웅, 정지형	
67	78. 9. 14.	[서울형사지법 1978. 11. 30. 78고합615] [서울고법 1979. 2. 26. 79노59]	긴조 9호, 특수공무집행방해	000 (대학생)	징자1→징자1집2→징10월집2 (형경정청구) 고대 강당에서 개최한 유신헌법철폐, 독재정권 타도, 학원자유쟁취를 위한 집회에 참가하고 구호를 외치며 교문밖으로 진출하다 진입경찰관들에게 연탄 3개를 집어던짐	지법 윤상목, 김기섭, 민형기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긴조해제로 형경정(서울고법 1980. 3. 21. 80초17)
68	78. 9.	[서울형사지법 1978. 12. 1. 78고합661] [서울고법 1979. 3. 5. 79노28]	긴조 9호	김주호 (학원생)	징자4→징자3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개최된 동일방직해고 근로자를 위한 기도회에 참석후 강당출입문 등지에서 "유신헌법철폐하라, 구속자석방하라, JOC는 빨갱이가 아니고 박정희가 빨갱이다" 등의 구호를 외침	지법 최병규, 이상문, 박성철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동일방직 해고노동자 기도회(기독교회관)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대법 1979. 5. 22. 79도681]					대법 이일규, 민문기, 김용철, 정태원	
69	78. 8. [서울형사지법 1978. 12. 14. 78고합539] [서울고법 1979. 4. 4. 79노206]	긴조 9호, 반공법	000 (필경사)	징자3→징자1.6→징자1(형경정청구)	수회에 걸쳐, "북한방송들으면 우리나라에 일어난 큰 사건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000이가 육사 졸업하면 아버지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될 것이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북한의 전당대회같다" 등의 말을 하고, 태극기 하기식때 "인민공화국 김일성 만세"라고 하고, "북한에는 실업자가 없고 굶어죽는 사람도 없다"는 등의 말을 함(유언비어 날조유포, 북한고무찬양)	지법 윤상목, 김기섭, 민형기 고법 김진우, 정상학, 김학세	긴조해제로 형경정[서울고법 1979. 12. 29. 79초106]
70	78. 8. [서울지법 수원지원 1978. 12. 14. 78고합155] [서울고법 1979. 3. 8. 79노6] [대법 1979. 5. 29. 79도745]	긴조 9호	000 (농업)	징자4→징자2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승객들에게 "박정희는 XXX다, 이런 놈을 어떻게 뽑았느냐, 연산군과 같은 놈이다, 지금은 왜정시대와 똑같다, 대의원들은 돈을 얼마나 먹었기에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뽑았느냐"고 소리침	지법 이상범, 오세빈, 박형래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대법 강안희, 주재황, 한환진, 라길조	만취하여 심신상실 주장하였으나 배척
71	78. 9. 30. [서울형사지법 1978. 12. 15. 78고합680] [서울고법 1979. 3. 29. 79노111]	긴조 9호	홍승구 (대학생)	징자2	서강대생으로 고대생으로부터 '78민중선언'제하 유인물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서강대내 아카데미 회원 25명이 있는 자리에서 유신헌법 철폐, 독재정권 타도, 양심범 석방 등의 구외침(헌법폐지주장)	지법 최병규, 이상문, 박성철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72	78. 7. [대구지법 경주지원 1978. 12. 15. 78고합77] [대구고법 1979. 2. 15. 79노23] [대법 1979. 4. 24. 79도538]	긴조 9호, 재물손괴, 상해	000 (어업)	징자2	폭행사건으로 피출소로 연행되자, "이 00들 맞좀봐라, 내가 대통령을 죽일려고 서울로 가려했다, 박정희가 윤보선을 쫓아내고 2년간 군정을 하고, 혁명공약에는 정권을 이양한다더니 000 아직도 해먹는다"고 말함	지법 홍기주, 권남혁, 이찬효 고법 김호영, 권연상, 김태준 대법 정태원,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73	78. 6.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1978. 12. 16. 78고합170] [서울고법 1979. 4. 13. 79노181, 445(병합)]	긴조 9호	김수천, 박치관, 김승배, 박동익, 지영갑, 홍종언, 김창민, 유인택, 임홍순(대학생)	아래	서울대생들로서, 수회에 걸쳐 교내 강의실 등지에서 헌법폐지, 긴급조치 해제 요구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학원내 질서 병영화, 기관원 사찰, 독도 문제에 관한 정부의 대일자세 미온적, 대통령선거에 관여개입 등 내용으로 하는 '학원민주선언문' 제하, 78. 6. 26. 종로 네거리에서 집회에 집결하는 내용으로 유인물을 작성하고, 6. 12 교내 강의실 등지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구호를 외치고 시위를 선동	지법 김용준, 윤여현, 박일환	
						고법 박우동, 정태웅, 정지형		
①징자3(김수천), 징10월자1(박치관, 홍종언, 김창민, 유인택, 임홍순), 단8월징10월자1(김승배, 박동익, 지영갑) ②단10월징1자1(지영갑), 징10월자1집2(유인택, 임홍순)								
74	78. 6.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1978. 12. 22. 78고합179] [서울고법 1979. 3. 29. 79노170]	긴조 9호	000 (무직)	징자3→징자2	술마시며 노인회관 벽에 걸려있는 대통령의 사진 가리키며 "박정희 저 놈 무식한 놈이다, 한밤중에 총대가리를 들고 들어가 정권을 뺏은 놈이다"고 외침(사실왜곡전파)	지법 김용준, 윤여현, 박일환	반공법(1970. 징10월징3), 긴조 9호(1976. 징자3)위반 전력. 고법, 원심이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없이 판단했다고 인정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75	78. 6.	[서울형사지법 1978. 11. 27. 78고합443] [서울고법 1979. 5. 4. 79노24]	긴조 9호	이정구 (대학생)	장1.6단1자2→징자1집2	고려대생으로 6. 26. 서울대생 등 300여명과 함께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벌어진 유신철폐데모에 가담하여 긴조해제, 유신헌법철폐, 구속학생석방 등의 구호를 외침	지법 최병규, 이상문, 박성철	
							고법 박우동, 정태웅, 정지형	
76	78. 6. 28.	[광주지법 1978. 12. 21. 77고합170, 200] [광주고법 1979. 2. 27. 79노26, 29]	긴조 9호	정용화, 문승훈, 최동열(대학생)	징자2.6, 징자2, 징자2집3→징자2(문승훈)	전남대생들로, 전남대교수 석방위해 학원자유화와 정권의 시녀가 된 전남대를 비방과 함께 자주성을 상실한 현정권은 반민족적 세력의 선봉이라는 내용의 '우리의 교육지표' 및 '전남대 민주학생선언문' 제하 선언문을 작성, 배포하여 동교생들의 농성과 시위를 주도, '민주학생교수를 즉각 석방하라	지법 문영택, 박행용, 강길봉	
						고법 차상근, 김용열, 이우선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 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 고
					어용교수 몰러가라 등을 외치며 집회와 시위 주도		
77	78. 9. 14.	[서울형사지법 1978. 12. 28. 78고합611] [서울고법 1979. 5. 11. 79노210]	긴조 9호, 폭처법	000 (대학생)	단1장1.6자1.6 →징자1	지법 윤상목, 김기섭, 민형기 고법 박우동, 정태웅, 정지형	
78	78. 10. 10.	[서울형사지법 1978. 12. 28. 78고합684] [서울고법 1979. 5. 21. 79노208]	긴조 9호	안동일, 김준영(대학생)	단1장1.6자1.6, 징자26→징자1 집2, 징자1.6	지법 윤상목, 김기섭, 민형기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79	78. 11. 28	[서울지법 1978. 12. 29. 78고합767] [서울고법 1979. 4. 19. 79노214]	긴조 9호	000 (대학생)	징자3→ 징자1.6	지법 최병규, 이상문, 박성철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80	78. 9. 14.	[서울형사지법 1978. 12. 29. 78고합613, 766] [서울고법 1979. 5. 16. 79노235] [대법 1979. 8. 21. 79도1432] [서울형사지법 1979. 12. 19. 79초1033]	긴조 9호, 폭처법	000외 2명(대학생)	징자2→징1 집2(000)	지법 김형기, 신명균, 강원구 고법 김진우, 정상학, 김학세 대법 주재황, 임향준, 강안희, 라길조 지법 이재화, 김 훈, 이정구	긴조 해제로 인해 검사의 형경감청 구로 감형
81	78. 7. 13.	[대구지법 1979. 1. 10. 78고합332] [대구고법 1979. 5. 17. 79노97]	긴조 9호	000 (농업)	징자2집3	지법 박인기, 김성수, 이재철 고법 김호영, 권연상, 김태준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82	78. 9.	[서울형사지법 1979. 1. 11. 78고합 663] [서울고법 1979. 5. 21. 79노 228]	진조 9호	최재은, 석원정, 이항순 (대학생)	징자3, 징자1.6, 징자1→징자1 (석원정), 징자1.6(이항순), 징자1집2 (최재은)	숙대생들로, 어용학도호국단체지, 교육의 자율성과 민주성회복, 학원내 모든 기관원 철수, 유신독재정권철폐 등 요구사항을 담은 '교육의 민주화와 학원의 자율을 위하여' 제하 유인물을 제작하고, 교내 화장실 등지 벽에 10. 16.-10. 23. 동맹휴학, 10. 17. 켈기대회, 유신철폐 등 낙서를 하고, '4천 수명인이여 다시 한번 일어나자' 제하 유인물 500매를 제작하여 교내에서 배포함	지법 윤상목, 김기섭, 민형기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83	78. 5.-9.	[서울형사지법 1979. 1. 12 78고합 719] [서울고법 1979. 6. 20. 79노 232]	진조 9호	이우재, 성 옥, 양민호(대학생)	징자4(성옥, 이우재), 징자3(양민호)→징자3, 징자2	서울대생들로서, 수 회에 걸쳐 헌법폐지, 긴급조치 해제 등을 주장하는 유인물을 작성하여 교내에 배포하고 6. 12 교내 시위를 모의하고 6. 26. 세종로 집회를 모의하고 '학원민주선언', '자연대생에게 보내는 편지', '전국 학우들에게 보내는 편지' 제하의 유인물을 제작하고 6. 12 교내에서 선언문 낭독,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하고, '민주회복 반독재 선언', '민주사국선언' 제하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9. 13. 교내에서 배포하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함	지법 최병규, 이상문, 박성철 고법 박찬식, 정상학, 김학세	
84	78. 7.-10.	[서울형사지법 1979. 1. 25. 78고합 725] [서울고법 1979. 6. 22 79노 273] [대법1979. 9. 11. 79도1701]	진조 9호, 반공법	000 (고교강사)	징3자3	수업중, "박정희가 혼자 입후보해서 혼자 당선되는 이런 선거가 어디 있느냐, 대의원을 돈으로 매수했다, 이북 김일성이 오히려 더 똑똑하다"고 말하고 (북한찬양고무), "우리나라 정치제도는 18세기 프랑스 절대전제군주정치와 같다, 정부에서 국민, 학생에게 켈기대회하도록 지시하고, 중정에서 이북으로 간첩보낸다"고 말함(허위사실유포)	지법 윤상목, 김기섭, 민형기 고법 정지영, 황선당, 박천봉 대법 이일규, 민문기, 김용철, 정태원	
85	78. 11. 17.	[서울형사지법 1979. 2 1. 78고합 755] [서울고법 1979. 6. 27. 79노	진조 9호	손상국 (대학생)	징자1.6	연세대생으로서 '독도는 일본영토인가, 유신체제는 매국체제인가, 입이 있어도 말못하게 하는 매국독재 박정권을 타도하자, 현 정권은 반공이라는 구실하에 애국자를 공산주의자라하여 옥고를 치루게	지법 윤상목, 김기섭, 민형기 고법 박찬식, 정상학, 김학세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316]				한다'는 내용의 벽보를 작성하고, 교내 벽에 부착		
86	78. 10. 27.	[서울지법 인천지원 1979. 2. 2. 78고합150] [서울고법 1979. 4. 19. 79노288]	김상우, 박성룡(대학생)	징자2→ 김상우(징자1.6) 징자1(박성룡)	인하공대생으로 유신헌법폐지주장의 유인물을 11. 3. 학생의 날에 살포하기로 공모하고 특히 김상우는 내용구성에 직접참여, 유인물을 작성 살포	지법 주진학, 현순도, 오용호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87	78. 11.	[서울지법 인천지원 1979. 2. 2. 78고합165, 770] [서울고법 1979. 7. 4. 79노331]	조용호, 김명식, 박한왕, 안영근, 양홍영(대학생)	징자3(조용호), 징자26(안영근), 징자2(김명식, 박한왕, 양홍영)→징자2(조용호), 징자1.6(그외)	인하대생들로, 9. 28. '민주회복에 관한 인하대학생의 선언문' 제하 유인물 400매 제작해 교내등지에 배포, 10. 17. '인하인에게 고함', '양심선언문' 제하 유인물을 강의실등에 배포하고, 11. 14. 위 대학생으로 긴급조치반으로 구속된 학생들의 석방요구시위를 하기로 하고 유인물, 벽보 등을 제작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지법 주진학, 현순도, 오용호 고법 박천식, 정상학, 김학세	
88	78. 9.	[대전지법 1979. 2. 9. 78고합185] [서울고법 1979. 6. 20. 79노374]	김정남 (무직)	징자26	유신헌법으로 인하여 반공교육에 차질있다'는 제목으로 '유신헌법은 삼권분립을 찾아보기 힘들다, 국회의 원 중선거구제는 나눠먹기식이다, 법관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긴급조치는 민주주의 이념에 배치된다, 유신헌법은 철폐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작성하여 청와대로 우송하여 도달하게 함	지법 최규봉, 유재선, 이관형 고법 박천식, 정상학, 김학세	
89	78. 5.	[대전지법 1979. 2. 9. 78고합151] [서울고법 1980. 1. 9. 79노470]	이대수 (대학생)	징26자2 →면소	연대생으로 긴급조치 해제, 유신헌법 철폐, 자유민주주의 만세 등의 구호를 수회 외침	지법 최규봉, 유재선, 이관형 고법 박천식, 정상학, 이창구	78. 9. 긴급 9호 위반으로 징자2확정, 긴급해제로 면소
90	78. 6.	[대전지법 1979. 2. 9. 79고합156] [서울고법 1980. 1. 11. 79노480]	김명원 (대학생)	징1.6자1 →면소	서울대생으로, 긴급 9호 위반으로 징26자1년 선고 받고 복역중, 서울구치소내에서 민중생존권보장, 긴급조치 즉각 해제, 구속인사 석방, 유신헌법 철폐 등의 구호를 반복하여 외침	지법 최규봉, 유재선, 이관형 고법 황선당, 한대현, 박천봉	긴조 9호위반으로 수감중 재차 긴급 9호위반, 긴급해제로 면소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91	78. 6.	[대전지법 1979. 2. 9. 78고합161] [서울고법 1980. 1. 23. 79노479]	긴조 9호	양기운 (대학생)	징26자2 →면소	서울대재학중, 긴조위반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 긴조해제, 구속인사석방, 독재정권 물러가라, 자유와 민주는 고난과 투쟁의 산물임을 다시 한번 상기한다 등의 구호를 수회에 걸쳐 외침	지법 최규봉, 유재선, 이관형 고법 박천식, 정상학, 이창구	긴조 위반으로 징자3 확정(78. 9. 12), 긴조해제로 면소
92	78. 6.	[대전지법 1979. 2. 9. 78고합150] [서울고법 1980. 1. 10. 79노481]	긴조 9호	기길동 (대학생)	징26자2 →면소	서울대생으로 긴조 9호위반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복역중, 유신철폐, 긴급조치 해제, 독재정권 퇴진, 언론자유보장, 학원사찰중지 등 구호를 수회에 걸쳐 외침	지법 최규봉, 임승균, 이관형 고법 김형기, 이영범, 양인평	긴조 9호위반으로 징3.6자3 확정(78. 8. 2)되어 수감중 재차 긴조 위반, 긴조해제로 면소
93	78. 6.	[대전지법 1979. 2. 9. 78고합174] [서울고법 1979. 5. 21. 79노465]	긴조 9호	심상완 (대학생)	징1.6자1 →징자1	서울대생으로 긴조 9호위반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복역중, 유신철폐, 긴급조치 해제, 독재정권 퇴진, 언론자유보장, 학원사찰중지 등 구호를 수회에 걸쳐 외침	지법 최규봉, 유재선, 이관형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긴조 9호위반으로 징자1 확정(78. 9. 26.) 형집행정료
94	78. 6. 26.	[대전지법 1979. 2. 9. 78고합173] [서울고법 1979. 6. 29. 79노464]	긴조 9호	김용관 (대학생)	징1.6자1 →징자1	서울대 재학중 긴조 9호위반으로 징자1년선고받고 복역중, 서울구치소내에서 긴급조치 즉각 해제, 유신헌법 철폐, 독재정권 물러가라, 학원자유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반복하여 외침	지법 최규봉, 유재선, 이관형 고법 황선당, 정지형, 박천봉	긴조 9호위반으로 수감중 재차 긴조 9호위반
95	78. 6.	[대전지법 1979. 2. 9. 78고합177] [서울고법 1979. 6. 21. 79노462]	긴조 9호	이순범 (대학생)	징26자2→ 징1.6자2	서강대생으로, 긴조 9호 위반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복역중, 유신철폐, 민주회복, 긴급조치 해제 등의 구호를 수회에 걸쳐 외침	지법 최규봉, 유재선, 이관형 고법 김형기, 남용희, 김성만	긴조 9호위반으로 78. 6. 30. 형 확정
96	78. 6.	[대전지법 1979. 2. 9. 78고합146] [서울고법 1980. 1. 9. 79노476]	긴조 9호	강성구 (대학생)	징26자2 →면소	연대생으로 긴조9호 위반으로 수감중인 서울구치소 내에서 긴급조치 해제, 유신헌법 철폐, 자유민주주의 만세 등의 구호를 수회 외침	지법 최규봉, 유재선, 이관형 고법 박천식, 정상학, 이창구	78. 9. 26. 긴조 9호위반으로 징3.6.자3.확정. 긴조 해제로 면소
97	78. 10. 11.	[서울지법 성북지원 1979. 2. 9. 78고]	긴조 9호	배규식, 변재용, 조홍섭, 박희욱,	징지2(배규식, 변재용,	서울대생들로, 각 대학의 반정부시위에 동참하고자 '학원민주투쟁선언' 제하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10.	지법 김석수, 임완규, 이영오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합225 [서울고법 1979. 6. 13. 79노 365]		김숙림, 이연숙(대학생)	조홍섭). 징자1(박희옥, 김숙림, 이연숙) →징자1(배규식)	11. 서울대 공대 구내에 배포하고, 서울여대생들로 서 유신헌법, 긴조 9호반대 유인물 '자유민주선언' 제하 유인물을 작성하여 10. 15. 배포하려다가 검거되어 예비에 그침	고법 박천식, 정상학, 김학세	
98	78. 6. [대전지법 1979. 2. 9. 78고합158]	긴조 9호	이효율 (대학생)	징1.6자1	서강대생으로 긴조 9호위반으로 수감중 서울구치소에서 긴조해제, 학원사찰증지 등의 구호를 외침	지법 최규봉, 유재선, 이관형	긴조 9호위반으로 징자1.6확정(78.)
99	78. 3.-6. [대전지법 1979. 2. 9. 78고합152]	긴조 9호	공유상 (대학생)	징2.6자2	연세대생으로 긴조 9호 위반으로 구속수감중인 서울구치소에서 민주회복 수행하라, 긴급조치 해제하라, 독재정권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수회 외침	지법 최규봉, 유재선, 이관형	긴조 9호위반으로 징자1.6확정(78. 9.)
100	78. 6. [대전지법 1979. 2. 9. 78고합155] [서울고법 1980. 1. 23. 79노473]	긴조 9호	장기영 (대학생)	징2.6.자2 →면소	서울대재학중, 긴조위반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 긴조해제, 구속인사석방, 독재정권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수회에 걸쳐 외침	지법 최규봉, 유재선, 이관형 고법 박천식, 정상학, 이창구	긴조 9호위반으로 징자3확정(78. 9. 12.),
101	78. 8. 14. [전주지법 1979. 2. 12. 78고합113] [광주고법 1979. 6. 15. 79노73] [대법 1979. 9. 25. 79도 1601]	긴조 9호	강세현(농업), 김병민, 이철우(전도사)	징자3(강세현, 이철우), 징자2(김병민)	강세현, 김병민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청년회 활동을 하고 이철우는 78. 2. 대법에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자1선고 후 만기출소한 자로서, 기독교장로회 전국청년교육대회에서 목사와 전도사 학생들의 석방요구와 유신철폐, 노동3권보장 내용의 가두시위를 주도	지법 이형년, 김기수 고법 차상근, 김응열, 이우선 대법 정태원, 민문기, 이일규, 김용철	긴조 9호위반으로 징자1확정(이철우)
102	78. 2. [서울형사지법 1979. 2. 14. 78고합 100] [서울고법 1980. 2. 13. 79노 447]	긴조 9호, 반공법	000 (접술인)	징자2.6→징6월 자1, 면소(긴조)	긴조 9호위반으로 서울구치소에 복역중, 긴급조치 철폐하고 민주정치 이룩하라, 반공법철폐하고 남북 대화 이룩하라는 구호를 수회에 걸쳐 외침(북괴의 남북대화불응 이유에 관한 선전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함)	지법 한정진, 이문재, 강종쾌 고법 박천식, 정상학, 이창구	반공법위반으로 징10월자1(74. 9. 24.), 긴조위반으로 징자2확정(78. 5. 23.), 긴조해제로 면소
103	78. 9.-11. [서울지법 성북지원 1979. 2. 16. 78]	긴조 9호	하석태, 신명식, 신용남(대학생)	징자3(하석태), 징자2(신명식)	경희대생들로서, 유신헌법철폐, 독재정권퇴진을 주장하는 '전체 대학생의 뜨거운 가슴에 호소한다'는	지법 김석수, 임원규, 이영오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 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 고
	고합207, 264] [서울고법 1979. 6. 27. 79노385]			신용남 →징자2, 징자1.6	유인물과 '독재정권 타도하자'는 프래카드를 제작하여 78. 9. 19. 교내에 배포하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고, 고대, 연대, 동국대, 이대 등 대학 신문사로 위 유인물을 우송하고, 동 사건으로 구속 성동구치소에 수감중, 수회에 걸쳐 유신헌법철폐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름	고법 박천식, 정상학, 김학세	
104	78 [부산지법 1979. 2. 22. 78고합708] [대구고법 1979. 7. 26. 79노272]	긴조 9호	유갑종 (민주통일당 부간사장 겸 정치위원)	징자1.6→ 징자10월	74. 4. 16. 긴조 1호로 징자12 선고받고 복역중 75. 3. 16.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자인바, 민주통일당 당사에서 개최된 제 10차 중앙상무위원회에 동 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여 대통령직선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내용의 결의문 초안을 약 6개의 장소에서 반복해서 낭독함으로써 공중전파수단에 의하여 헌법 개정 및 반대 주장	지법 주재우, 양태중, 김문수 고법 김호영, 김태준, 김영일	긴조 1호 위반으로 징자12 선고
105	78. 5-6. [서울형사지법 1979. 2. 23. 78고합714] [서울고법 1979. 6. 29. 79노438]	긴조 9호	조희연, 김준목, 권호영, 이대현 (대학생)	징자4(조희연, 김준목), 징2.6지3 (권호영, 이대현) →징자3, 징자2	서울대, 명지대 중퇴생으로, '범국민민주수호위원회' 명의로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철폐하라, 언론자유와 학원의 자유를 보장하라, 노동자 농민 서민의 희생위에 소수만이 배부르는 오늘의 경제체제를 거부한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거부하자' 등의 유인물을 제작하고 서울, 부평, 인천 등지에 발송하고, '우국학도여러분' 제하 유인물을 작성하여 서울대, 숙대, 서강대 등에 발송하여 배포함	지법 최병규, 이상문, 박성철 고법 황선당, 정지형, 박천봉	
106	78. 10. [서울지법 성북지원 1979. 2. 23. 78고합220] [서울고법 1979. 5. 24. 79노391] [대법 1979. 7. 24. 79도1425]	긴조 9호, 반공법	000 (언론인)	징자2→ 징자1.6→ 징자1	신민당 당원으로 활동해오던 사람으로, 술마시며 잡담중, "81년에는 박사장도 꺼꾸러진다, 81년에는 이북에서 쳐들어오는데 반드시 이북이 이긴다, 여기는 말로만 민주주의지 반독재다, 김대중을 박사장이 감금시켜 놓고 있다"고 발언	지법 김석수, 임완규, 이영오 고법 김달식, 남용희, 김성만 대법 민문기, 이일규	형집행 중 긴급조치 9호 해제(1979. 12. 8.)로 긴급조치 부분은 형집행면제(서울고법 1979. 12. 29. 79초113)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107	78. 6.	[광주지법 1979. 2. 24. 79고합6] [광주 고법 1979. 7. 24. 79노122]	김래운 (전 연세대 교수)	징자2	76. 2 연대에서 재임용탈락된 후 해직교수협의회 회장, 인권운동협의회 부회장으로서, 전남대 송기숙 과 국민교육헌장 및 현재 교육실태 비판하는 '우리의 교육지표' 제하 유인물을 작성 광주, 서울의 각 대학교수 찬성 서명을 받고 6. 26. 인권운동협의회 석상에서 함석헌 김승훈, 문동환 등에게 내용을 보고함	지법 김용철, 정태원 심의섭, 한정덕, 곽준흠 고법 차상근, 김응열, 이우선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
108	78. 6. 12, 9. 13.	[서울지법 영등포 지원 1979. 2. 24. 78고합258] [서울고 법 1979. 6. 13. 79 노422] [대법 1979. 9. 11. 79도1762]	양시열, 김영상, 정동구 (대학생)	징10월자1→ 징10월자1집2 (김영상, 정동구)	서울대생으로, 교내에서 200여명의 동료학생들과 유신철폐를 외치는 시위를 함(헌법폐지비방)	지법 김용준, 윤여현, 박일환 고법 박천식, 정상학, 김학세 대법 민문기, 이일규, 김용철, 정태원	
109	78. 10.	[서울지법 영등포 지원 1979. 2. 24. 78고합296, 79고합 7] [서울고법 1979. 6. 15. 79노458]	백삼철, 정경연, 장준영, 김선택, 정태운, 주대환(대학생)	징자2(백삼철), 징자1.6(정경연), 징자1(장준영, 김선택, 정태운, 주대환)	서울대, 고대, 성대, 서강대생들로서 회합하여 78. 10. 12 기해 서울 시내 각 대학에서 시위를 하기로 하고 유인물 제작배포하기로 하고, '6개대학 민주 선언' 제하의 유인물, 광화문 네거리에서 가두 집회를 가지자, 불법긴급조치 하에서 이루어지는 국회의원 선거에 불참하자 등의 행동강령을 채택하기로 결의하고 구속수감된 영등포 구치소내에서 긴급조치 해제 구호를 외침	지법 고영규, 이홍훈, 박병휴 고법 황선당, 정지형, 박천봉	
110	78. 6. 12, 9. 13	[서울지법 영등포 지원 1979. 2. 24. 78고합257, 259, 79 고합10] [서울고법 1979. 6. 21. 79노	김종복, 조성을, 이은태, 서종원, 이영환, 이연규(대학생)	징자3~징10월자 1집2→징자2~징 10월자1	서울대생들로서, 6. 12 서울대 교내에서 시위발생 하자 이에 가담하고, 9. 10. '민족민주교육을 위한 우리의 주장' 제하의 유인물 500매, '민주회복 반독재선언' 제하로 500매, '민주시국선언' 제하 유인물을 제작하고, 9. 13. 서울대 교내에서 이를 배포하	지법 김용준, 윤여현, 박일환 고법 김형기, 남용희, 김성만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418]				고 유신체제 타도하고 긴급조치 철폐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선동하고, 구속수감된 영등포 구치소내에서 긴급조치 해제구호를 외침		
111	78. 10.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1979. 2. 24. 78고합295, 79고합13] [서울고법 1979. 5. 31. 79노433]	긴조 9호 유중성, 유인열, 황인성, 옥광섭, 김성남(대학생)	징자2(유중성), 징자1(유인열, 황인성, 옥광섭), 징6월자1(김성남)	서울대, 고대생으로, 반정부시위를 하기로 하고, '전국민에게 드리는 글', '전 학우에게 고함', '10. 17 민주투쟁선언' 제하 유인물을 초안을 작성하여 시위를 예비하고, 위 사실로 구속기소되어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옥광섭은 정의가를 부르고 긴급조치 철폐하라고 구호를 외침	지법 고영구, 이홍훈, 박병휴 고법 김형기, 낭용희, 김성만	백삼철과 시위 공모하고 구치소내에서 정태운과 함께 구호외침
<p>※ 항소이유에서 '긴급조치는 헌법개정절차에 관한 헌법 124조 내지 126조에 저촉무효이며, 헌법 53조에 의하면 긴급조치 효력은 잠정적인데 긴급조치 9호는 발효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미 실효된 것이며, 헌법 53조 규정, 발동목적에 비추어 등 긴급조치 규정 행위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에 중대한 위협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긴급조치 위반죄의 구성요건이 완성된다 할 것인데 이에 대한 판단없이 무조건 이에 대해 긴급조치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항변하였으나, 고법은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긴조 각 규정의 소위가 구체적으로 국가안전, 공공질서 수호에 중대한 위협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것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p>							
112	78. 11. 6.	[대구지법 1979. 2. 26. 78고합543] [대구고법 1979. 7. 5. 79노276]	긴조 9호 김병호, 김진덕, 박세원, 전상수, 전병욱, 김인재, 김창수 (대학생)	징자1, 단8월장1자1 (박세원, 전상수, 김인재) →징자8월, 단6월장자8월 (박세원, 전상수, 김인재)	경북대생으로, 78. 11. 2 '78경북대 구국선언문' 학생시위에서 동료학생들이 구속, 학사처분을 받은 것에 항의하여 11. 6. '제2, 78경북대 구국선언문' 제하 유인물에 구속학생석방, 총장퇴진, 어용교수 사퇴, 학원사찰 중지, 언론자유보장, 유신헌법철폐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교내에서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구호를 외치며 2, 500명과 함께 대구시내에서 가두시위를 주도함	지법 박헌기, 김성수, 이재철 고법 김호영, 김태준, 김영일	김병호에 대해 만성정신분열증 인 정해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감경
113	78. 11. 2	[대구지법 1979. 2. 26. 78고합526] [대구고법 1979. 7. 5. 79노275]	긴조 9호 최용식, 장수원, 김동호, 유시대 (대학생)	징자3 →징자2	경북대생들로, 11. 2 '78 경북대 구국선언문' 제하 유인물 500매를 제작해 경북대 교내에 배포하고 호소문을 낭독하고 교내에서 시위를 주도함	지법 박헌기, 김성수, 이재철 고법 김호영, 김태준, 김영일	
114	78. 9.	[광주지법 순천지	긴조 9호	000	징자3→	수업중, "우리나라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하기 때문	지법 김용은, 장우건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원 1979. 3. 2 78고합141] [광주고법 1979. 7. 4. 79노 136]		(고교 교사)	징자1.6	에 발전이 적고 세계에서 다섯번째 가는 독재정치를 한다, 우리나라 정치제도 하에서는 박대통령이 늙어 죽을때까지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없다, 서울에서 대학생들이 박정희 물러가라고 데모를 하지만, 신문에는 보도되지 않았다, 족벌 정치로 변해가고 있다" 등의 발언을 함	윤여달 고법 차상근, 김응열, 이우선	
115	78. 11. [서울형사지법 1979. 3. 3. 78고합 763] [서울고법 1979. 6. 20. 79노 498]	긴조 9호	엄주웅 (대학생)	징자2.6	고려대생으로, 유신헌법, 긴급조치폐지를 주장하는 '격문'제하 유인물을 작성하여 11. 9. 교내 도서관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선동하여 시위주도함	지법 윤상목, 김기섭, 민형기 고법 박찬식, 정상학, 김학세	
116	78. 6. [대전지법 홍성지원 1979. 3. 6. 78고합70] [서울고법 1979. 6. 13. 79노 530]	긴조 9호	김영환 (대학생)	징자1	연대 치대생으로, 긴조 9호 위반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민주헌정회복, 긴급조치 해제, 구속인사석방, 저임금 저곡가 정책 시정 등 구호를 수회에 걸쳐 외침	지법 김억규, 박찬주, 김성만 고법 박찬식, 정상학, 김학세	긴조 9호위반으로 징자1 확정(78. 9. 26.)
117	78. 10.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1979. 3. 7. 78고합315, 79고합12] [서울고법 1979. 7. 5. 79노494]	긴조 9호, 증거은닉	000외 5인(대학생)	징자3(000), 징자2(000), 징1.6자2(000, 000, 000), 징자1(000)→징1.6자2(000), 징자1집2(000, 000), 징10월집2(000)	서울대생들로서, 상호공모하여 유신반대시위를 위한 유인물을 제작하기로 하고, '전국의 학우에게 고한다, '일어서라 전국 30만 대학생이여', '10.17. 민주회복 범시민 쉼기대회', '서울대 15, 000 노예들이여' 제하의 유인물과 전국대학 동맹휴학, 10. 17. 세종문화회관 광장에서 범시민 학생궐기대회 개최, 국회의원 선거거부 등의 행동강령 초안을 작성하여 서울시내 각 대학 부근, 정류장, 버스내에 배포하고, 피고인들중 일인이 체포되자 유인물 제작에 제공한 타자기, 운전동사기 등을 은닉하고, 동 사건으로 영등포구치소에 수감중 구치소내에서	지법 이원배, 민세홍, 김승우 고법 김형기, 남용희, 김성만	긴조 해제로 형경 정청구(서울고법 1980. 2. 21. 80초 14)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긴급조치철폐, 구속인사석방 등 구호를 외치고 정의가 등의 노래를 부름		
118	78. 12.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1979. 3. 7. 78고합311, 79고합8] [서울고법 1979. 7. 6. 79노496] [대법 1979. 9. 25. 79도1862]	김필열, 김용흠, 박병태 (대학생)	징자3(이필열, 김용흠), 징자1→징자1집2(박병태)	시위를 공모하고, '학원자유화투쟁선언', '국회의원 선거를 거부하자, 제하 유인물 1, 800매를 작성하고, 11. 13. 교내 도서관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시위를 주도하고, 위 행위로 구속 영등포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던 중 정의를 부르고 구속학생석방, 긴조 해제 등의 구호외침	지법 이원배, 민세홍, 김승우 고법 황선당, 정지형, 박천봉 대법 김용철,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119	78. 11.	[부산지법 1979. 3. 8. 78고합729] [대구고법 1979. 6. 14. 79노315]	손용규 (정치인)	징자3.6 →징자2	한국기민당 부산제3지구당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취임사에서 "박정희가 올바른 정신이 돌아오면 유신 헌법도 새로 바로 잡을 것이고 국회의원에게도 국정감사권을 부여할 것이다" 등의 말을 함	지법 주재우, 양태중, 김문수 고법 김호영, 김태준, 김영일	※사건이후 지구당 해체
120	78. 10. 3.	[부산지법 1979. 3. 12. 79고합44] [대구고법 1979. 9. 6. 79노332]	배기선 (무직)	징자1	78. 1. 25. 서울형사지법에서 긴조9호 위반으로 징자2 선고받고 김해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자로, 구금 당시 구치소 내에서 '독재정권 물러가라, 긴급조치 해제하라, 자유민주 보장하라'고 외침	지법 안용득, 조창호, 김진기 고법 김호영, 문종술, 김영일	긴조 9호위반으로 징자2선고
121	77. 3. -78. 11.	[부산지법 1979. 3. 12. 78고합764] [대구고법 1979. 6. 21. 79노325] [대법 1979. 9. 11. 79도1679]	조화순 (목사)	징자5→징자3	한국교회선교협의회회장, 인천기독교도시산업선교총무로서 77. '민주구국헌장'에 작성자로 서명하고(헌법 폐지주장 표현물제작), 윤보선, 함석헌, 지학순, 박형규, 안병무와 함께 '헌하시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 '민주국민에게 고향'을 작성하고, 78. 9. 22 한국기독교회관 강당에서 동일방직 해고여공들과 함께 노동3권보장 등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구속자석방주장집회를 진행함	지법 안용득, 조창호, 김진기 고법 김호영, 김태준, 김영일 대법 유태홍,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122	78. 6.	[전주지법 1979. 3. 16. 78고합148] [광	한승동 (대학생)	징자1.6 →면소	서강대생으로, 긴조 9호 위반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복역중, 유신철폐, 민주회복, 긴급조치 해제 등의	지법 오병선, 이흥기, 김종규	긴조 9호위반으로 징자3확정(78. 9.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주고법 1980. 1. 10. 79노156]				구호를 수회에 걸쳐 외침	고법 윤 관, 이태우, 임헌택	26.), 긴조 해제로 면소
123	78. 4. [전주지법 1979. 3. 16. 78고합149] [광주고법 1979. 12. 20. 79노159]	긴조 9호	장정수 (대학생)	징자1.6 →면소	서강대생으로 긴조 9호위반으로 수감중 서울구치소에서 긴조해제, 학원사찰중지, 대통령 직접선거, 민주정치 구현, 국민생존권 보장 등의 구호를 수회에 걸쳐 외침	지법 오병선, 이흥기, 김종규 고법 윤 관, 이태우, 임헌택	긴조 9호위반으로 징자3확정(78. 9. 26.), 긴조 해제로 면소
124	78. 4. [전주지법 1979. 3. 16. 78고합74] [광주고법 1980. 1. 10. 79노157]	긴조 9호	김현수 (대학생)	징자1.6 →면소	한국신학대생으로, 긴조 9호위반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 자유민주주의 회복하라, 민주헌정회복하라, 유신헌법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수회 외침	지법 오병선, 이흥기, 김종규 고법 윤 관, 이태우, 임헌택	긴조 9호위반으로 단3장3.6자3확정 (78. 5. 23.), 긴조 해제로 면소
125	78. 6. [전주지법 1979. 3. 16. 78고합98] [광주고법 1979. 12. 20. 79노152]	긴조 9호	진 철 (대학생)	징자1.6 →면소	한국신학대생으로, 긴조 9호 위반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 자유민주주의 회복하라, 민주헌정회복하라, 유신헌법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수회 외침	지법 오병선, 이흥기, 김종규 고법 윤 관, 이태우, 임헌택	긴조 9호 위반으로 징자2선고, 긴조 해제로 면소
126	78. 8. [서울지법 수원지원 1979. 3. 22. 78고합176, 79고단227] [서울고법 1979. 7. 5. 79노574]	긴조 9호, 폭처법	000 (주점 경영)	징자4→징자1	동거남에게 "000은 내가 잘 아는 친구언니와 사단장 시절부터 애인관계에 있다. 영화배우 000는 000과 좋아지내는 사이여서 000 부인이 해외로 쫓아보냈다"는 등의 말을 함(유언비어 날조, 유포)	지법 이상범, 오세빈, 박형래 고법 김형기, 남용희, 김성만	
127	78. 3. [전주지법 1979. 4. 4. 78고합75] [광주고법 1979. 12. 20. 79노190]	긴조 9호	성종대 (대학생)	징자1 →면소	성균관대생으로 긴조 위반으로 서울구치소에 복역중, 정치범 석방하라, 구속자 석방하라, 민주헌정회복하라, 긴급조치 해제하라 등의 구호를 수회 외침	지법 오병선, 이흥기, 김종규 고법 윤 관, 이태우, 임헌택	긴조 9호위반으로 징자1.6확정(78. 3. 14), 78. 8. 15. 형 집행정지출소, 긴조 해제로 면소
128	78. 10. [전주지법 군산지원 1979. 4. 6. 78고]	긴조 9호, 반공법	000 (무직)	징자2	자신을 국회직원으로 가장하면서 대화중 "북한은 전 무기와 잠수함을 자체 생산하나 우리나라는 2차	지법 서철모, 조병직, 김완섭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합82] [광주고법 1979. 7. 19. 79노 176]			대전대 쓰던 잠수함을 사용하므로 북한이 국방력이 월등하다, 북한은 배급을 실시하므로 모든 주민이 빈부차가 없다, 000이 김대중씨를 일본에서 데리고 올 때 바다에 빠뜨려 위장해 버리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등의 발언을 함	고법 차상근, 김용열, 이우선	
129	78.	[육본 보통군법회의 1979. 4. 6. 79형 공제32호] [육군고등군법회의 1979. 6. 29. 79고군형항제215호] [대법 1979. 10. 16. 79도 2032]	긴조 9호, 반공법	000 (군인)	육본 행정보조원인 군인으로, 대화중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정치를 하고 있는지 아느냐, 독재 정치를 하고 있다, 유정희 때문에 선거해봤자 야당이 지게 돼있다, 자기 혼자 대통령을 해먹으려고 헌법을 뜯고쳐서 유신헌법을 만들었으므로 유신헌법은 없어야 한다, 이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같이 심한 독재는 아니다, 이남에서도 이북에 간첩을 보내고 있다, 군대 장군들이 부정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번다"는 등의 발언을 함	보군 김호현, 이호원, 홍성실 고군 이계훈, 조상흠, 권혁주, 김동준 대법 강안희,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130	78. 12	[전주지법 군산지원 1979. 4. 6. 78고 합90] [광주고법 1979. 12. 20. 79노 184]	긴조 9호	000 (노동)	식당에서 음주만취하여 식당안에 있던 순경 등에게 "나는 이북에 가겠다, 박정희 정권도 독재정치다, 000도 원래는 남로당 출신이며, 000도 남로당의 힘을 받아 되었다"고 말함	지법 서철모, 조병직, 김완섭 고법 윤 관, 이태우, 임현택	긴조 해제로 면소
131	78. 12	[부산지법 진주지원 1979. 4. 12. 79고합24] [대구고법 1979. 9. 6. 79노 430]	긴조 9호	김기대 (숙박업)	김대중의 출감성명서 4부를 종로 기독교회관 출감 환영기도회장에서 입수하여 타인에게 교부배포함	지법 조수봉, 박장우, 서태영 고법 김호영, 문종술, 김영일	긴조 9호위반으로 징자2집2(76. 5. 4.)
132	78. 10.	[서울지법 성북지원 1979. 4. 13. 79고합3] [서울고법	긴조 9호	신인영 (노동)	통일당 총재 양일동 앞으로 '현시국을 신랄히 비판하는 통일당에 성원을 보낸다, 총칼로 억지로 빼앗은 정권을 유신헌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유지한다	지법 김석수, 임완규, 이영오 고법 황선당, 정지형,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1979. 7. 19. 79노626]				등의 내용으로 편지를 써 우체통에 넣어 발송함	박천봉		
133	78. 12. 5.	[부산지법 1979. 4. 16. 79고합58] [대구고법 1979. 12. 20. 79노424]	김조 9호	000 (정당인)	징자1→면소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시 경남 제4선거구 공화당입 후보자인바, 선거구 입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2회에 걸쳐 "미국과 결탁하여 박대통령의 명령으로 북한을 갔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갔다 오라면 갔다오겠습니다, 대단치 않습니다"라고 말함(사실왜곡 전파)	지법 안용득, 조창호, 김진기 고법 김호영, 김태준, 김영일	긴조해제로 면소
134	78. 4-12	[대전지법 1979. 4. 20. 78고합167, 79고합4] [서울고법 1980. 1. 10. 79노780]	긴조 9호	임영준 (대학생)	징2자26 →면소	서강대생으로, 긴조 9호위반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복역중, 유신철폐, 민주회복, 긴급조치 해제 등의 구호를 수회에 걸쳐 외침	지법 최규봉, 임승균, 이관형 고법 김형기, 이영범, 양인평	긴조 9호위반으로 징자3 확정(78. 9. 26.)되어 수감중 재차 긴조 위반, 긴조 해제로 면소
135	78. 6-12	[대전지법 1979. 4. 20. 78고합147, 79고합8] [서울고법 1979. 10. 24. 79노770] [대법 1979. 12. 26. 79도2714]	긴조 9호	홍윤기 (대학생)	징26자2 →면소	서울대생으로 긴조 위반으로 징자1.6형 확정되어 수감복역중인 서울구치소내에서 긴급조치 해제, 유신철폐, 학원사찰 중지, 언론자유 보장 등의 구호를 반복해 외치고, 공주교도소내에서도 구호를 수회 외침	지법 최규봉, 양승균, 이관형 고법 박천식, 정상화, 이창구 대법 정태원, 민문기, 이일규, 김용철	긴조 9호위반으로 징자1.6 확정(78. 10. 24.) 79. 11. 21. 구속집행정지 석방
136	78. 12	[대전지법 1979. 4. 20. 78고합148, 79고합6] [서울고법 1980. 1. 10. 79노776]	긴조 9호	이상훈 (대학생)	징1.6자2 →면소	연세대생으로 긴조 9호 위반으로 구속수감중인 서울구치소에서 민주회복 수행하라, 긴급조치 해제하라, 독재정권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수회 외침	지법 최규봉, 임승균, 이관형 고법 김형기, 이영범, 양인평	긴조 9호위반으로 징자3.6 확정(78. 10. 26.)되어 수감중 재차 긴조 위반, 긴조해제로 면소
137	78. 3-12	[대전지법 1979. 4. 20. 78고합189, 79	긴조 9호	김성만 (대학생)	징26자2	고려대 재학중 긴조 위반으로 징1자1 확정되고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긴조해제, 민주헌법	지법 최규봉, 임승균, 이관형	78. 9. 26. 긴조 9호위반 징1자1확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고합9]				회복, 유신헌정철폐 구호를 수회에 걸쳐 외침		정	
138	78. 12. [대전지법 1979. 4. 20. 78고합171, 79고합5]	긴조 9호	박찬우 (대학생)	징1.6자1	서울대생으로, 긴조 9호 위반으로 구속수감중인 서울구치소에서 박정권 물러가라, 유신헌정철폐하라, 유신폐독재 타도하자 등의 구호를 외침	지법 최규봉, 임승균, 이관형	긴조 9호위반으로 징자1.6확정(78. 3. 14)	
139	78. 12. [대전지법 1979. 4. 20. 78고합188, 79고합7]	긴조 9호	이철국 (대학생)	징1.6자2	서울대생으로, 긴조 9호 위반으로 구속수감중인 서울구치소에서 박정권 물러가라,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라, 유신헌정철폐하라, 유신폐독재 타도하자 등의 구호를 외침	지법 최규봉, 임승균, 이관형	긴조 9호위반으로 징자1 확정(78. 9. 13.)	
140	78. 9.-11. [전주지법 1979. 4. 25. 78고합164, 170] [광주고법1979. 8. 14. 79노217, 218] [대법 1979. 11. 27. 79도2115] [광주고법 1982. 11. 22. 79노472]	긴조9호, 국회의원선거법, 특가법	손주향 (국회의원)	징자3.6→ 징자2.6→ 선고유예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귀향보고회에서 "공화당이 선거에서 관권동원한다(허위사실유포), 박정희가 3권을 다 쥐고 있고 긴조9호로 국민의 눈귀를 막고 있다"고 말함(사실왜곡전파, 긴조 9호 비방)	지법	오병선, 이흥기, 김종국	알선수뢰 무죄, 긴급조치 면소
						고법	윤관, 김용렬, 이우진	
						대법	양병호, 안병수, 유태홍, 서윤홍	
						고법	이재화, 맹천호, 전도영	
141	78. 6. [대전지법 홍성지원 1979. 4. 30. 78고합69] [서울고법 1980. 1. 10. 79노779]	긴조 9호	김경택 (대학생)	징자1.6→면소	서울대생으로 긴조 9호 위반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복역중, 유신헌정, 긴급조치 해제, 독재정권 퇴진, 언론자유보장, 학원사찰중지 등 구호를 수회에 걸쳐 외침	지법 김억규, 박찬주, 김성만 고법 김형기, 이영범, 양인평	긴조 9호위반으로 징자3 확정(78. 9. 12)되어 수감중 재차 긴조 위반, 긴조 해제로 면소	
142	78. 3. [대전지법 홍성지원 1979. 4. 30. 78고합71] [서울고법 1980. 1. 24. 79노775]	긴조 9호	노영민 (대학생)	징자2.6→면소	연세대생으로 긴조 9호위반으로 구속수감중인 서울구치소에서 민주회복 수행하라, 긴급조치 해제하라, 독재정권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수회 외침	지법 김억규, 박찬주, 김성만 고법 김형기, 이영범, 양인평	긴조 9호위반으로 징3자5확정(78. 9. 12). 긴조 해제로 면소	
143	78. 4. 15. [전주지법 군산지	긴조 9호	000	징자1.6→	대입학원에서 재수생들을 교육하는 정치경제 담당	지법 서철모, 조병직,	긴조 해제로 면소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원 1979. 5. 4. 78고합87 [광주고법 1979. 9. 21. 79노 230] [대법 1979. 12. 28. 79도 2391]		(학원강사)	징자1.6→ 면소	강사로 수업 중 학생들에게 유신헌법의 철폐와 개정 주장	고법 대법	김완섭 차상근, 이태우, 임헌택, 양병호, 안병수, 유태홍, 서운홍	
144	78. 10. [서울형사지법 1979. 5. 9. 78고합 746] [서울고법 1979. 8. 8. 79노 795] [대법 1979. 12. 26. 79도 2158]	긴조 9호	박종만, 정연주(전 동아일보 기자)	징자2.6→ 징자1.6→ 면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상임위원들로서 동 위원회 사무실에서 자유언론실천 4주년 맞아 보도되지 않은 민주인권사건일지를 알리자는 결의를 하고, '진정한 민주민족언론좌표', '보도되지 않은 민주인권 사건일지' 제하 원고를 작성하여 제작하고 위원들에게 배포하고, 보도되지 않은 사건들을 동아투위소식에 게재하고 회원들에게 배포함	지법 고법 대법	한정진, 이문재, 강종쾌 박천식, 정상화, 김학세 정태원, 민문기, 이일규, 김용철	동아투위 '민권일지' 사건. 긴급조치 해제로 면소
145	[서울지법 1979. 5. 9. 78고합722] [서울고법 1979. 8. 8. 79노786] [대법 1979. 10. 30. 79도 2142]	긴조 9호	안성열 (무직, 전 동아일보 기자)	징자2→ 징자1.6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회원으로 '동아투위소식'에서 '재야인사 402명 10.17.국민선언발표, 범국민적 서명작업 전개' 제하에 '민주헌정 쟁취활동을 알리고 헌법이 기본권 박탈한다고 비판하는 내용을 실어 회원들에게 배포함	지법 고법 대법	한정진, 이문재, 강종쾌 박천식, 정상화, 김학세 양병호, 안병수, 유태홍, 서운홍	
146	[서울형사지법 1979. 5. 9. 78고합 745] [서울고법 1979. 8. 8. 79노 794] [대법 1980. 5. 13. 79도 2149]	긴조 9호, 신문통신등 의등록에관 한법률	안종필, 홍종민 (전 동아일보 기자)	징자2→ 징자1(홍종민)→ 면소, 공소기각(안종필)	동아일보 해직기자로서, 자유언론실천선언 4주년 기념식에 즈음하여 '재야인사 402명, 10.17.국민선언 발표 범국민적으로 서명작업을 전개', '진정한 민주 민족 언론의 좌표' 제하 유인물을 제작, 동아투위 월례회에서 배포우송함.	지법 고법 대법	한정진, 이문재, 강종쾌 박천식, 정상화, 김학세 유태홍, 양병호, 안병수, 서운홍	1980. 2. 29. 안종필 사망으로 공소기각 결정 (대법 1980. 4. 25. 79도 2149)
147	[서울형사지법 1979. 5. 9. 78고합 734] [서울고법	긴조 9호	장운환, 김종철(동아투 위원)	징자1.6(장운환), 징자2.6(김종철) →징자1(장운환)	자유언론실천선언 4주년 기념식에서 '동아투위소식 진정한 민주민족언론의 좌표' 제하 유인물을 받아 참석자들과 함께 낭독하고 동아투위원 홍종민이	지법 고법	한정진, 이문재, 강종쾌 박천식, 정상화,	긴조 해제로 면소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1979. 8. 8. 79노 787 [대법 1979. 12. 26. 79도2148]			징자1.6(김종철) →면소	긴조 위반 혐의로 연행되자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제작, 배포하고, 기독교회관에서 '동아투위연행자를 위한 기도회'에서 '현역언론인들에게 보내는 글'을 작성하여 헌법철폐, 긴급조치 해제를 주장하고, 이를 배포함	김학세 대법 강안희,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148	78. 7. [춘천지법 1979. 5. 17. 79고합8]	긴조 9호	000 (대학생)	징자3	고대생으로, 친구와 대화중 "땅굴은 남한에서 뚫다고 하더라, 워싱턴 포스트지, 뉴욕타임즈지는 한국에서 검열을 해 놓은 내용만 배포한다, 김대중 납치사건, 000 저격사건은 000가 조정한 것이라더라, 000의 부인이 가수 000과 XXXX이다, 장준하씨가 죽은 것은 실제로는 증정에서 죽었다고 하더라"고 말함	지법 이태훈, 장준철, 김남태	발언내용 중 '동일 방직파업여공들에게 똥물퍼부었는데 간부들, 회사측에 대해 별 문책 없었는데 외국같은데 어렵도 없는 일'이라는 발언은 '유언비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149	78. 8. [서울형사지법 1979. 5. 25. 79고합 46] [서울고법 1980. 1. 10. 79노 846]	긴조 9호	계훈제 (씨알의 소리 편집위원)	징자2 →면소	문익환, 이문영, 이우정, 문동환 등과 함께 박정희 정권 비판하는 내용의 '1978년 8월 15일 민주주의 국민연합'명의로 '1978년 8.15선언' 제하의 유인물을 작성하고 8. 18. 기독교회관 대강당에서 낭독함	지법 한정진, 이문재, 강종쾌 고법 김형기, 이영범, 양인평	긴조 9호 위반으로 징자1집2확정 (77. 1. 11.)
150	78. 12. 27. [부산지법마산지원 1979. 5. 30. 79고합 15] [대구고법 1979. 12. 20. 79노 548]	긴조 9호	000 (주부)	징자2.6 →면소	TV로 000취임식 실황을 보다 "000가 여자 탈렌트들과 XX하고, 다음 날 죽지 않을만큼 때려 보낸다, 배우 000에게 별장을 사주었다, 000이 박대통령을 쫓아 죽이려고 한 것이고 000가 000를 쏘아 죽였다"는 등의 말을 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오장희, 오성률, 김형수 고법 김호영, 김태준, 김영일	위와 같음
151	78. 9. [서울지법 영등포	긴조 9호,	000 외 1인	징1.6징2	술을 마시며 대화중, "000는 000가 죽이게 지시했	지법 박만호, 윤여현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지원 1979. 6. 1. 78 고합322] [서울고법 1979. 9. 19. 79노 840]	반공법	(외관원)	징10월자1→징1 자2(최상륙)	다, 군사혁명은 000이가 일으키고 000가 000을 미 국으로 추방시키고 도둑계급을 달았다, 000 사건은 중정에서 연극한 것이다, 한국헌법이 너무나 모순 이 많다, 종교집회의 자유와 통행금지 시간등이 해 제되어야 한다, 학생들 말이 옳다, 박정희가 세계에 서 가장 악랄한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 000는 XX 이 잦아 000가 던진 재벌이에 맞아 며칠 공석에 나 오지 못했다"는 등의 발언을 함	고법 박일환, 박천식, 정상학, 이창구	
152	78. 11. [서울형사지법 1979. 6. 4. 79고합 26] [서울고법 1979. 10. 23. 79노 839]	긴조 9호, 국회의원선 거법, 부정수표단 속법	000(유흥업), 000(광업)	징자26, 징자2(000)→징 자26(000)→벌 금150만원(형경 정청구)	000은 대화중 000에게 "언젠가는 각하께서 쉬실때 고향에서 여생을 보내실 것 같다, 임기전이라도 큰 용단을 내리실지 누가 아느냐, 국가가 튼튼해지고 사회가 평화스러운 상태가 되면 무얼 그리 고생하 시면서 계속 일을 하시겠느냐"고 말하고(유언비어 날조유포), 000은 대화중, "JP가 출마할 때 우리 JC 회원들이 일치단결해 전국 최다득표 되도록 앞장 서주기 바란다, 대통령 후계자가 될 것이다"라고 함	지법 한정진, 이문재, 강종쾌 고법 김형기, 이영법, 양인평	긴조해제로 긴조 부분 형집행면제 (형경정청구. [서울 고법 1979. 12. 29. 79초114])
153	78. 12. [서울형사지법 1979. 6. 14. 79고합 142] [서울고법 1979. 11. 2. 79노 1082] [대법 1979. 12. 28. 79도2773]	긴조 9호	정태현, 장동현, 백병규, 이 범, 김상복(대학생)	징자1.6(정태현, 장동현, 이범, 김성복), 단1장자1.6(백병 규)→징자1(김성 복), 징자1집2(이범) →면소	강남사회복지학교, 고대생들로서 대통령취임식 전후 해 긴급조치 철폐 주장하는 지하신문 '소리들'을 제 작하여 고대생 800여명을 수신인으로 하여 우편함을 이용 배포하고, 고대 도서관 등지에서 배포하고, 향 린교회에서 동일방직사건으로 구속된 김병곤을 위한 기도회에서 기도문을 낭독하고, '8천이화인이어' 등 을 습득하여 소지하고 '78 민중선언문'을 습득 소지 함	지법 이재화, 제차룡, 민형기 고법 황선당, 한대현, 박천봉 대법 안병수, 양병호, 유태홍, 서운홍	긴조 해제로 면소
154	78. 12. 29. [광주지법 목포지	긴조 9호	000	징자1.6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기도회에서 '유신체제	지법 김용은, 김구일,	1976. 8. 16. 서울지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원 1979. 6. 20. 79 고합17] [광주고법 1980. 1. 10. 79노 261]		(무직)	→면소	비판과 긴급조치해제, 정치범석방 요구' 등을 요구하는 김대중명의로의 출감성명서를 소지	정남희 고법 윤관, 이태우, 임헌택	법에서 긴급 9호 위반으로 서울고법에 서 정1.6지2선고받고 1978. 3. 3. 공주고도 소에서 형집행 종료
155	78. 9. [서울지법 성북지 원 1979. 6. 22 79 고합81] [서울고법 1979. 9. 26. 79노 966]	긴조 9호, 사문서위조, 동행사, 밀항단속법, 출입국관리법 사문서위조방 지, 동행사방조	000 외 10인	징3(000), 징1.6집3(000 외 3인), 징8월집2(000 외 5인)	미정부의 휴가증명서 및 미군신분증명서를 성명 불상 미국인과 공동하여 피고인들이 경영하는 인 쇄소에서 위조하여 대한민국 영외로 밀항케 함으 로써 밀항을 방조	지법 오상걸, 임완규, 이영오 고법 박천식, 정상학, 이창구	
156	78. 11. [서울형사지법 1979. 7. 9. 79고합 172] [서울고법 1980. 1. 11. 79노 1139]	긴조 9호	유구영 (대학생)	징자2.6 →면소	고려대생으로, 유신헌법, 긴급조치폐지를 주장하는 격문, 선언문 등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11. 9. 교내 도서관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선동하여 시위주도 함	지법 주진학, 신명균, 강완구 고법 황선당, 한대현, 박천봉	엄주웅과 함께 시 위. 긴급 해제로 면소
157	78. 12 [서울형사지법 1979. 7. 10. 79고합 47] [서울고법 1979. 10. 25. 79노 1131] [대법 1979. 12. 26. 79도2704]	긴조 9호	한화갑 (김대중 비서)	징자1.6 →면소	78. 12. 29. 관권정치비판, 긴급조치해제 주장하는 김대중의 출감성명서를 기독교회관 대강당 금요기 도회에서 참석자에게 배포함	지법 한정진, 이문제, 강종패 고법 김형기, 이영범, 양인평 대법 강안희,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158	78. 6. [대구지법 1979. 7. 11. 78고합335] [대	긴조 9호	임성현 (대학생)	징1.6지2→면소	한국신학대학생으로 긴급 9호위반으로 징자2년 선 고받고 확정되어 복역중인 서울구치소내에서 긴급	지법 서정제, 조건호, 이재철	긴조 위반으로 징 자2년확정(78. 6.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구고법 1979. 10. 25. 79노653] [대법 1979. 12. 28. 79도 2711]				해제, 민주헌정회복, 민주인사석방, 유신헌법철폐 등의 구호를 외침	고법 김호영, 김태준, 김영일 대법 안병수, 양병호, 유태홍, 서운홍	13.), 건조해제로 면소
159	78. 10. [서울형사지법 1979. 7. 13. 79고합 61] [서울고법 1979. 11. 8. 79노 1226] [대법 1979. 12. 26. 79도2854]	건조 9호	윤활식, 이기중, 성유보 (동아투위 간부)	징지2(성유보), 징지1(윤활식), 징지16(이기중) → 징10월자1집2 (윤활식), 징지1집2 (이기중), 징지1(성유보) → 면소	동아투위 간부들로서 정권의 언론탄압을 비판하는 '78년 송년특집 동아투위 소식'을 제작하여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동아투위 소식, 진정한 민주민족언론의 좌표'제하 유인물을 배부받아 함께 낭독하고, 동아투위 총무 홍종민 등이 건조 위반 혐의로 연행조사받자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제작하여 배포함	지법 이재화, 제차룡, 민형기 고법 김형기, 이영범, 양인평 대법 김윤행, 민문기, 한환진, 유태홍	성유보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주거제한(79. 12. 7.) 건조 해제로 면소
160	78. 12. 7.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1979. 7. 20. 79고합147] [서울고법 1979. 12. 27. 79노1098] [대법 1980. 3. 11. 80도 212]	건조 9호, 반공법	000 (학원원장)	징지3 → 징지2집4 (건조는 면소)	간호보조학원운영자로서 경기부평지구 일대 대간철 김문검색이 강화되자 사무실내에서 "선거때 되니 쓰하고 있다, 000가 장기집권을 연장하기 위해 000을 시켜 000를 살해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유언비어 날조유포), 북한국기를 그려보이면서 "태극기보다 산뜻하고 보기좋다"고 말함(북한고무찬양)	지법 박만호, 민세홍, 박일환 고법 김형기, 이영범, 양인평 대법 정태원, 한환진, 김윤행, 라길조	
161	78. 4. [서울형사지법 1979. 7. 27. 79고합 151] [서울고법 1980. 1. 11. 79노 1222]	건조 9호	000 (무직)	징지26 → 면소	매제인 000이 은행부정용자사건으로 구속된 사건에 대해 대화중, "그 사건은 박정희가 정치적으로 이용만 해먹고 형무소에 보내 배신한 것이다, 박정희는 총대를 거꾸로 메고 대통령이 되어 벼락부자가 되었다" 등의 발언을 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주진학, 홍석제, 김학대 고법 황선당, 한대현, 박천봉	건조 해제로 면소
162	78. 7. [서울형사지법 1979. 7. 27. 79고합	건조 9호	000 (광산업)	징지3 → 면소	대화중, "000 사건은 정부에서 예비군설치법 문제로 국회가 반대하자 정치적 쇼를 한 것이다, 실미	지법 주진학, 홍석제, 김학대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274 [서울고법 1980. 1. 23. 79노 1208]				도 특수부대요원들이 1.21사건에 동원됐다가 사살된 것을 항의하기 위해 유한양행앞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 고위층에서 000이 식당에 들어갈때 들어보냈다, 이리 열차사건도 정부가 벌인 쇼다" 등의 발언을 함(유언비어 날조유포)	고법 박천식, 정상학, 이창구	
163	79. 3. [광주지법 순천지원 1979. 9. 3. 79고합49] [광주고법 1979. 12. 20. 79노 395]	긴조 9호	정기영, 김창주, 박종선, 양대승, 유중남(신민당, 통일당 간부)	징지3, 징지2집3 (박종선, 양대승) →면소(정기영, 김창주, 유중남)	전 통일당, 신민당 전남 제4지구당 위원장, 상임위원 등 간부들로서, 김대중의 집에서 '3.1운동 60주년에 주음한 민주구국선언' 제하 유인물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계원들에게 배포하고, 이를 지지하는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의 지방조직을 공보하고 화합하여 이를 낭독함	지법 이석범, 장우권, 윤여달 고법 윤 판, 이태우, 임현택	긴조 해제로 면소
164	78. 4. [대전지법 1979. 9. 4. 79고합88] [서울고법 1980. 1. 10. 79노1300]	긴조 9호	송좌빈 (농업)	징1.6차1 →면소	통일당, 민주주의 국민연합 등 정치활동을 하던 사람으로, 3. 1. 기독교회관 금요기도회에 참석, '옥중에서, 긴급정치범일동' 명의의 '78 옥중자유, 민주, 정의, 진리선언' 제하 유인물을 교부소지하고, 4. 동 장소에서 '만천하에 호소합니다' 제하 선언문 등을 보관소지함	지법 최규봉, 임승곤, 이관형 고법 김형기, 이영범, 양인평	
165	78. 10. [서울형사지법 1979. 9. 10. 79고합179] [서울고법 1980. 1. 9. 79노 1346]	긴조 9호	000 (회사원)	징지2→면소	00무역 과장인 사람으로, 술을 마시다 대화중, "00 무역은 000 용돈 대주는 회사다, 대통령이 하사금 주는 게 신문에 보도되는데 그 돈은 전부 우리 회사에서 나간 돈이다"라고 말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이재화, 제차룡, 민형기 고법 박천식, 정상학, 이창구	긴급조치 해제로 면소
166	78. 7. [서울지법 성북지원 1979. 9. 22. 79고합146, 223] [서울고법 1980. 1. 11. 79노1394, 1139]	긴조 9호	천영초, 서명숙, 박종원, 윤구영, 조봉훈 (대학원생, 대학생)	징지2.6(천영초, 조봉훈), 징지2(윤구영), 징지1(서명숙, 박종원)	고대, 한국신학대, 전남대 재학 또는 제적된 자들로, 대통령선거 즉각중지, 통일주체국민회의 자진해산 등의 요구담은 유인물 700매를 제작하여 7. 3. 고대, 서강대, 연대, 이대, 서울시내 등지에 배포하고, '결국 고대는 입을 열었다' 제하 유인물 제작하여 9.	지법 오상걸, 임완규, 이영오 고법 황선당, 한대현, 박천봉	유구영(긴조 9호위반으로 79. 7. 9. 징지26선고), 조봉훈(77. 9. 19. 긴조위반으로 징지1집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서울고법 1980. 1. 25. 79노1394, 1139]		→면소(천영초, 박종원, 서명숙)	19. 고대 내에 배포하고(천영초, 서명숙, 박종원), 전남대 송기숙 교수의 '우리의 교육지표' 배포건에 대해 민주교육선언교수 즉각석방, 교수재임명제 폐지, 학원사찰 중지, 상주기관원 즉각물러가라 등의 요구 담은 '6.27 양심 교수연행에 대한 전남대 민주학생 선언문'을 작성하여 6. 29. 전남대 교내에 배포하고, 6. 29. 전남대 도서관앞에서 위 유인물을 배포하고 시위를 하고(조봉훈), 긴조해제, 정권타도를 위한 전국 각 대학연합시위를 위해 '구국대학생 총연맹'을 조직하기로 하였으나 예비에 그침(천영초, 유구영, 조봉훈)		2), 긴조해제로 면소	
167	78. 9.	[대전지법 천안지원 1979. 10. 29. 79고합54, 79고단453] [서울고법 1981. 9. 10. 79노1637]	긴조 9호, 반공법	000 (전 동성중 재단이사장)	징자3집5→ 징자2집4	동성중 재단이사장으로 교사들 앞에서 박정희대통령의 사진을 가리키며 저양반 단골오입장소가 북한산성이다, 북한과 중국과 같은 반국가단체의 활동과 구성원들을 찬양, 기자채직당시 김구선생이 남북협상차 이북에 갈때 3.8선까지 따라가보니 북한조직의 장점이 보였다, 자신의 교육이념을 발표하면서 적화통일이 되어도 좋다며 북괴를 찬양한 바 있고, 일본여행시 조선대 000교수가 쓴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이란 책 구입, "김종필 전총리가 3, 000만엔을 받고 나라를 팔아먹었다, 통일 저해요소는 남한의 미사일개발때문이다, 박정희정권은 썩었다"는 등의 발언함	지법 공아도, 신성철, 김목민	긴조 9호 해제로 면소
168	78. 9. 1.	[서울지법 성북지원 1979. 12 18. 79고합279]	긴조 9호	소준섭 (대학생)	면소	한국의국어대학생으로, 문무대입소반대 시위를 할 것을 결의하고 '유신체제는 독재체제임을 선언한다' 등의 5개항의 선언문을 작성하고, 9. 1. 운동장에서 유인물 300매를 교련교육중인 1학년생들에게 배포함	지법 오상걸, 임완규, 장세두	긴조 해제로 면소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 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 고
169	78. 3.	[광주지법 장흥지원 1979. 12. 27. 78고합41]	김경식 (목사)	면소	전남 강진교회 목사로, 3.1절 기념예배설교중 '유신 헌법, 긴급조치 선포되어 있는 오늘의 상황은 파국적 상태다, 성직자들을 영등하게도 공산주의라고 몰아부쳐 체포수색한다, 살인적 저임금과 혹사에 생존권을 위협받는 근로자들이 인간적 삶을 요구 하는데 정권은 기업편에서 몽둥이나 고문으로 대답하고 있다' 등의 내용인 '우리의 인권현실'을 낭독함	지법 이병호, 채영수, 라종훈	
170	78. 6.	[광주지법 1980. 1. 8. 79고합238]	김선출, 김윤기, 박몽구 (대학생)	면소	전남대생들로서 동 대학 교수 송기숙이 국민교육 현장이 민주주에 역행하고 일체의 칩어 연상케한다고 정부시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우리의 교육지표'를 배포하여 연행조사받자 관련교수들의 석방위해 '6.27 양심교수 연행에 대한 전남대 민주학생 선언문'을 학내에 배포, 도서관 앞에서 시위를 함	지법 장태규, 곽준홍, 이재기	긴조 해제로 면소
171	78. 11.	[서울형사지법 1980. 1. 18. 79고합580] [서울고법 1980. 6. 4. 80노558] [대법 1980. 9. 9. 80도1680]	000 (서적외판원)	징자1.6 (긴조 면소) →징자1	대화중, "북한생활이 비참하다는 것은 정권의 조작이며 사실은 잘 살고 있다, 진정한 평화를 이루려면 군대를 해산해야 한다"고 말하고, 김일성 찬양하는 노래 부름(북한찬양고무)."학생데모는 체계적, 조직적으로 해야 한다, 재야인사를 구속해 탄압하고 있다"고 말함	지법 고법 대법 문영택, 강원구, 김학대 박천식, 정상학, 이창구 정태원, 한환진, 라길조	
172	78. 4.	[대구지법 안동지원 1980. 1. 23. 79고합93]	000 (안동시청 일용직원)	징자1집2(긴조 면소)	대화중, "세계를 둘러봐도 민주국가가 공산국가를 이겨 본 역사가 없다, 중공, 6.25, 월남전쟁 등에서도 민주국가가 졌다, 이북이 이남보다 훨씬 잘 사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발언	지법 박중운, 김성수, 김인수	긴조 해제로 면소
173	78. 10.	[광주지법 1980. 4. 16. 79고합33]	김병근	면소	긴조위반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 긴급조치 해제하라, 유신헌법 철폐하라, 언론자유 보장하라, 노동삼권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수회에 걸쳐 외침	지법 전충환, 강길봉, 오상현	긴조 해제로 면소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174	78. 8.-12	[서울지법남부지원 1981. 2. 27. 79고합81] [서울고법 1982. 5. 20. 81노1285] [대법 1983. 5. 24. 82도1572]	긴조 9호, 국회의원선거법, 반공법	000 (정치인)	벌20만원→벌10만원	10대국회의원 민주통일당 입후보자로서, 합동연설회에서 "당선되면 관제공산당을 만드는 국보법, 사회안전법 개정하겠다"고 연설했다.	지법 이정락, 오세빈, 진영 고법 김영진, 김원제, 이근웅 대법 이회창, 이일규, 이성렬, 전상식	사전선거운동부분은 무죄, 기부행위 위반은 무죄, 긴급조치부분은 면소
175	78. 8. 29.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9. 6. 23. 79고합14] [서울고법 1990. 7. 18. 89노2285]	긴조 9호, 국회의원선거법	000 (이사장)	선고유예 (긴조 면소)	무소속국회의원으로 입후보당선된 자인 바,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국회의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본인의 의정활동보고서를 경기도 일대 지역주민들에게 배부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78. 수차례에 걸친 국회의원 입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긴급조치로 인해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고 말함(긴급조치 비방)	지법 김장엽, 박태철, 황용경 고법 유근완, 오상현, 조용호	긴조해제로 긴급조치부분은 면소

7)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제정 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사건(1979. 발생)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1 79. 1. 3	[서울지법 수원지원 1979. 4. 12. 79고합 27] [서울고법 1979. 7. 19. 79노603]	긴조 9호, 명예훼손	000 (공원)	징자4→ 징자3→ 징10월	술을 마시고 잡담중, "박정희는 나쁜 놈이다, 박정권을 타도해야 노동자가 잘 살 수 있다, 박정희는 XXX다" 라고 말함(유언비어 날조유포, 명예훼손)	지법 이상범, 오세빈, 박형래 고법 황선당, 정지형, 박천봉	형집행 중 긴급조치 9호 해제(1979. 12. 8.)로 긴급조치 부분은 형집행면제 (형경정청구)
2 79. 2-4	[서울지법 수원지원 1979. 6. 21. 79고합 99] [서울고법 1979. 12. 5. 79노905]	긴조 9호	000 (노동)	징자1.6 →징자1집2	대화중,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성명폭이를 하면서, "다음 대통령선거에는 당선이 안될 것이다"라고 말함(사실왜곡전파, 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이한구, 오세빈, 박형래 고법 박천식, 정상학, 이창구	
3 79. 3.	[서울형사지법 1979. 6. 25. 79고합186] [서울고법 1979. 11. 14. 79노1016]	긴조 9호, 사기	000 (상업)	징자2→징자2 집3→징1집2 (형경정청구)	잡담중, 000이 텔런트들과 사귀다고 말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지법 주진학, 신명균, 강완구 고법 박천식, 정상학, 이창구	
4 79. 3.	[부산지법 1979. 7. 24. 79고합283] [대구고법 1979. 12. 20. 79노750]	긴조 9호	김건용 (무직)	징자1.6집2 →면소	전 신민당중앙당 상무위원으로, 김대중명의로 출감성명서 1부를 배당받아 자택에 소지하고, 민주주의 말살을 위해 설립된 유신체제를 규탄하는 내용이 기재된 3.1.운동 60주년 기념 민주구국선언문 5부를 교부받아 전 신민당 당원 3인에게 각 1부씩 배포	지법 주재우, 김문수, 진병춘 고법 김호영, 김태준, 김영일	긴조 9호 해제
5 79. 2. 1.	[서울지법 성북지원 1979. 7. 28. 79고합 55] [서울고법 1979. 11. 22. 79노1185] [대법 1979. 12. 28. 79도2931]	긴조 9호	우기일 (서적도매업)	징자2.6→ 징자1→ 면소	한빛교회 목요기도회에 참석하여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는 '구국선언서'를 낭독함	지법 오상걸, 임완규, 이영오 고법 김형기, 이영범, 양인평 대법 서윤홍, 양병호, 안병수, 유태홍	긴조 9호위반으로 징자1.6선고받고 78. 7. 29. 집행마침. 긴조 해제로 면소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6	79. 5.	[서울지법 수원지원 1979. 8. 16. 79고합160] [서울고법 1980. 1. 10. 79노1260]	긴조 9호	조범원(타아소 경영, 전직 민주회복국민회의 평택군 상임위원)	징자26 →면소	지법	이한구, 오세빈, 박형래	긴조 9호 위반으로 징자1년확정 만기 출소(1978. 3.). 긴급조치 해제로 면소
						고법	김형기, 이영범, 양인평	
7	79	[부산지법 1979. 8. 18. 79고합264] [대구고법 1979. 12. 20. 79노782]	긴조 9호	노경규, 조태원 (무직)	징자2(노경규), 징자1(조태원) →면소	지법	안용득, 조창호, 김진기	긴조 9호위반으로 78. 2. 15. 징자2집3 확정(조태원), 긴급조치 9호 해제
						고법	김호영, 김태준, 김영일	
8	79. 4.	[춘천지법 강릉지원 1979. 9. 19. 79고합36] [서울고법 1979. 12. 27. 79노1393] [대법 1980. 2. 26. 80도201]	긴조 9호, 반공법	000 (어부)	징자3→ 징자1.6→ 면소(긴조)	지법	박규석, 이유주, 오행남	긴조 9호위반은 면소
						고법	김형기, 이영범, 양인평	
						대법	서원홍, 양병호, 안병수, 유태홍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원일보 000에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해 역설하며 '북한이 훨씬 살기 좋고 군사력도 막강하며 생활수준과 교육수준도 남한보다 훨씬 높다는 등의 유언비어로 북한을 찬양		
9	79. 4.	[대구지법 1979. 9. 19. 79고합240] [대구고법 1979. 12. 20. 79노910]	김재호, 이태현 (학생)	징자1→면소	영남대생들로, 김재호는 대구시 소재 음식점에서 개최된 '죽순문학의 밤'에 참석하여, 지인들과 술을 마시면서 문학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문학의 창조성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며 이후 약 3회에 걸쳐 회합하여 "79영남자유청년구국선언"이라는 제목 하에 압당한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유신체제의 철폐를 주장하는 유인물을 작성	지법 서정제, 조건호, 이인환 고법 김호영, 김태준, 김영일	긴조 9호 해제
10	79. 4.	[수원지법 1979. 9. 20. 79고합142] [서울고법 1982. 12. 30. 79노1455] [대법 1983. 7. 12. 83도357]	000 (고교 교사)	징자3→징자1 집2 면소(긴조)	수업중, 문세광의 총탄을 피해 숨는 모습을 취하며 '문세광은 용감했다'고 말하고(북괴지령받아 잠입한 동인활동 찬양함으로써 북한이롭게 함), "북한은 남한보다 통신시설이 발달했고, 000가 '새마을의 길'이란 책을 저술한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이 써준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함.	지법 이한구, 오세빈, 박형래 고법 천경송, 이상현, 유 현 대법 이정우, 김중서, 신정철	
11	79. 3.	[서울형사지법 1979. 9. 24. 79고합324] [서울고법 1979. 12. 27. 79노1408]	000 (무직)	징자26 →징자1	대화중 "박정희는 나쁜 놈이다, 있는 놈은 잘살고 없는 놈은 못살고 있으니 공평하지 못하다. 김대중은 이북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인데 박정희XX가 죽었다, 이북은 김일성이가 정치를 잘해서 살기가 좋은데 박정희XX는 독재만 쓰고 있다" 등의 말을 수회에 걸쳐 함	지법 이재화, 이홍복, 이정구	
12	79. 5.	[대전지법 1979. 9.	김용훈	징26지2→	전직 신민당 논산지구당 청년부장으로 김대중	지법 최규봉, 임승균,	긴급조치 해제로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27. 79고합89] [서울고법 1980. 1. 9. 79노1483]		(무직, 전 신민당간부)	면소	에게 출감성명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헌법개정추진하는 정당의 발족준비단체인 민주헌정동지회 논산지부 조직하면서 동회 가입을 권유함	이관형 고법 박천식, 정상화, 이창구	면소
13	79. 6. [대구지법 안동지원 1979. 10. 4. 79고합51] [대구고법 1979. 12. 27. 79노928]	긴조 9호, 반공법	000 (행상)	징자3집4→징6월자1집1(긴조면소)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박정화 정권은 곧 무너진다, 박정화는 누구 손에든 곧 죽는다,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은 김대중과 김영삼이다. 저번 선거때에도 김대중이 이겼는데 정부 조작으로 정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김일성 형님이 최고다"라고 발언함.	지법 박종윤, 김성수, 김인수 고법 김호영, 김태준, 김영일	긴조 해제로 면소
14	79. 4. [서울형사지법 1979. 10. 15. 79고합359] [서울고법 1980. 1. 10. 79노1735]	긴조 9호	000 (신문보급소 총무)	징자4 →면소	신문보급소원들과 대화중, "정부에서 어떤 사건으로 30명을 창고에 넣어 불태워죽였는데 신문에는 발표되지 않았다, 000가 내려올때 당시 000는 000와 영등포에 있어 살아남았다" 등의 말을 함(유언비어 유포)	지법 주진학, 강원구, 김학대 고법 김형기, 이영범, 양인평	술에 취해있었다고 항변, 긴급조치 해제로 면소
15	79. 7. [대구지법 1979. 10. 15. 79고합339]	긴조 9호	000 (농업)	징자2	청기읍 소재 농협의 권장으로 심은 감자 '시마라바'가 싹이 트지 않자 위원장으로서 감자재배를 권장한 군당국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농민운동에 앞장서 온 자인바, 보상관계 등으로 동읍 소재 다방을 드나들며 알게 된 다방주인의 딸과 불륜관계로 복잡해지자 함께 여행을 떠나서 약 두달간 소식을 듣지 못한 주변인들에게 자신을 과시할 목적으로, '가을 감자 폐농에 대한 피해보상대책에 앞장서고 키톨릭 농민회운동에 관여한다고 반체제인사로 몰려 정보부원에게 납치 감금되어 고문을 받으며 억류되었다가 풀려나게 되었다'는 요지의 이야기를 함(정부가 농민운동을 폭력으로 탄압하는	지법 서정제, 조건호, 이인환	안동농민회'사건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것처럼 유언비어 날조유포)		
16	79. 10. 27.	[제주지법 1979. 12. 7. 79고합86] [광주고법 1980. 2. 14. 80노3]	긴조 9호	000 외 2인 (회사원)	정10월자1집2→면소 박정희 시해소식듣고 "우리나라 군부대가 하나 중발되어 스타도 물러났다"고 말함(유언비어 유포)	지법 양상훈, 황 익, 양동석 고법 이두형, 이태우, 임현택	긴급조치 해제로 면소
17	79. 10. 19.	[제주지법 1979. 12. 10. 79고합84]	긴조 9호	000 (무직)	제주경찰서 타격대 내부반에서 독재정권타도, 민주회복, 유신철폐하라는 '2천 제주대학생에게 고한다' 제하의 유인물 156매를 제작함.	지법 양상훈, 황 익, 양동석	긴급조치 해제로 면소
18	79. 10. 17.	[부산지법 1979. 12. 11. 79고합782]	긴조 9호	강명규 (학생)	동아대생으로 근간에 발생했던 YH노사분규 및 신민당총재에 대한 의원제명 등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동아대 본관 앞에서 학생들을 선동해 허가없이 집회 시위를 개최	지법 정만조, 김영기, 김진권	긴조 9호해제로 면소
19	79. 9.	[부산지법 1979. 12. 11. 79고합678]	긴조 9호	김맹규, 신홍석, 서석권(학생)	부산공업전문대학생들로, 부산시 대청동 소재 천주교부산교구청 회의실에서 '현정권의 제도적 모순, 노사분규에 공권력개입, 저임금체제와 노동 3권을 박탈해간 독재정권의 억압, 긴급조치로 인한 지식인 청년들의 구금 구속의 자행 등으로 독재정권을 현상유지'하고 있다는 요지의 내용물을 수차례에 걸쳐 800매 가량 등사제작하고, 학생들을 선동해 집회시위주도	지법 정만조, 김영기, 김진권	긴조 9호해제로 면소
20	79. 10. 17.	[부산지법 1979. 12. 12. 79고합780]	긴조 9호	000 (표구상)	부산역 광장에서 직전에 시위하다 해산되지 아니한 일부 군중들 사이에 끼어들어 '전날 시위에 참가했다 여자1명, 남자2명이 할복자살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함(유언비어 유포)	지법 정만조, 김영기, 김진권	긴조 9호해제로 면소
21	79. 3.	[대전지법 1979. 12. 13. 79고합137]	긴조 9호	000 (고교 교사)	고교 윤리교사로 수업중, "000, 각부 장관들이 연예인들과 스캔들이 많다, 현정부는 정치를 썩어빠지게 하고 있으니 쿠데타를 일으켜야 한	지법 최규봉, 임승균, 이기중	긴조 해제로 면소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다, 저금을 하면 울산실업같은 기업체에 부정대출이나 하고 있어 저금을 해도 소용없다"는 등의 말을 함			
22	79. 8. 13.	[전주지법 1979. 12. 14. 79고합131]	김조9호	000 (목사)	면소	성광교회목사로 봉직중인 자로, 동료목사와 함께 월맹공산당원의 활동을 찬양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공법위반죄로 기소되어 1977. 11. 5. 전주지법에서 징역10선고, 1978. 6. 27. 대법에서 확정된 사실에 대해 동교회에서 개최된 선교와 인권을 위한 기도회에서 이에 대한 억울함을 신도와 동료목사들 앞에서 호소	지법 정현식, 정은환, 백영엽	김조 9호 해제
23	79. 1. 10.	[대구지법 안동지원 1979. 12. 15. 79고합 83]	김조 9호	김주호 (무직)	면소	김조 위반으로 서울구치소내 수감중 유신헌법 철폐하라고 수회 구호를 외침	지법 박종윤, 김성수, 김인수	김조 9호위반으로 징자3선고받고 79. 5. 22 확정, 김조 해제로 면소
24	79. 10.	[서울지법 성북지원 1979. 12. 18. 79고합 325]	김조 9호	인원근, 김남일 (대학생)	면소	한국외국어대생들로서, 유신철폐데모를 결의하고 '자유를 위한 선언서'제하 유인물 200부를 작성하여 10. 24 교내 학생회관 등지에 배포함	지법 오상걸, 임완규, 장세두	김조 9호 해제로 면소
25	79. 9.	[서울지법 성북지원 1979. 12. 18. 79고합 283]	김조 9호	정해량, 윤종천 (대학생)	면소	경희대생들로서,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경희인들이여'제하 유인물과 YH사건 책임자처벌, 오원춘 사건 조작극 중지, 유신철폐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작성하여 9. 18. 경희대 교내에서 150매를 배포함	지법 오상걸, 임완규, 장세두	김조 9호 해제로 면소
26	79. 10. 18.	[부산지법 마산지원 1979. 12. 18. 79고합 184]	김조 9호	정인권, 정성기, 옥정애, 최갑순, 박인준 (경남대생)	면소	경남대학생들로 교내에서 학원자유, 민주회복, 독재타도 등 구호외치며 시위함(학교장 허가받지 않은 시위).	지법 이희래, 김용주, 진병춘	긴급조치 해제로 형법상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되어 면소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79. 8.	[춘천지법 1979. 12. 20. 79고합48]	긴조9호	전광표, 유경선, 최 윤, 성낙철, 정양언 (대학생)	면소	강원대 학내씨클인 언어문화연구회 선후배기간으로,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철폐를 주장하는 집회, 시위주도를 결의하고 수사회합하면서 '자유정의, 민주수호'라 표기된 머리띠 100여매와 '모이자! 외치자, 우리의 자유를'이라는 제목아래 유신헌법 및 긴급조치를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은닉소지하고 다니면서 학내 곳곳에서 배포, 학생들을 선동	지법 박종택, 이주홍, 이원구	긴조 9호 해제
79. 8.	[춘천지법 1979. 12. 20. 79고합52]	긴조 9호	김성규 (무직, 전 강원대생)	면소	강원대제적생으로 동대학내 연구씨클인 언어문화연구회에 가입, 상피고인 성낙철, 정양언 등과 함께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철폐를 주장하는 집회, 시위 주도를 논의하고, 수사회합하면서 '자유정의', '민주수호'라 표기된 머리띠 100여매와 '모이자! 외치자, 우리의 자유를'이라는 제목아래 유신헌법 및 긴급조치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은닉소지하고 다니면서 도서관서 배포, 학생들을 선동	지법 박종택, 이주홍, 이원구	긴조 9호 해제
79. 5. 18.	[서울지법 성동지원 1979. 12. 22. 79고합 140]	긴조 9호	000 (양돈업)	면소	유신철폐, 민주회복 내용의 김대중 회견문 번역인쇄물, 국민연합, 민주청년인권협의회 성명서, 동아투위 소식지 등 헌법왜곡비방, 폐지 주장하여 긴조 9호 비방하는 표현물소지	지법 김승진, 박준수, 이신섭	긴급조치 해제로 형법상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되어 면소
79. 8.	[대구지법 1979. 12. 22. 79고합405]	긴조 9호	임진호, 권오국, 허중호, 임광호, 정동남, 이창주 (대학생)	면소	계명대, 경북대, 영남대생들로 10여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회동하면서 일시에 3개 대학에서 집단시위를 감행키로 공모하고, 유신헌법 및 긴급조치를 철폐하라는 내용의 선언문을 각각 1, 000매 이상씩 복사하여 3개 대학에 배포	지법 서정제, 조건호, 이인환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31	79. 4. 9.	[서울형사지법 1979. 12. 24. 79고합630]	긴조 9호	김태용 (신민당중앙 상무위원)	면소 (긴조해제)	충북진천문화원에서 개최된 신민당 지구당개편대 회장에 참석하여 동지구당 대의원들에게 축사 도 중, 긴급조치 해제와 구속정치범 석방을 언급	지법 이재화, 김 훈, 이정구	긴조 9호 해제로 면소
32	76. 6.	[서울형사지법 1979. 12. 24. 79고합601]	긴조 9호, 폭처법, 공무집행방 해	이경재 (학생)	면소(긴조), 선고유예	고려대휴학생으로 동피고인 박선오, 백완승 등과 공모하여 '유신철폐, 긴조해제, 학원자유, 구속학생석방 등에 관한 유인물 제작, 전시하고 연세대에서 회합하여 불온유인물 배포 등의 방법으로 반정부시위를 감행, 각 대학으로 확산시키기로 상호 공모하고 현행헌법철폐와 대통령긴급조치 9호를 비방하는 내용의 '5월민족선언문' 표현물을 제작하여 고려대 구내에 전시, 살포	지법 주진학, 강원구, 김학대	긴조 9호위반은 면 소
33	79. 5. 15.	[서울형사지법 1980. 1. 7. 79고합445]	긴조 9호	박선오 (학생)	면소 (긴조해제)	고려대휴학생으로 유신철폐, 긴조해제, 학원자유, 구속학생석방 등에 관한 유인물 제작, 전시하고 이경재, 백완승 등과 연세대에서 회합하여 불온유인물 배포 등의 방법으로 반정부시위를 감행, 각 대학으로 확산시키기로 상호 공모하고 현행헌법철폐와 대통령긴급조치 9호를 비방하는 내용의 '5월민족선언문'을 제작하여 고려대 구내에 전시, 살포	지법 문영택, 강원구, 김학대	긴조 9호 해제로 면소
34	79. 6. 9.	[광주지법 1980. 1. 8. 79고합288]	긴조 9호	윤한봉, 장석웅 (교원), 이세천, 신민정, 조순형(대학생)	면소	민주회복구속자협의회 전남협의회 회장, 현대문화연구소 소장(윤한봉), 중학교사, 전남대학생들로서, '민주학생시국선언'을 작성, 교내에 배포하고, 씨클연합으로 시위를 하기로 하고 '대학인에게 드리는 편지' 170매를 진주에서 우체통에 발송하고 전남대생앞으로 우송함	지법 정태규, 박준흠, 이재기	아래
긴조해제로 면소 윤한봉- 1974. 9.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긴조1.4호 위반, 내란예비음모, 국보법 위반으로 징자 15선고, 대전교도소 복역 중 형집행정지로 출소 1977. 5. 10. 대법에서 긴조 9호위반으로 징자1.6선고 복역출소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79. 1. 10.	[청주지법 1980. 1. 14. 79고합66]	긴조 9호	김준영 (대학생)	면소	긴조 9호위반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 '구속 인사 석방하라', '유신헌법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큰소리로 외침	지법 유근완, 정덕홍, 김숙	
79. 9.	[서울형사지법 1980. 1. 20. 79고합688]	긴조 9호	000 (대학생)	면소 (긴조해제)	형과 삼촌이 보던 책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에 대한 사실을 왜곡표현한 내용의 노래가사 용지를 소지	지법 이재화, 김훈, 이정구	1979. 10. 8. 서울형사지법에서 부친 000, 삼촌 000, 000 등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2집 4(000, 000), 무기징역(000)선고
79. 5.	[광주지법 1980. 1. 26. 79고합288]	긴조 9호	박병기 (무직)	면소	윤한봉으로부터 돈 2만원을 받아 등사기 등을 구입하여 '박정희 듣거리'로 시작하는 유인물 200매를 제작하여 광주 시내 일원에 배포하고, 장석웅, 이세천, 신민정, 조순형, 윤만식 등과 함께 유인물을 제작하여 진주시내 우체통에 투합 발송하고 전남대 270여명에게 우송함	지법 정태규, 박준흠, 이재기	긴조 9호위반으로 징2자4선고(78. 8. 23.), 긴조해제로 면소
79. 7.-8.	[광주지법 1980. 2. 20. 79고합199]	긴조 9호	백윤석 (목사)	면소	79. 7. 9. 민주주의국민연합회 회장등으로 활동하면서 청주 도시산업선교회 노동교회 개척 예배에서 설교중 "유신헌법, 긴급조치는 현정권 유지보장하기 위해 계속 지속하고 있다, 긴급조치는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므로 해제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함	지법 전충환, 강길봉, 오상현	긴조 해제로 면소
79. 10.	[광주지법 1980. 2. 20. 79고합279] [광주 고법 1980. 12. 23. 80노143]	긴조 9호, 공용건조물 방화	000, 000 (대학생)	징16집2, 면소(000의 긴조위반의 점)	전남대생들로, 기관원들이 대학내 상담지도관실에 상주하며 학생들의 동태감시하는 것에 항의하고자 10. 17. 위 장소에 불을 지르기로 공모하고 상담지도관실 큰문에 석유를 뿌리고 실내에 석유를 붓고 불을 켜 넣어서 의사, 유리	지법 전충환, 강길봉, 오상현 고법 이두형, 김성기, 임현택	긴조해제로 면소

발생일자	사건 번호	적용 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 요지	재판관	비고	
					창 등을 소취함. 교내 화장실벽에 '우리는 유신 헌법에 하나도 만족하지 않는다, 물러가라'고 씌(긴조 해제로 면소)			
40	77. 10. 18. 79. 4. 6.	[대구지법 1980. 3. 12. 79고합366]	긴조 9호	정호경(신부), 정재돈(교회직원)	면소	천주교 안동교구청 주최 '농민, 근로자, 양심수인을 위한 기도회' 결의문을 작성하고(긴급조치 비방), 카톨릭농민회활동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한 '오원춘 사건'의 경위서를 작성해 '짓밟히는 농민운동' 가톨릭 농민회 임원납치 폭행사건 전모'라는 보고서를 교구내 신부들에게 배포(사실왜곡)	지법 최공웅, 김은집, 이인환	영양불량감자종자 피해보상을 주도한 오원춘을 정복기관에서 납치한 '안동 농민회 사건'
41	78. 6.-79. 1.	[대구지법 1982. 5. 24. 79고합107]	긴조 9호	최형호 (무직)	면소	긴조9호 위반으로 상고심계류중, 구치소내에서 유신헌법철폐, 독재정권타도, 긴급조치 해제, 노동자생존권보장, 구속인사석방 등의 구호를 수회 외침(헌법폐지 주장, 긴조 비방)	지법 이용우, 최병덕, 하영곤	긴조 9호로 수감중 재차 긴조위반으로 기소